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장
갈뱅
시대의
컨시스토리
회의록
(1542-1544)
연구

박 사 학 위 논 문

장 갈뱅 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1542-1544) 연구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신 학 과

이 역 주

이
역
주

지도교수 정 성 구 · 황 재 범

2
0
0
8
년
6
월

2 0 0 8 년 6 월

+

장 갈뱅 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1542-1544) 연구

지도교수 정성구·황재범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6월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이 익 주

이억주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오 우 성

부 심 황 재 범

부 심 허 도 화

부 심 임 경 수

부 심 배 광 식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2 0 0 8 년 6 월

감사의 말씀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어렵고 바쁜 목회사역 중에 신학을 더 연마할 수 있도록 은혜와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장 깔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1542-1544) 연구 논문을 쓰도록 시종 일관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은닉된 소중한 정보자료 및 문헌들을 찾아 주신 정성구 지도교수님(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 황재범 지도교수님, 그리고 정중호 교수님, 오우성 교수님, 허도화 교수님, 임경수 교수님, 배광식 교수님(대신대), 김남식 교수님(계명문화대학 학장), 황봉환 교수님(대신대), 정준모 교수님(대신대, 성명교회 담임), 이현원 교수님(계명대), 권윤근 목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도록 기도와 후원을 보내주신 대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동역자, 가족, 특별히 어머니 백영순 집사님과 사랑하는 딸 이주희와 여쭙 아내 박영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필자의 이 연구논문을 통해 21세기 새천년을 그리스도의 교회시대로 꽃피우고자 땀 흘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여호와 닮기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6월

이 역 주

목 차

I 서 론	1
A. 연구동기와 목적	1
B. 연구방법 및 범위	2
C. 연구사	4
II.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와 의회정치 형성	7
A. 제네바시 의회정치 형성 배경	7
B.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와 치리회	14
C.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용어와 그 역사	19
III.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헌법과 교리및 특징	28
A.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헌법과 교리	28
B.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교리작성	33
C.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특징	36
IV. 갈뱅의 컨시스토리와 스코틀랜드 치리회및 영국교회 치리회 비교분석	43
A.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 비교분석	43
B.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와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 비교분석	47
C.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와 영국교회 치리회 비교분석	53
V.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시행한 교회권징의 이유와 목적	65
A.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이유	65
B.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목적	67
C.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과정	82
VI.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시행한 교회권징들의 실제	92
A.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신학적인 권징문제	92

B.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교회적인 권징문제	94
C.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윤리적인 권징문제	106
VII.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에 나타난 교회권징의 원리들	115
A.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경건의 원리	115
B.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교화적 원리	119
C.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성경적 원리	125
VIII. 결 론	129
참고문헌	133
영문초록	151
국문초록	157

일 러 두 기

* 필자의 논문 중 사용된 한글 단어의 의미가 불충분 하거나, 원어 및 기타 용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직역과 해석상 불충분한 인상을 준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원어 및 원 문장의 의미가 필자의 논문을 이해하는데 교회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는 원어를 그대로 서술하거나, 괄호(), 또는 작은따옴표 ‘ ’, 그리고 겹 따옴표(“ ”)를 첨삭, 이해를 주었으며, 그 단어와 년도, 그리고 해당된 문장이 종결되는 서술부에 각주를 두어 해설로 처리하였다.

* 필자가 이 논문에 인용한 외국인 저자들의 문헌을 이 논문에 처음 기록 할 때는 Full Name으로 쓰고, 이어서 반복적으로 언급할 때는 번역 상 편리를 위하여 한글로 인용하거나, 인칭대명사(이는, 그는, 저는) 및 지시대명사(이 사람은, 저 사람은, 그 사람은)로 호칭하기도 하였다.

* 필자가 이 논문에 여타 문헌을 인용하거나, 저자를 각주에 기록할 때 처음으로 인용하는 저자는 Full Name과 문헌제목은 원문 이탤릭체로 표기하였고, 반복해서 첨삭할 때는 단순히 그 성이나 이름만 쓰고 그 다음에 쪽 수를 두었다.

* 필자가 이 논문에 쓴 '갈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라는 표기와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라는 호칭은 이 논문을 서술하는 가운데 호환적으로 사용했던 '제목'이었음을 밝혀 둔다.

약 어 표

- Inst(153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ion 1536)(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75).
- Inst(1541):* J. Calvin, *Calvin'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the fourth book, which treats of the Church and the Sacraments.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s de l'église de Genève. Item l'ordre des escoles de la dite cité. Geneva, 1541.
- Inst(155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ume I and II (Edition 1559)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DRCGE:* Samuel Rutherford, *The Divine Right of Church -Government and Excommunication* (London: The Saint Andrew Press, 1646).
- DRP:* Samuel Rutherford, *The Due Right for Presbyterie or, a Peaceable Plea, for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of Scotland* (London: The Saint Andrew Press, 1644).
- NPW:* *The humble Advice of the Assembly of Divines, Now by Authority of Parliament at Westminster, Concerning A Confession of Faith.* With the Quotations and Texts of Scripture annexed. Presented by them lately to both Houses of Parliament, (London: Edinburgh, 1647).
- PTPS:* Samuel Rutherford, *A Peaceable and Temperate Plea for Pauls Presbyterie in Scotland* (London: Banner of Truth, 1642).

RCG: Robert M. Kingdon,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Eerdmans, 2000).

SWC2: 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 (eds)., *Selected Works of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ume 2,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SWC5: 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ume 5 (Letter, Part2)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545).

I. 서 론

A. 연구동기와 목적

이 논문의 연구 동기 및 목적은 『갈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¹⁾을 분석함으로써 그 당시 제네바 교회의 컨시스토리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그곳에서 어떤 의제를 논하였고,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어떠한 권징 (church discipline)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그 동안 이 책이 제대로 편집되고 번역, 출판되지 못해서 최초의 장로교회였던 장 갈뱅(J. Calvin)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운영은 거의 알려져 오지 않았다. 이 책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세계 개혁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 그 내용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자는 갈뱅 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이 컨시스토리에서 과연 어떤 사건들을 다루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제네바 교회가 시행한 권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장로교회였던 제네바교회 권징의 구조 및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한국장로교회가 나아가야 할 정치조례의 근거 처리회의 역할 그리고 권징의 모델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갈뱅시대 제네바시 컨시스토리는 1541년 12월에 창립되었다. 이 기관의 창립시기는 갈뱅이 제네바에서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온 직후였다. 갈뱅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창립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교회의 감독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질서유지가 요청되었다. 교회의 권징차원의 훈련을 위해서 갈

1) Robert M. Kingdon,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Eerdmans, 2000), 1-450. 이 책은 라틴어 원본으로부터 최근 영어로 편집 및 번역된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책을 RCG라고 부른다.

뱅은 교회의 전권을 의회가 일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제네바 의회는 갈뱅의 이 제안을 수용하고 허락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기능 으로서는 심리법정, 상담기관, 교육 및 훈련기관 등 이었다.

B. 연구방법 및 범위

먼저 갈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네바 종교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 종교개혁의 출발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해 내고자 한다. 이어서 제네바 공화국 창립과 의회 공화정치 형성 배경을 연구하고, 나아가 가톨릭 주교는 누가, 언제, 추방하였는지, 주교좌는 어떻게 폐기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총회격인 200인 위원회, 노회격인 60인 위원회, 당회격인 12인 위원회) 형성과 수립의 역사를 분석하고, 그 중심 사상과 뿌리를 밝혀 내고자 한다. 이어서 제네바 종교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행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I장에서 『갈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을 연구하는 방법과 문제제기 및 번역과 연구 분석을 통한 권징 사례들을 발굴해 낼 것이며, 갈뱅의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 나타난 그의 신학적 교회정치와 세상나라 정치윤리를 분석할 것이다.

제II장에서는 갈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제도화되기까지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의회정치의 근거들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 역사적 확실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갈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용어와 교회의 치리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갈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법적 기능을 살펴보려고 한다. 갈뱅은 제네바시의 개혁과 성시화를 위하여 어떠한 법을 만들었고, 교리와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도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육으로 적용하였는지, 그리고 갈뱅은 1541년 제네바 교회헌법을 제정하고, 1542

년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아보
고자 한다. 그가 여기에 근거하여 시행한 권징의 결과는 하나님 중심, 의회
중심, 교회중심, 시민국가 중심의 일치된 가운데 특이한 구조로 발전하여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될 때 부패했던 중세 가톨릭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바
로 잡아 주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권징시행과 그 처리를 위한 기초적인 교회헌법과 교리작성 및 그 시행을
위한 권징재판, 그리고 권징시행의 원리들을 분석해 보았다. 갈뱅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항하여 교회질서를 흔들어 놓으려
는 범법자들의 회개를 도출하여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도
록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갈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교
회권징을 시행하였는지, 그 과정을 밝혀내고자 한다. 교회권징의 이유와 목
적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오게 된다, ①교회권징은 형벌이
아닌 양육이다. ②교회권징의 불이행은 교회본질의 상실을 가져온다. ③교
회권징의 과정은 5단계로 이루어졌다.

필자는 “갈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²⁾이라는 책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권징들을 사건별(임의적으로 취사선택)로 분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방대한 사건들은 편집자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이 같은 사건
으로가 아닌, 시간적 순서로 배열해 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체계적이
고, 논리적으로 제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
은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은 주제를 세워 분류하고자 한다. ①신학적인 문제
로 권징받은 사건들을 분류한다. ②교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권징들을 하나
로 묶는다. ③윤리적인 문제로 인한 권징들을 한 동아리로 구분한다.

제V장에서는 “갈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에 담겨있는 약 150
여 가지 이상의 권징사건들³⁾이 과연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판단되고 치리

2) *RCG*, 2-3.

3) *RCG*, 3-4. 교회헌법이나 교리에 근거하여 교회안에 직원 및 직분자, 성도들에
게 권선징악을 시행함으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는 모든 행위와 조치들을
일컫는 말이다.

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칼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컨시스토리는 서양사에서 보통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다. ① 종교법원 회의. ②로마 가톨릭 추기경 회의. ③영국 국교회 감독법원. ④ 장로교회의 장로법원이다. 이것이 칼뱅 시대의 제네바에서는 시의회에서 선출된 12명의 위원(일부위원은 장로)들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서는 시민들의 종교문제 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사의 문제들까지도 재판하고, 처리하였다. 이것이 후대에 이르러 장로교회의 당회(Consistory)에 기원이 되었다.

제VI장에서는 칼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시행한 교회권징의 실재를 연구하고 분석할 것이다. 『칼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 가운데 산재(散在)해 있는 약 150여 가지 이상의 권징사건들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그 내용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제VII장에서는 『칼뱅시대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에 등재되어있는 150개 이상의 다양한 권징사건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원리를 찾아 낼 것이다. 필자가 발굴하고자 하는 원리는 약 세 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 개인과 가정, 교회와 제네바(국가)를 기독교 중심으로 개혁하고 정치적으로 교화를 꾀하여, 실패한 중세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의 신정정치 시대로 새롭게 개척한 역사적 교훈과 그 실현성을 제시할 것이다.

제VIII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칼뱅이 제네바교회 담임목회자로서 재임하는 7년여 기간 동안 칼뱅이 가톨릭으로 부터 밀려오는 그 엄청난 박해와 혼란스러웠던 사회적 부패의 파고 속에서, 제네바 교회, 개인, 가정, 사회, 나아가 제네바 시민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의 질서 및 도시국가의 시민윤리를 실현하는 과정을 밝혀내고자 한다.

C . 연구사

필자의 이 연구는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본 연구 주제와

관련성이 깊은 자료들을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희소한 자료들을 하나, 둘 수집하면서 얻어진 석사학위 이상의 논문, 저서, 번역서, 저널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분석함으로써 획득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타의 논문들과 다르게 나타난 그 차별성이 무엇이지를 분명하게 밝혀내고자 한다. 칼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가 1987년, 역사학자인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⁴⁾에 의해서 최초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편집을 통해 칼뱅이 5년간(1542-1546) 제네바 교회를 목회하고 개혁하는 가운데 3년(1542-1544) 동안 시행한 권징사건들을 다루었다. 그는 여기서 칼뱅이 제네바 교회를 개혁하는 데 사용한 방법중 하나가 권징시행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그 당시 문자표기가 통일되지 않았던 시대, 옛 프랑스로 기록되어 있으며, 필기체와 속기체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문서를 번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⁵⁾고 한다. 이 책은 현재 프랑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최근 2000년에 들어와서야 원문의 정리 작업을 거쳐, 영어로 번역된 책이 출간되었다. 출간된 내용은 1542-1544년까지 3년 동안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정도이다.⁶⁾ 그러나 칼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이 담고 있는 권징 사건들은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과정, 의사 결정과정 등 그 세밀한 절차가 빠져있다.

이정숙은 그녀의 박사 학위논문 “제네바에서 칼뱅의 출교와회복(Excommunication and Restortation in Calvin's Geneva. 1555-1556)”⁷⁾에서 권징의 최종단계를 출

4) 정성구, **개혁주의 인명사전**(서울: 총신대학교 출판사, 1995), 664-665. Robert M. Kingdon은 미국 신학자, 교육학자, 인류학자, 제네바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연구(1960-1966), 미국학문 연구협의회로부터 특별연구위원위촉, 유럽에서 학술조사 연구, 고등학문 연구원 위원(1966), 교수(아이와대, 스탠포드대, 암허스트대, 위스콘신대), 저서로 프랑스 종교전쟁(1555-1563),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합병과 제네바(1564-1572), 칼빈시대의 제네바 목사의 명부(J. F. 베르기어와 A. 뒤포)를 저술하였다.

5) *RCG*, 1-2. 킹던(Kingdon)은 자신이 편집한 책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6) 한국칼빈학회, **최근의칼빈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08-310.

7) Jung-Sook Lee, "*Excommunication and Restortation in Calvin's Geneva*,

교로 보고, 회복을 위한 과정을 성도의 훈련으로 다루었다. 이 논문은 출교와 회복이라는 대립적 평행선을 훈련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잘 표현했지만, 그 이후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을 남겼다.

배광식은 그의 박사논문⁸⁾에서 장로교의 시원이 장 칼뱅이 목회한 제네바 교회로 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의 장로교 정치원리와 치리제도를 역사적으로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는 칼뱅의 장로교 정치를 칼뱅의 기독교 강요 초판과 최종판에 나타난 교회론과 직제론에서 찾았다. 그는 여기서 1536년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고백서로 개혁교회 신학의 기초를 제공하는 제네바 신앙고백서 제정과 1537년 교회조직과 예배모범인 제네바교회 규정서가 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1541년 10월 9일에 개정된 제네바교회 규정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일련의 과정들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요한 칼빈이 5년동안 제네바 교회를 목회하면서 시행한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권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1555-1556”(P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7), 1-34.

8) 배광식, **장로교 정치원리와 치리제도 형성에 관한 역사적 연구**(대구: 계명대학교, 2005), 7-50.

II.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와 의회정치 형성

A. 제네바시 의회정치 형성배경

1. 스위스 베른시 의회 공화정치

딕슨(W.C. Dickinson)의 저술에 의하면 “갈뱅시대 제네바시 의회가 채택한 공화정치제도의 기원은 스위스 베른시 의회 공화정치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다.”⁹⁾고 주장한다. 딕슨의 이 말은 베른시의 공화정치가 갈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뿌리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딕슨은 “갈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 조직은, 25인 소의회, 60인 위원회, 200인 평의회가 베른시 의회 공화정치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⁰⁾고 역설했다. 또한 딕슨에 따르면 “제네바시 공화정치에 결정적 영향을 준 도시는 쓰윅글리가 지적하고 있는 베른시 의회 공화정치이며, 이 제도의 중심에는 쓰윅글리의 개혁신학과 종교개혁이 자리잡고 있다.”¹¹⁾고 진술한다.

딕슨의 분석에 따르면 “15세기 초엽 스위스 연방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부터 모든 주(Cantons)들이 동일한 권리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각 주(Canton)들 사이의 동맹 및 연대관계는 급격한 변화 속에 있었고, 16세기에 이르러 세 지역들이 그룹으로 구성되었다.”¹²⁾고 한다. 또한 딕슨은 쓰윅글리와 연계하여 인용하기를 “제1그룹은 13개 자치주(自治州)들, 제2그룹은 동맹주들(Affiliated States), 제3그룹은 공동 주권지역들(Common Lordships)이었다. 제네바시는 그 가운데 제3그룹인 공동주권지역에 속한 베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¹³⁾는 사실을 적시해주고 있다.

딕슨은 “홀드리히 쓰윅글리(Huldrych Zwingli)가 채택한 스코틀랜드의

9) W.C. Dickinson, *A New History of Scotland* Vol I.(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61), 116.

10) Ibid., 118.

11) Ibid., 116.

12) Ibid., 119.

13) Ibid., 118.

정치(치리회)제도가 칼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영향을 주었다.”¹⁴⁾고 논증한다.

이와같은 덕슨의 교회사적 이론을 견주어 볼 때 “제네바 시민들의 주권의식은 다른 지역보다 강했다.”¹⁵⁾ 제네바시 남쪽에는 공작이 다스리는 사보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다. 이 사보이가 1290년부터 제네바를 지배해 왔다. “총독(vicedominus), 일종의 행정관을 제네바에 파송해서 이 사람을 통해 제네바를 통괄해 왔다”¹⁶⁾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마크 그린그래스(Mark Greengrass)는 “제네바시가 1444년 이후부터 그 도시를 관장하는 감독을 임명했다.”¹⁷⁾는 기록을 보여주고있다. 그린그래스의 기록은 “이때부터 제네바 시민들은 외세에 대항해서 제네바시 주민자치 조직인 의회를 만들었다. 4명의 집행관(syndics)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제네바를 통치하게 했다. 재무관(재정담당)은 따로 뽑았다. 의회는 3원제였다. 20인 소위원회, 60인 위원회, 200인 위원회가 바로 제네바시 의회 공화정치의 전부였다.”¹⁸⁾는 역사를 천명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파거(T. H. L. Parker)는 위와 같은 그린그래스의 견해를 지지한다. 파거의 논거를 보면 “이 사보이는 제네바시에 감독관을 파송하였다. 사보이는 이 감독관을 통해 제네바를 통치해 왔다.”¹⁹⁾고 주장한다. 이 감독제는 1444년 이후 한때의 전성기를 거쳐 쇠퇴해 갔다.²⁰⁾ 그 이유는 외세에 강한 제네바 시민들의 자주적 자치능력이 사보이 감독 제도를 무력화 시켰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이상의 제네바 공화정치 형성배경에 대한 여러 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결론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되었다.

14) Ibid., 117.

15) Ibid., 119.

16) Ibid., 118.

17) Mark. Greengrass, *Chronology of the Reformation at Geneva 1541*(Sheffield: University of Sheffield, 1543), 10.

18) Greengrass, 10-11.

19)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91.

20) Ibid., 93.

딕슨이나 그린그래스가 주장하는 칼뱅시대 제네바시 의회 공화정치는 칼뱅시대 이전부터 이미 제네바시와 연합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스위스 베른시 의회를 통해서 그 영향 가운데 수립되었고, 이것은 또한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를 수립하여 교회개혁을 실현하고, 나아가 종교개혁 및 국가(세계)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함께 발전해 왔음을 확인시켜주는 역사적 증거들을 발굴해낸 수확이라고 할수 있다.

2. 파렐과 제네바 종교개혁

윌리스톤 워커(Williston Walker)의 논증에 따르면 “귀욤 파렐(Guillaume Farel: 1482-1565)은 1528년 2월 7일, 스위스 베른의 대다수 시민들이 복음을 수용하자 베른정부는 주변 위성도시 국가(연방)들에게도 종교개혁을 확장시켜 나갔다.”²¹⁾고 해석한다. 이때 베른은 파렐을 파송하여 연방(위성) 국가들을 순회하면서 설교하도록 격려했다.²²⁾

파렐은 1532년 베른의 개신교 맹방이었던 제네바를 방문하였다. 이때 파렐은 그의 복음적인 설교를 통하여 제네바 시민들에게 아주 인상 깊은 종교개혁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었다.²³⁾

워커의 강론은 “그해 파렐은 제네바로 안토니오 프로망(Antoine Fromment: 1508-1581)을 파송, 교사직을 수행케 하는 가운데 개혁신학을 가르치게 하였다.”²⁴⁾고 전한다.

워커의 연구는 “1533년 1월 1일 프로망은 용기를 내어 공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다. 그 결과 회중들이 성상들을 파괴하고, 가톨릭을 제거하고자하는 기세로 폭동을 일으켰다. 그후 파렐은 제네바에 입성하여 그의 친구들과 함께 제네바 시민들과 더불어 공개토론회를 가졌다.”²⁵⁾는 기록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1) Williston. Walker, *John Calvin: the Organizer of Reformed Protestantism 1509-1564*.(New York: AMS Press, 1972), 325.

22) Ibid., 326.

23) Ibid., 326-327.

24) Ibid., 327.

25) 이형기. *세계교회사(II)*(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4), 117-118.

워커는 파렐이 “1534년 3월1일 한 교회를 점령하였으며, 제네바는 베른의 압력 가운데 제네바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프라이부르크(가톨릭 우세)와의 관계를 단절시켰다.”²⁶⁾는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워커는 파렐이 “1535년 5월과 6월에 제네바에서 공개토론을 통해 용기를 얻어, 종전 보다 더 적극적인 종교개혁을 추진하였다.”²⁷⁾고 주장했다. 워커는 파렐을 통해 “1535년 7월 23일 마드렌느 교회를 점거하고, 그해 8월에는 성베드로 대성당을 접수하는 등 갈뱅 이전의 제네바 종교개혁은 이미 파렐을 통해 점화되어 가고 있었다.”²⁸⁾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워커의 이러한 역사적 연구 활동과 교회사적 해안에 감동하였고, 갈뱅의 제네바 종교개혁의 기초에 파렐의 이러한 활동이 숨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발굴을 동경하며 그의 논지에 긍정적인 지지를 표한다.

3. 제네바시 의회의 가톨릭 주교 추방

워커가 진술하고 있는 역사적 증언에 따르면 “1532년 7월 제네바 주교 삐에르 드라 보움(Pierre de la Baume: 1523-1544)이 제네바 의회로 부터 추방되었다.”²⁹⁾는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설명한다. 이때 워커는 “삐에르 드라 보움이 제네바 주교자리에서 추방되기 전 두 번씩이나 주교좌를 옮겼던 적이 있었다.”³⁰⁾는 사실도 공표하였다. 첫 번째는 겍스(Gex: 1534)로 옮겼다. 두 번째는 안느시(Annecy: 1535)로 옮겼다. 그후 제네바시 20인 소의회는 1534년 10월 1일 제네바시의 가톨릭 주교좌가 공석(空席)임을 선포하였다.³¹⁾ 그리고 1535년 제네바시 의회는 이 주교좌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³²⁾

필자의 소견으로 전망해 볼 때 이렇게 명쾌한 워커의 역사진술은 계속된

26) Walker, 325.

27) Ibid., 328.

28) Ibid., 326.

29) Ibid., 324.

30) Ibid., 325.

31) Ibid., 326-327.

32) Ibid., 328.

다. “제네바시 가톨릭 주교좌는 450년 레오 I세가 비엔나 수도 대주교 관할로 선포한 이후 세워졌으며, 그후 부르군트족 최후의 왕 루돌프 III가 죽자 제네바는 신성로마제국으로 넘어가고 말았다.”³³⁾ 그리하여 1536년 4월 2일 마침내 제네바에서 미사가 폐지되었다. 이것은 레오 I세 때인 450년 부터 1536년 4월까지 약 1100년간 지속되어온 가톨릭 주교좌의 영욕의 어두운 교권역사(敎權歷史)가 종교개혁의 뒀안길로 사라지고,³⁴⁾ 제네바시의 새로운 개혁이 그 서막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4. 제네바시 의회와 공화정치

도메르그(E. Doumergue)의 저술에 의하면 “1541년 칼뱅시대 제네바시 의회제도는 공화정치제 였다.”³⁵⁾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공화정치 제도는 자치주인 제네바 시민들이 주권적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었다.”³⁶⁾는 내용도 인식하게된다.

그의 논술내용을 읽어보면 그 당시 제네바는 시민자치주(自治州)로서 도시국가였지만 그러나 스위스 베른시와 비교할 때 개혁적 성향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고, 베른에 의존적이며 종속적인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³⁷⁾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네바시는 베른시 의회가 채택하고 있었던 공화정치제도를 용이하게 수용하고 채택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³⁸⁾

도메르그의 이 문헌은 “1533년 3월 30일 제네바시 200인 위원회가 시민과 함께 절충한 법령을 의결하여 제네바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과 전쟁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하였다.”³⁹⁾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도메르그의 논술에 따르면 “1534년 프랑스로부

33) Ibid., 324.

34) Ibid., 329.

35) E. Doumergue, *La Genève calvinista*(Geneva: Lausanne, 1905), 20.

36) Ibid., 21.

37) Ibid., 20-21.

38) Ibid., 22.

39) Ibid., 22-23.

터 개신교 신앙을 소유한 난민들이 제네바시로 밀려들어왔다.”⁴⁰⁾는 그 당시 사회상을 증언해 주고있다.

또한 도메르그는 1536년 5월 21일 제네바시 전 시민이 참석한 총회 투표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법도와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살아가야 한다.”⁴¹⁾는 맹세를 결의함으로써 마침내 제네바시 의회가 ‘공화정치체’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필자가 도메르그의 논증을 정리해 볼때 이것은 ‘국가와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공화정치를 실현함으로써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 모델을 보여준 이상적 사례로 그 중요성을 지적받기에 충분하다고 사료 된다. 그리고 도메르그의 저술을 통한 그의 저술을 분석해 볼 때 그 당시 제네바시에 거주했던 개신교 인구는 기존의 제네바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톨릭 신자들과 비슷한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고 추측된다.

5. 제네바 컨시스토리 형성과 수립

앨리스터 맥그라드(Alister E. McGrath)의 학설에 따르면 “제네바 시민들의 결집된 총회결의로 채택된 제네바시 의회 공화정치는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확장되어 나갔다.”⁴²⁾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학맥은 마침내 맥그라드로 하여금 제네바시가 스위스 베른시의 협력과 쾰른의 영향, 그리고 파렐의 종교개혁, 프랑스로부터 유입된 수많은 개신교 피난민들,⁴³⁾ 나아가 1541년 제네바시 의회로 부터 청빙받아 돌아온 깔뱅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마침내 1541년에 제네바교회의 컨시스토리를 만들었고,⁴⁴⁾ 제네바시 의회는 이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종교개혁

40) Ibid., 23.

41) Ibid., 23-24.

42) Alister E.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Oxford: Basil Blackwell Ltd, 1991), 111-114.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1541년 깔뱅이, 그가 작성한 교회헌법(the Ecclesiastical Ordinance of Geneva, 1541, revised in 1561)에 근거해서 1542년 의회에 건의, 깔뱅의 이 제안이 제네바 의회의 수락으로 시작되었다. 이 컨시스토리는 상담기구와 교회 법정의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43) Ibid., 112.

44) Richard C. Gamble,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New York & London:

제2세대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였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⁴⁵⁾

이에 대한 파커의 학풍은 맥그라드의 연구보다 좀더 세밀하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갈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실현은 갈뱅과 제네바 의회 및 12명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현되어 갔다.”⁴⁶⁾는 학설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학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파커는 갈뱅이 “제네바시로부터 추방 당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하던 그가 3년 후 제네바의회로부터 강력한 청빙요청을 받았을 때 두 가지 귀환 조건을 내세웠다.”⁴⁷⁾고 논증한다.

여기서 파커가 갈뱅을 이해한 내면을 볼 때 “첫째는 교회의 자율권과 자치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협력하여야 하며, 둘째는 그리스도의 왕국건설을 위해 엄격한 훈련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엄격한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구태여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싸워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⁴⁸⁾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양호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갈뱅은 이 두 가지를 약속 받고 쫓겨난지 3년 4개월 만인 1541년 9월 13일에 제네바로 돌아왔고, 곧바로 교회헌법을 기초하여 공포하고, 청소년 신앙교육과 성인설교를 위하여 총 55과로 된 제2의 요리문답을 만들었다.”⁴⁹⁾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파커의 첨가된 견해는 “갈뱅의 개혁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모델을 가져왔다.”⁵⁰⁾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맥그라드는 이 부분(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542년 이래 갈뱅의 개혁과 권징시행으로 이루어진 제네바 시정은 그의 신정정

Garland Publishing, INC. 1992), 93.

45) McGrath, 113.

46) T. H. L. Parker,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5), 98.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구성원으로 몸담았던 사람들은 제네바 시의회 의원(장로들)과 목사회 회원들이었다. 목사회 구성원은 1542년 9인이었고, 1564년에는 19인 이었다. 이들은 매년 제네바 시의회 위정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선출되었으며, 여기서 선출된 특별 평의원은 1560년대까지 컨시스토리의 회장으로 봉직하였다. 이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교회법정이면서 동시에 제네바 공화국의 법정으로 그 기능을 가졌다.

47) Ibid., 92.

48) Ibid., 93.

49) 이양호. *갈빈의 생애와 사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38-39.

50) Parker, 91.

치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국가통치원리상 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었다.”고 기술했다.

맥그라드는 “제네바 시정은 하나님의 신정(神政), 즉 신재(神裁) 정치로서, 주(州)의회에서 신정정치를 채택했고, 운용면에서 귀족정치를 취한 정치조직인 동시에 기독교 조직이었다.”⁵¹⁾고 역설한다.

맥그라드는 “제네바 시정은 전제(專制) 또는 독재정치가 아닌 민주적인 공화정치였으며 교회와 국가의 이원제(二元制)가 아니라 통합체적 일원제(一元制)로서 기독교와 국가, 교회법과 시민법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통일체 정치체도로서 로마정치와 구별된다.”⁵²⁾는 점도 확실하게 논증해 주었다.

맥그라드는 “갈뱅시대 그가 제네바에서 시행한 도시국가 제도는 대의원제(代議員制)였다.”⁵³⁾고 설명한다.

필자는 물론 “이 제도가 중세기 수도원에 의하여 사용되긴 하였으나 이것이 갈뱅으로 말미암아 더 보편화 되었으며, 그 후 갈뱅주의가 가는 곳마다 이 정치체제를 적용하였고, 마침내 이 제도는 후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⁵⁴⁾는 그 독특성을 지적하고 싶다.

B.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와 치리회

1.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치리

1533년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홀드리히 쾰링글리(Huldrych Zwingli)로부터 출발한 “개혁교회 정치(치리회)가 갈뱅시대 제네바 교회에 이르러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라는 치리회를 탄생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⁵⁵⁾

51) McGrath, 112-113.

52) Ibid., 114.

53) Ibid., 112.

54) Ibid., 113-114.

55) Huldrych Zwingli, 그의 생애와 사역, 박종숙 역(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3), 175-176. 갈뱅의 신학과 그가 시행한 제네바 교회의 컨시스토리제도에 관해서는 쾰링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①스위스 공회정치 제도와 관련이 있다.

쯔빙글리의 기여로 말미암아 공화정치 실현에 성공한 도시 국가 제네바시는 칼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교회권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⁵⁶⁾ 이것은 고대 제정일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칼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는 교회안에서 실현시켰다.”⁵⁷⁾고 하는 특유의 역사성을 갖는다. 이는 가톨릭의 부패를 차단하고 개혁적인 하나님나라를 건설하려고 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따라서 필자는 맥그라드가 분석한대로 “도시국가였던 제네바가 그 의회와 교회컨시스토리를 통하여 입법(법률과 교리)과 권징(훈육: 교화)을 통합적으로 실현하여 하나님나라 건설의 목적을 칼뱅시대에 이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⁵⁹⁾는 이해를 가졌다.

2.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제도와 구성

필자가 그린그래스의 이해를 검토한 결과 “제네바시 의회 구조는 3원제도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3심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찾아내었다.

이 제도에 대한 그린그래스의 이해를 보면 먼저 “시의회도가 3원제였다. 즉 25인 소의회, 60인 위원회, 200인 평의회가 바로 그것이었다.”⁶⁰⁾는 주장이다. 그린그래스가 이 제도의 기원을 해부해 봤더니 “이 제도는 1533년에 수립된 쯔빙글리의 스위스교회 치리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다.”⁶¹⁾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 “25인 위원회는 1심, 저 60인 위원회는 2심, 또한 200인 위원회는 3심

②200인 평의회와 연관이 있다. ③쯔빙글리의 신학과 연관이 있다. 쯔빙글리가 칼뱅(1509-1564)에게 끼친 그 영향에 관한 문제는 실제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56) Ibid., 175.

57) Ibid., 175-176.

58) Ibid., 176.

59) McGrath, 111-112.

60) Greengrass, 10. 칼뱅시대의 스위스는 공화정치였으며, 제네바시 의회는 3원제로 12인 소위원회, 60인 위원회, 200인 평의회가 있었다.

61) Ibid., 11.

제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⁶²⁾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다.

그린그래스가 이 제도의 3심제 주장을 확장시켜나가는 이유로는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구성원이 12명인 것과, 또한 이 컨시스토리가 제네바교회 법원점 최종 상급 처리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⁶³⁾는 논거 때문에 설득력을 갖는다.

여기에 파커는 그린그래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 제네바시의회 25인 위원회는 제네바교회의 노회적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저 60인 위원회는 상임 위원회점 대회적 성격을 갖는다.”⁶⁴⁾고 하겠다.

또한 “시민총회 200인 위원회가 제네바의회(교회)의 시민적 대의 기관으로 총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⁵⁾는 것이 파커와 그린그래스의 공통된 견해이다.

파커는 “이 조직의 구성원들을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제네바시의회 25인 소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해당 지역(시찰회: 노회)의 목사, 교사, 장로들이었다.”⁶⁶⁾고 진술한다.

파커는 “그들이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도, 처리하는 기관으로 활동하였다.”⁶⁷⁾고 피력한다.

파커가 추적한 바로는 제네바시의회 60인 위원회는 노회로 불려지는 처리회로 그 지역 안에서 발생한 특별한 안건을 조사하고, 처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시찰회원을 파송하기도 하였다.⁶⁸⁾ 그 지역의 대회원중 한 두 사람은 총회로부터 파송된 시찰회원과 연결시켜주는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총회로서 제네바시의회 200인 원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기관은 시민들이 가지는 대의정치적 최종적 의결기관인 총회와 같은 것이었다.⁶⁹⁾

62) Ibid., 10-11.

63) Ibid., 12.

64) Parker, 99.

65) Ibid., 99-100.

66) Ibid., 101.

67) Ibid., 99.

68) Ibid., 100.

69) Ibid., 98.

필자가 킹턴의 편집저술을 탐구하여 볼때 이 총회는 제네바시 전체 시민(교회)들의 합법적인 처리기관이었다. 따라서 총회(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는 교회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회, 노회, 당회라고 하는 처리회(교회 컨시스토리)를 통해 상고되는 권징사건들을 처리(권징및 처리)할 뿐 만 아니라⁷⁰⁾ 교회의 제반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3.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사건심의

킹턴이 편집한 『갈뱅시대의 제네바 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1542-1544)』에 담고있는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심의 의결하고 처리한 사건들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⁷¹⁾ ①‘상습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⁷²⁾ ②‘아이들을 교리교육 시간에 보내지 않는 행위.’⁷³⁾ ③‘성(性)문제.’⁷⁴⁾ ④‘신앙문제.’⁷⁵⁾ ⑤‘탄원 및 카드놀이와 음주행위.’⁷⁶⁾ ⑥‘칭의, 기도와 물질문제.’⁷⁷⁾ ⑦‘가장의 책임 및 결혼, 이혼, 간음, 간통, 혼외출산, 가정 폭행문제.’⁷⁸⁾ ⑧‘성찬, 주일 성수, 기도문 및 주기도문 교육, 성상숭배 문제.’⁷⁹⁾ ⑨“대인관계 갈등, 이단과 미신 및 우상숭배자, 고리대금, 도박, 추문, 원수맺음, 증오 문제 등 150가지 이상을 담고 있다.”⁸⁰⁾ 여기서 필자가 이 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대략 세 가지 주제정도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는 신학적인 문제와, 둘째는 교회적인 문제, 그리고 셋째는 윤리적인 부분이다. 필자는 이 세 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것이다.

킹턴이 편집한 갈뱅의 권징내용에 따르면 “그 권징(훈육)의 절차는 제네

70) Ibid., 101.

71) *RCG*, 3.

72) *RCG*, 11-101.

73) *RCG*, 4-211.

74) *RCG*, 11-331.

75) *RCG*, 3-401.

76) *RCG*, 220-404.

77) *RCG*, 6-277.

78) *RCG*, 131-407.

79) *RCG*, 303-415.

80) *RCG*, 401-417.

바교회 컨시스토리가 당사자를 부르고, 증인을 부르며, 재차 소환해서 해당 사건들을 심의를 하였다. 사건에 따라 때로는 여러 달을 거쳐서 심의를 하였다. 제네바 컨시스토리 안에는 서기가 기록자로서 남아 있었다. 이 기관의 서기는 그 당시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에 소속된 사무관이었다.”⁸¹⁾고 소개한다.

킹턴의 의하면 바로 ‘이 서기에 의해서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게 된 것.’⁸²⁾임을 밝혀주고 있다. 킹턴에 의하면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범법자를 소환하러 갈 때는 시의회에서 파송한 법적 권한을 가진자가 함께 동행 하였다.”⁸³⁾고 한다.

필자가 이정숙의 연구를 숙지한 정보에 따르면 “범법자들 가운데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에 불려온 사람들은 많았으나 실제로 출교된 사람은 적었다.”⁸⁴⁾고 진술하는 것을 볼수 있다.

『갈뱅시대의 제네바 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1542-1544)』⁸⁵⁾에 나타난 권징과 해벌의 실재를 보면, “실상 그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왜냐하면 권징으로 소환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소환에 불응하였기 때문이다.”⁸⁶⁾ 그래서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는 “1557년 부터 소환 후 6개월 이전까지 오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정을 시의회에서 규정하도록 요청하였다.”⁸⁷⁾ 그리하여 갈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업무는, “①성례전의 의미와 성례전에 임하는 자세를 확인한다. ①죄와 별, 그리고 은혜의 공존성을 강조한다. ③성화와 구원의 과정을 철저하게 교육(훈육:교화)한다.”는 주제들로 그 업무가 압축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로 볼 때 킹턴의 이러한 역사 서술은 갈뱅

81) *RCG*, 315. The officer Vovrey가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서기였다.

82) *RCG*, 5-6.

83) *RCG*, 5.

84) Jung-Sook Lee, 30.

85) *RCG*, 6.

86) *RCG*, 5-7.

87) *RCG*, 8.

시대 제네바 교회 치리회 연구에 대한 공헌도가 크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에대한 분석적 비판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C.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용어와 역사

1. 서양 기독교역사에 나타난 컨시스토리 용어이해

킹턴은 “서양 기독교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컨시스토리’는 보통 다음과 같이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⁸⁸⁾고 말한다.

킹턴은 ‘컨시스토리’가 “①종교법원 회의. ②로마 가톨릭 추기경 회의. ③ 영국 국교회 감독법원. ④개혁교회(장로)법원”⁸⁹⁾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킹턴에 따르면 “갈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는 시의회에서 선출된 12명의 위원들(목사, 장로)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서는 시민들의 종교문제 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사의 문제들까지도 재판하고 처리하였다. 이것이 후대에 이르러 장로교회의 정치제도(당회: kirksession), 노회, 대회, 총회(A General Assembly)의 기원이 되었다.”⁹⁰⁾고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많은 변화를 거쳐 온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의 정치제도(예: 합동총회의 제비뽑기)는 그 구성원에서부터 안건내용에 이르기까지 갈뱅당시 컨시스토리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교회법원 회의

보에메르(J. F. Boehmer)는 그의 저서(*Acta Imperii selecta*)를 통해 “로마 교황과 가톨릭이 세운 교회법원의 설립과 종교재판의 목적은 이단자와 그 세력들을 수색하고, 회개시키며, 그들의 죄악에 따라 처벌하고, 척결하며,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⁹¹⁾고 서술했다.

88) *RCG*, 3.

89) *RCG*, 3쪽에서 450쪽 까지 다뤄진 권징 사건들이다.

90) *RCG*, 11-14. 12명의 위원중 2명은 20인 위원회에서 선출했고, 4명은 60인 위원회에서 선출했으며, 6명은 200인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했다.

91) J. F. Boehmer, *Acta Imperii selecta*(Österreich: Innsbruck, 1870), xiii, 378. 12세기 이후 카타리파와 마니교파는 이단적인 교리와 비성경적인 신앙을 주입시켜 사회를

보에메르가 말하는 그 실례로 “교황 알렉산더 3세가 1179년 라테란 공의회에 여러 군주들을 초청하였다.”⁹²⁾고 한다. 보에메르는 그 초청목적과 이유로 교황 알렉산더 3세가 “가톨릭 기독교인들을 카타리파와 브라반콘파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는 것이었다.”⁹³⁾고 주장했다. 여기서 보에메르는 교황 알렉산더 3세가 “군주들에게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수감하며,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군주들에게 부여하였다.”⁹⁴⁾는 사실도 함께 진술하고 있다.

계속해서 보에메르는 가톨릭 교회법원 회의에 대한 교황들의 조치와 그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후 이노켄티우스 3세는 1198년 시토 수도사들에게 절대적인 권력과 사도적 권한을 부여한 교황특사를 블루즈 지방으로 파송하여, 지방 군주들로 하여금 그곳의 이단자들을 제압케 하였다.”⁹⁵⁾고 말한다. 그리고 “1년 후인 1199년 3월 25일 이노켄티우스 3세가 자신의 교황서신에 담은 규정이 비테르보 행정장관에게 보내졌으며, 이것이 1220년 11월 22일 교회헌법으로 전국에 반포되었다.”⁹⁶⁾고 설파한다.

이어서 보에메르는 1220년 11월 이후 가톨릭 교회헌법이 전국 가톨릭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이 교회헌법을 교황 프리드리히 2세가 사용하였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도 수용하였다. 그는 1224년 롬바르디아 공국(公國)을 위한 교회헌법에 마니교도들에게 사형(화형)을 선고하는 규정을 첨가시킨 헌법을 자신의 교황교서에 수록하였다.”⁹⁷⁾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1233년 4월 13일 프랑스의 주교들에게 “이 나라에서 이단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도미니쿠스 수도회에 통지하였다.”⁹⁸⁾고 보고되었다.

파멸로 몰아갔다. 이때 여러곳에서 군주들과 군중들은 이단자들을 체포, 출교, 즉결 재판, 형을 선고, 사형집행등을 과격하게 시행하였다. 12세기 카타리파는 왈도파를 이단으로 재판하였다. 13세기 종교재판소는 프란체스코파를 정죄하는 재판을 하였다.

92) Ibid., 378.

93) Ibid., 379.

94) Ibid., 378-379.

95) Ibid., 379.

96) Ibid., 379-380.

97) Ibid., 380.

98) Ibid., 381.

또한 보에메르의 연구에 의하면 “그후 1542년 7월 21일 파울로스 3세가 라셋(Licet) 헌장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였다.”⁹⁹⁾고 그 역사를 소상하게 진술해 주고 있다.

김의환은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원인 종교 재판소는 1542년 교황 파울로스 3세가 프로테스탄트와 싸우기 위하여 설립하였다.”¹⁰⁰⁾고 설파한다. 김의환의 설파한 기록에 따르면 “교황 파울로스 3세는 종교재판을 위해 6명의 추기경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관을 분리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¹⁰¹⁾고 결론을 내린다.

김의환의 이러한 결론은 “이 처리기관의 결정과 지령은 하급법원과 가톨릭 전체 세계에 그대로 전달되었으며, 종교재판관으로 임명된 추기경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었고, 그 위임 받은 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접수 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¹⁰²⁾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도메르그의 논술 내용을 보면 “종교 재판관은 임무가 있다. 첫 번째 임무는 이단자들이 재판정에 나와 자신이 스스로 이단자임을 자백한자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그 기간은 15일에서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며, 이 기간을 소위 은혜의 시간(Time of Grace)이라.”¹⁰³⁾고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소환된 자들 가운데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면제된다. 그리고 과거에 범한 죄가 중신형이나 사형에 해당되는 경우일지라도 고해성사로 끝난다.”¹⁰⁴⁾고 설명한다.

보에메르의 논거에 따르면 “종교 재판관의 두 번째 임무는 신앙의 칙령(Edict of Faith)이다. 이것은 유명한 이단자나 이단의 혐의가 있는 자를 종교 재판소에 알려주는 고변자를 상대하여 그 고변된 이단자를 색출해 내는 작업이다.”¹⁰⁵⁾라고 진술한다. 여기에 고변된 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단범죄

99) Ibid., 379.

100) 김의환, 기독교회사(서울: 성광문화사, 1996), 298.

101) Ibid., 298-299.

102) Ibid., 299.

103) Doumergue, 24. 은혜의 칙령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104) Ibid., 25.

105) Boehmer, xiii, 380.

를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교회의 탄핵으로 그 뿌리가 뽑히고 말았다.

3. 로마 가톨릭 추기경 회의

케네스 스콜 라토레테(Kenneth Scott. Latourette)의 논찬을 추적하면 “추기경회의(consistory)인 콘클라베(conclave)는 ‘열쇠로 잠그는 방’¹⁰⁶⁾이라는 뜻인 라틴어로 꿈(cum:함께)과 끌라비스(clavis:열쇠)의 합성어로 된 용어, 이 말은 교황의 선거인인 추기경들이 외부의 간섭없이 비밀 투표장인 시스틴 성당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그 속에서 선거가 행하여지므로 쓰여지게 되었다.”¹⁰⁷⁾고 설명한다.

그러나 라토레테는 “추기경직(樞機卿職)이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는 11세기경부터 였으며, 이때부터 추기경회의는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교황의 최고자문기관 역할을 했다.”는 쪽으로 그 방향을 잡아갔다.

그는 “그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중요한 사무가 추기경회에 위임되었다.”¹⁰⁸⁾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중세 교회사학자인 라토레테는 그 당시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다. 로마 교황청은 식스투스 5세(1585-1590)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 예하의 성성(聖省)들이 조직되면서 추기경 회의의 실제 기능은 축소되었다. 현대에 들어와 추기경회의는 대체로 의례적인 기능만을 맡게 되었다.¹⁰⁹⁾고 설명했다.

이어서 라토레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두 제자를 사도로 파견하면서 그 중 하나인 베드로(반석: J.X 지칭)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마16:15-19).”¹¹⁰⁾고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라토레테는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바로 교황인 것이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사도단을 이루며 그 으뜸이듯이 교황은 사도들

106)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3; 1975), 9.

107) Ibid., 9-10.

108) Ibid., 10.

109) Ibid., 11.

110) Ibid., 11-12.

의 후계자들인 주교들과 함께 주교단을 이루며 주교단의 단장이 된다. 교황은 교회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가톨릭 교회와 주교단의 으뜸이며, 로마의 주교이자 로마 관구의 관구장 대주교, 이탈리아의 수석 대주교이다. 또한 국제법상으로는 바티칸시국의 국가원수이다.”¹¹¹⁾는 사실을 어필해 주고 있다.

라토레테는 계속해서 주장한다.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이자 10억 6000여만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스승이다. 초대 교황은 열두 사도의 으뜸인 성 베드로 사도이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64대 교황이다. 교황선출은 추기경들에 의해 종신직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1996년 2월에 발표된 새 교황 선거법에 따르면, 교황선출은 시스틴 성당이 아닌 ‘성 마르타의 집’에서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²⁾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교황은 만 80세 이전의 추기경단의 비밀 투표를 통해 3분의 2를 넘는 찬성표를 얻어 선출된다.

필자의 조심스러운 해석으로 볼 때 킹던이 밝힌 깔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용어 이해와 그 역사에 대한 보이메르의 진술과 김의환의 논증, 그리고 라토레테의 서술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금맥의 정보를 채굴해 주는 인상을 준다.

4. 영국 국교회 감독법원

라토레테는 그의 저서 기독교의 역사(*A History of Christianity*)를 통해 “영국 국교회의 감독법원은 초기와 중세기 로마 가톨릭과 회랍 정교회의 치리제도였고, 이 제도가 바티칸회의를 통과 영국국교회 감독법원으로 까지 이어졌으며, 마침내 그 수직적인 기능이 장로회 정치제도의 수평적인 조직으로 전환된 제도였다.”¹¹³⁾고 천명했다.

그러나 여기에 박종근은 라토레테와는 다른 견해를 제기했다. 그는 “최초로 가톨릭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그나티우스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그나티

111) Ibid., 12.

112) Ibid., 13-14.

113) Ibid., 14.

우스가 역점을 둔것은 교회의 수직적인 기능보다는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강조하였다.”¹¹⁴⁾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박종근은 여기서 이그나티우스의 논지를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다. “감독은 하나님의 대행자요,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동일한 것으로 일치시키고 있으며, 성찬과 세례 및 애찬은 반드시 감독에 의해서 시행되고, 장로를 통해서는 사도들의 회의가, 집사를 통해서는 봉사가 시행되어야 한다.”¹¹⁵⁾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종근에 따르면 “키프리안은 감독이 교회에 있고 교회가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감독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자라고 말했다. 감독은 사도적 계승자로 그 권위를 가지고 감독을 안수하고, 감독회의를 이루며, 감독의 지배 없이 행한 교회의식은 모두 무효라고 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감독직은 다분히 계급적이어서 훗날 교황제의 시초가 되었다.”¹¹⁶⁾고 선언했다.

이러한 박종근의 논리를 추론해 볼 때 “1534년 헨리 8세가 영국국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시켰고, 프로테스탄티즘 운동은 에드워드 6세(1547-1553)때 급속히 신장되었다.”¹¹⁷⁾는 그래서 장로회 정치의 출발점으로 보는 그의 학설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연구한 바로는 그 후 메리 여왕의 재위기간에 영국국교회가 로마 가톨릭으로 복귀하자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순교하거나 추방당했다. 그때 이 영국 국교회 감독법원은 다만 영국의 전국교회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감독하고, 특별히 반가톨릭적인 개혁교인들을 박해(처형:단죄)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을 뿐 성경적으로 공정한 처리를 시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4. 장로교회 정치제도

114) Ibid., 13

115) 박종근, 한국 장로교회 교회정치 연구(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1987), 7-8.

116) Ibid., 10.

117) Ibid., 9.

정성구는 한국 칼뱅주의 장로회 정치제도 역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술했다. 먼저 프랑스 장로교회 정치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했다. “1598년 헨리4세가 발표한 낭트칙령에 의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프랑스 개혁주의 장로교회 정치는 위그노와 왈도파를 중심으로 칼뱅이 파송한 150여명의 개혁주의자들을 통해 세워졌다.”¹¹⁸⁾고 선언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 라토레테의 논리는 “프랑스 장로교회가 먼저 제네바에서 보다 더 발전된 정치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첫째는 당회(Consistory), 둘째는 노회(Colloguy), 셋째는 지방대회(Provincial Synod), 넷째는 총회(National Synod)였다.”¹¹⁹⁾고 변증했다.

또한 라토레테의 이러한 변증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50만명의 개혁주의 장로교회 성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등지로 떠났다.”¹²⁰⁾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들을 통해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칼뱅적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교회사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18)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대계**(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5), 416-417. 도르트 총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회의가 도르트 신경(The Canons of Dort)을 결정한 것이다. 도르트 신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다는 성경적 교리를 힘있게 붙들고 변증한 것이다. 도르트 신경은 칼뱅의 5대 교리를 담고있다. ①인간의 전적타락(Total Depravity).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선한 자유의지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 전체 인류와 각개인은 완전히 타락하여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②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 ③제한적 속죄(Limited Atonement)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다(그러나 그들은 만인구원론은 믿지 않았다). ④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원죄의 영향력을 깨뜨려 버릴 만한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 또 성령과 협력하여 중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로 주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중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충분하고도 능력있는 은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⑤성도의 궁극적 구원과 보호(Perseverance and Preservation of Saints)이다. 성경에는 ‘성도의 견인’에 관한 가르침, 곧 한번 중생한 신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가르침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119) Latourette, 34.

120) Ibid., 35.

칼뱅연구가 정성구는 그의 저서 ‘칼뱅주의 사상 대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는 먼저 “칼뱅의 개혁교회(장로회) 정치 이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정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¹²¹⁾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윌리엄 공작을 통해 필립 2세의 개신교 박해가 끝나고 40년간 개신교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개신교도들은 소회, 대회, 총회를 조직, 개혁신앙과 교리연구를 통해 알미니안을 배척하고, 벨기에 신앙고백과 도르트 총회에서 수용된 칼빈의 5대 교리(TULIP)을 채택하였다.”¹²²⁾고 서술했다.

그러나 쾰링글리에 따르면 칼뱅적 장로교회 기원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정치에 있었다.”¹²³⁾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쾰링글리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정치는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가 그 이론적 기초를 놓았고, 1542년부터 1559년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칼뱅 사상을 계승한 존 낙스가 그것을 자기 조국교회에 체계화해서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¹²⁴⁾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배광식은 그러한 쾰링글리의 역사적 평가에 대하여 그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영국 장로교회 정치를 말해주고 있다. “1564년 메리여왕에게 대륙으로 축출 당했던 청교도들이 영국으로 돌아와 신앙의 순결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기 시작하였다.”¹²⁵⁾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배광식은 계속해서 “엘리자벳 여왕의 통치기간(1533-1603) 동안 전개된 청교도 운동은 찰스1세 때 와서 왕정정치를 의회정치로 개혁하는 장기의회 실현을 위해 싸웠다.”¹²⁶⁾고 해석했다.

그 결과 “1571년 제정된 영국 국교회 교리를 수정, 39개항에 청교도 신앙이 가미된, 개정안 수립을 위하여 1643년 7월 1일부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총회가 열려, 159명의 목사(126)와 평신도(33) 회원이 1163회의 토론을

121) 정성구, 417.

122) Ibid., 418.

123) Zwingli, 177.

124) Ibid., 178.

125) 배광식, 68.

126) Ibid., 69.

거쳐, 1648년 7월20일 총회가 승인하고, 같은 해 9월15일 영국의회가 승인하여 마침내 의회민주 정치를 출발시켰다.”¹²⁷⁾고 결론지었다.

필자가 이렇게 라도레테의 영국 감독법원, 박종구의 이그나티우스의 견해진술, 정성구의 프랑스 장로교회 연구, 배광식의 영국 국교회 교리 논술 등으로 밝혀진 이러한 장로교회 정치가 미국 장로교회 정치로 발전하였으며, 그들의 선교를 통하여, 마침내 한국 장로교회 정치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다.

127) Ibid., 68-69.

III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헌법과 교리및 특징

A.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헌법과 교리

1. 갈뱅의 교회헌법 제정

그린그래스는 1541년 갈뱅이 제정한 제네바 교회헌법¹²⁸⁾은 이 문헌¹²⁹⁾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교회헌법에 대하여 장 갈뱅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그는 제네바교회 목회를 통해 교회의 직제나 헌법이 필수적임을 점차적으로 느꼈다. 개혁교회 총회에 참석하였던 목사들은 초기 교회 직제들에 근거하여 지금의 베네룩스 지방이었던 하급관할지역(Low countries)에 있던 개혁교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위한 직제를 형성하였다. 이것들은 제네바의 교회법과 마틴 미크론(Martin Micron)과 존 아 라스코(John à Lasco)에 의해 런던에 있는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모임을 위해 작성된 직제들과 그리고 프랑스 개혁교회의 규율을 포함한다.”¹³⁰⁾고 논평했다.

그린그래스의 저술에 따르면 “1568년 11월 3일 작성된 교리(Article)는 그 모임 장소가 스위스 바젤(Baesel)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열렸었던 모임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은 1618년에 나타났고 최초의 회의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¹³¹⁾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128) Greengrass, 5. 갈뱅의 제네바 교회헌법(1541제정, 1561년 개정: the Ecclesiastical Ordinance of Geneva (1541, revised in 1561)을 제정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129) John Calvin,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 September and October 1541, Calvin's Theological Treatia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58-72. 갈뱅은 이 교회 헌법을 1541년에 제정하고 1561년에 개정하였다.

130) J. Calvin, *Calvin'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the fourth book, which treats of the Church and the Sacraments.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s de l'église de Genève. Item l'ordre des escoles de la dite cité.(Geneva, 1541), 302-305. 갈뱅의 기독교강요 각주표기에 혼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Inst(1541)*로 기술한다.

131) Greengrass, 5-6.

그의 연구에 의하면 “1571년 7월 4일 이후 바젤에서 짧게 열렸던 한 모임이 1571년 10월 4일 엠덴(Emden) 노회(synod)를 준비하는 가운데 모임을 가졌고, 그때 교회 직제의 기초를 마련했다.”¹³²⁾는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필자는 그린그래스의 이해를 지지한다. “그때 모임의 시간과 장소가 어떠했든지 간에, ‘바젤(Baesel) 모임’은 엄격히 말해서 노회(synod)가 아니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 이유는 그곳에 참석했던 자들은 여러 계층들을 대표하지 않았다.”¹³³⁾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그래스가 바라보는 주안점은 “그들이 지도적인 목사들과 하급 관할지역(Low Countries)에서 온 평신도들의 모임이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들 중 다수는 강제로 추방당한 적도 있었다.”¹³⁴⁾는 점이다.

그린그래스는 “개혁교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그 직제가 형성되는 단계에서, 교회법들은 돌판이나 철판들로 주조되지 않았다.”¹³⁵⁾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저자들이 사실상 교회법(교리: article)이 어느 정도 시행착오의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이것들을 필연적으로 수정하고, 개정할 수도 있을 때를 예견하고 쓴 것이 틀림없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¹³⁶⁾

필자의 분석과 이해로 볼 때 갈뱅은 생전에 자신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최소한 4번 이상 수정 증보하였다.”¹³⁷⁾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또한 갈뱅이 작성한 교리와 교회헌법도 여러 차례 수정한 증거를 목도하였다.

132) Ibid., 6.

133) Ibid., 7.

134) Ibid., 6-7.

135) Ibid., 8.

136) Ibid., 9.

137) John Calvin, *Calvin's Institutio Christ. Religionis*, the fourth book, Christian Freedom, Ecclesiastical Power, and Political Administration. 4. 20. 9, (Geneva: 1536), 212. 갈뱅의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으로 베틀스가 1975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다음은 그 책의 제목이다. *Embracing almost the whole sum of piety, & whatever is necessary to know of the doctrine of salvation: A work most worthy to be read by all persons zealous for piety, and recently published*, (Grand Rapids: H. H.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 and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5). 여기서부터 갈뱅 저작 기독교강요 각주의 증보를 피하기 위하여 그 표기를 *Inst(1536)*으로 한다.

필자가 해부한 바로 “갈뱅은 자신이 작성한 교리들을 수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갈뱅자신의 성경관과 그 시대의 교회적 상황(피교화적)의 틀 안에서 조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¹³⁸⁾는 것이다.

그린그래스의 논고를 보면 “갈뱅 자신이 작성한 교리의 핵심내용중 하나는 갈뱅의 교회헌법이 담고 있는 ‘교회의 제일 표지는 말씀’¹³⁹⁾이라고 했다.”¹⁴⁰⁾ 그린그래스는 “갈뱅이 최초로 수립하고, 특별히 강조했던 교회 제일 표지의 목적은 교회안에서 말씀을 담당할 사역자를 세우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교회가 검증해 내느냐하는 그 원칙의 적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⁴¹⁾고 충고한다.

그린그래스는 갈뱅이 강조하는 점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사역자에게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¹⁴²⁾ ②나는 사명자로 선택 받은 자이다. ③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셨다.”¹⁴³⁾는 확신이다. ④ “적절한 시험을 통과하였다.”는 자격이다. 그리고 “⑤명확한 교회직제 수행능력의 자질문제였다.”¹⁴⁴⁾

이러한 검증과정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역자나 혹은 “교회의 또 다른 사역이 허용되어서는 않된다.”¹⁴⁵⁾는 것이 갈뱅의 강조점이었다.

갈뱅이 강조한 내용은 또 있었다. 그린그래스의 이론을 유추해 보면 갈뱅이 역설한 그 주안점은 이런 것이다. “만약 사역할 후보자가 음모나, 난폭한 성격과 경솔한 기질들, 그리고 장로들과 목사들 사이에서의 권력을 향한 야망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어야 한다.”¹⁴⁶⁾는 점이다.

그러므로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를 위하여 가능 한한 모든 준비가 사전에

138) *Inst(1536)*, 213.

139) Greengrass, 5.

140) *Inst(1536)*, 213-214.

141) Greengrass, 5-6.

142) *Ibid.*, 6. 제2장 본문: 목사들과 박사들에 관하여 밝히고 있다.

143) *Ibid.*, 5.

144) *Ibid.*, 7.

145) *Ibid.*, 6-7.

146) *Ibid.*, 8.

철저하게 교회헌법으로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소명과 선택은 그 어떤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헨더슨(G. D. Henderson)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사역자의 소명과 선택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건한 관리(magistrate)와 장로들에 대한 성숙한 심사숙고와 신중한 선택에 충분한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¹⁴⁷⁾고 주창했다.

헨더슨은 “이점이 그 대상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권고를 주었으며,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명자들의 모든 검증절차는 깔뱅과 제네바 교회법의 단결된 조직안에서 교회헌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¹⁴⁸⁾고 평가했다.

헨더슨은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일치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일 때에는 교회의 보편적인 허락이 장로들의 권위와 결합을 요구 할 때도 없지 않았다.”¹⁴⁹⁾고 논증했다.

왜냐하면 헨더슨은 “교회질서를 보다 더 나은 규정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정과 개정이 불가피 하였기 때문이었다.”¹⁵⁰⁾고 깔뱅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헨더슨이 바라보는 깔뱅의 이러한 경향과 관례는 “개혁교회(장로교회) 노회(synod)가 수립되기 까지 모든 교회에서 지속되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 때 교회 안에서 계층들이 구분된 일이 있었는데, 그 후 많은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목사의 선택과 시험을 위해 함께 모여야 한다.”¹⁵¹⁾고 결의함으로써 해소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분석한 바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동의는 그렇게 필수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여기서 헨더슨은 깔뱅이 제안하고 있는 교회의 권위를 지적한다. “많은 교회들의 권위는 장로들의 억측을 저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만약

147) G. D. Henderson, *Presbyterianism*,(Aberdeen: The University Press, 1954), 53.

148) Ibid., 53-54.

149) Ibid., 54.

150) Ibid., 53.

151) Ibid., 54-55.

이러한 것들이 교회안에 교묘하게 끼어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것들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 색출해 내는 진례를 보여왔었다.”¹⁵²⁾는 점이다.

한편 그린그래스는 헨더슨의 논지를 더욱 확고하게 부각시켜 주었다. 그린그래스는 “교회헌법이 정할 또 하나의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회중에게 공지하는 항목이었다.”¹⁵³⁾고 번역했다.

만약 교회의 권위와 장로들의 억측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교정되어야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이었다.¹⁵⁴⁾ 이것이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전제(권정목적)였기 때문에 비로소 그 교회의 사역자와 여타의 직제를 세우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¹⁵⁵⁾

이 분야에 있어서 그린그래스의 연구가 지지를 받는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목사선출이 두 후보자중 한사람의 이름이 공회에 승인되어 검증받은 이후에, ①“성숙한 심사숙고가 이루어졌다”¹⁵⁶⁾는 사실이 회중들에게 알려져야만 했다는 점이다.

헨더슨의 저술은 ②“그 다음 순서로 그들 중 하나가 투표로 선택되어 목사로 세우고, 수련을 받도록 허용되어야 했다. 이렇게 할때 장로들은 회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지도력과 자유를 가질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었다.”¹⁵⁷⁾고 증언했다.

그러나 갈뱅의 다음 논거를 보면 이해가 새로워진다. ③“목사는 종교(개신교) 수장들에게 직접 점검을 받아야만 했다. 그 때 수장들은 목사들에게 성경을 제시한다. 그러면 목사들은 두, 세 가지 성경 구절들을 제시받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관하여 출석한 목사들 앞에서, 대변자들(prophets:선지자들), 그리고 박사들 또는 그들이 부재했다면, 장로들 앞에서 예언자적인

152) Ibid., 55.

153) Greengrass, 9.

154) Ibid., 10.

155) Ibid., 10-11.

156) Ibid., 11.

157) Henderson, 55-56.

방식으로 설명해야만 했다.”¹⁵⁸⁾는 점을 부각시켰다.

필자가 간파한 시각으로 해명해 볼 때 갈뱅의 논점은 여기서 더 확장된다. “갈뱅 자신이 쓴 교회헌법이 담고 있는 또 다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교회의 제이표지인 성례전이였다.”¹⁵⁹⁾

갈뱅은 여기서 먼저 ④ “성만찬의 참여자격을 철저히 하였다.”¹⁶⁰⁾ 왜냐하면 “성만찬을 받는 자는 이미 그의 신앙이 고백되지 않았거나, 교회 규율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는 아무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성만찬 참여자들은 사전에 그 자격여부를 철저히 조사받았다.”¹⁶¹⁾는 점을 지적한다.

B.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교리작성

1. 갈뱅의 교리문답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자신의 저서 기독교 국가의 교리(신조: 고백)(*The Creeds of Christendom*)를 통해 논고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갈뱅은 1542년 자신이 직접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하였다.”¹⁶²⁾ 여기서 “갈뱅은 은총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¹⁶³⁾

필자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남겨 주셨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나라 그 자체의 진리이기 때문이다.¹⁶⁴⁾

158) *Inst(1541)*, 301.

159) *Inst(1541)*, 302.

160) *Inst(1541)*, 303.

161) *Inst(1541)*, 302-303.

162)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New Yor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6), vol. I-III: 100. 갈뱅이 작성한 제네바 교리문답(1542)은 교육기간이 1년 55주, 교육분량은 373개항의 문답이다.

163) *Ibid.*, 101.

164) *Ibid.*, 100-101.

그러나 다른 학맥을 이루고 있었던 헨리 베텐슨(Henry Bettenson)도 샤프의 갈뱅에 대한 말씀강조의 사실을 언급했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진리를 양심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솔직한 순종으로써 그 말씀에 복종하며 진심으로 이것을 사랑하여 따르며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¹⁶⁵⁾는 갈뱅의 교의신학을 수용했다.

베텐슨의 논지는 “갈뱅은 자신이 작성한 교리문답으로 교회교육을 시행하였다.”¹⁶⁶⁾고 선언했다.

‘이 교리문답서는 1542년 갈뱅이 제네바 교회에서 자녀들과 새신자의 성경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교리 문답서를 다시 번역하고 또한 참고로 개혁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던 신앙고백서들과 교리문답서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추가로 편집한 것’¹⁶⁷⁾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갈뱅의 교리에 대한 베텐슨의 논쟁점은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우리가 이 교리문답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 친밀하고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존경과 권위를 갖게 될 때 바로 그곳에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¹⁶⁸⁾

2. 갈뱅의 교회 제삼 표지인 권징

필자의 분석과 검증에 의하면 “갈뱅은 1536년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통해 권징(Discipline)을 교회의 제삼 표지에 추가시켰다.”¹⁶⁹⁾는 사실을 적시하고 싶다.

이 사실을 입증해 볼 때 “갈뱅은 지금까지 루터와 같은 교회의 표지를

165) Henry Bettenson, *Documents of Christian Church*(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4-1957), 55-5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 시리라(요14:26).

166) Ibid., 55.

167) Ibid., 56-57.

168) Ibid., 57.

169) *Inst(1536)*, 212.

지향해 왔으나 제네바 교회 컨시스토리를 통해 권징을 독자적인 교회의 제삼 표지로 정착시켰다.”¹⁷⁰⁾는 역사적 증거는 많다.

먼저 칼 라니(Carl Laney)의 논증에 따르면 갈뱅은 “교회권징은 광의적으로 신자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죄 문제에 관하여 개인, 교회 지도자들, 또는 전 교인들에 의해 매겨지는 ‘비교하며 교정하는 수치(measure)’로서 정의될 수 있다.”¹⁷¹⁾고 설파했다. 그(Laney)는 갈뱅의 말을 인용해 “교회권징은 비록 교리의 매우 어려운 분야이며 실행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뱅은 이것이 성경의 신적권위에 기초하며 교회의 순결, 능력, 성장, 그리고 목적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¹⁷²⁾고 지적했다.

베텐슨은 자신이 연구한 갈뱅이 “교회권징을 위한 교리 검증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¹⁷³⁾는 점을 열거해 주었다.

①“교리공부로 증명한다. ②교회, 학교 또는 후보자가 이전에 거주하였던 곳에서부터 증명되는 것이 얻어져야 된다. ③이러한 것은 이단성 여부를 증명한다.”¹⁷⁴⁾.

그래서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이단 사설에 기울어져 있었는지의 여부, 이상하고 진기한 질문들과 무익한 사고들을 포함한 부적당한 단계로까지 자기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였는지의 여부가 증명되어야 한다.”¹⁷⁵⁾

여기서 베텐슨은 “그 당사자가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었는지를 목적으로 알아보기 보다는 그가 이단 사설에 관한 책들을 얼마나 더욱 열심히 읽었

170) *Inst(1536)*, 213.

171) Carl Laney, *A Guide to Church Discipline*(Minnesota: Bethany House Publishers, 1990), 14. 라니(Laney)는 갈뱅이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권징을 해야 할 의무와 권징의 필요성이 교회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의무가 된다고 말했다. 갈뱅은 교회로 하여금 성경이 주의 깊게 교회권징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갈뱅의 말처럼 교회의 권징은 최고의 보살핌이 동반되어야 한다. 성경은 ‘개인이나 또는 교회가 금하는 것들’ 혹은 ‘충애하거나 애태우는 것들’에 대하여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고 있다.

172) Laney, 15.

173) Bettenson, 57.

174) *Ibid.*, 58.

175) *Ibid.*, 59.

는지의 여부가 증명되어야 한다.”¹⁷⁶⁾고 진술했다.

그 다음은 교우관계를 증명했다. 베텐슨은 “그 당사자가 광신자들과 그들 자신의 상상 속에 골똥해진 남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¹⁷⁷⁾는 점을 적시했다.

갈뱅의 통찰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의 견해나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지침서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¹⁷⁸⁾고 선언했다. 갈뱅은 그가 목회했던 “그 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는 권징(훈육)으로서 교회의 훈련(교화)을 감당했다.”¹⁷⁹⁾고 천명한다.

갈뱅의 번뜩이는 안목은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을 때 교회훈련이 무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려면 세밀한 통찰과 검증 및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¹⁸⁰⁾는 점에 있었다. 그렇게 할 때 갈뱅은 이로 인하여 “교회권징을 통한 교회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교리검증을 통한 교회훈련이 소기의 목적을 가져올 수 있다.”¹⁸¹⁾고 믿은 것 같다.

그러므로 필자가 분석하고 연구결과로 볼 때 더욱이 우리는 권징 대상자(죄인)에 대한 혹평이나 비리(결함)를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훈육하는 목사나, 선생,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갈뱅의 지론으로 부각된다.

C.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특징

1.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

1533년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쓰윙글리로부터 출발한 개혁교회 정치가 갈뱅시대 제네바 교회에 이르러 ‘제네바 컨시스토리’라는 치리회를 탄생시켰다.¹⁸²⁾

176) Bettenson, 60.

177) Ibid., 61.

178) *Inst(1541)*, 59-60.

179) *Inst(1541)*, 58.

180) *Inst(1541)*, 59.

181) *Inst(1541)*, 58-59.

공화정치 실현에 성공한 도시 국가 제네바시는 칼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교회권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¹⁸³⁾ 그리고 칼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 냈다.

이것은 초대교회 역사 이후 암울했던 중세 왕국교회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가톨릭의 부패를 차단하는 가운데 개혁적인 하나님나라를 건설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그 당시 도시국가였던 제네바시와 그곳에 세워졌던 제네바교회, 그리고 제네바 시 의회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¹⁸⁴⁾는 그 입법과 교리제정, 나아가 권징실현에 집중하므로 제네바시와 교회의 총체적 개혁을 실현함으로써 그 역사적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인색할 수 없게 하였다.

필자가 번역(연구)한 로버트 킹던이 편집한 “『칼뱅 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¹⁸⁵⁾에 나타난 200여가지 이상의 권징과 치리, 그리고 해벌의 실제사건들을 보면, 실상 그 출교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¹⁸⁶⁾는 사실이 발견된다.

왜냐하면 킹던이 편집한 이 책¹⁸⁷⁾이 “권징으로 소환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소환에 불응하였기 때문이다.”¹⁸⁸⁾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킹던은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1557년 부터 소환 후 6개월 이전까지 그 당사자가 오지 않으면 그 해당자에게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¹⁸⁹⁾는 결정을 시의회에서 규정하도록 요청하

182) Zwingli, 175-176. 칼뱅의 신학과 그가 시행한 제네바 교회의 당회제도에 관해서는 쾰링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①스위스 공화정치 제도와 관련이 있다. ②200인 평의회와 연관이 있다. ③쾰링글리의 신학과 연관이 있다. 쾰링글리가 칼뱅(1509-1564)에게 끼친 그 영향에 관한 문제는 실제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183) McGrath, 111-112.

184) Greengrass, 10. 칼뱅시대의 스위스는 공화정치였으며, 제네바시 의회는 3원제로 12인 소위원회, 60인 위원회, 200인 평의회가 있었다.

185) Robert M. Kingdon,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Grand Rapids: Eerdmans, 2000), 1-450.

186) *RCG*, 3-480.

187) *RCG*, 1-480.

188) *RCG*, 5-6.

189) *RCG*, 7.

였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그 이후부터 이 결정 사항은 점차 “갈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업무가, ①성례전의 의미와 성례전에 임하는 자세를 확인한다. ②죄와 벌, 그리고 은혜의 공존성을 강조한다. ③성화와 구원의 과정을 철저히 교육한다.”¹⁹⁰⁾는 것 등으로 확장되어 갔다.

2.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재판

칼 라니(Carl Laney)의 논증에 따르면 “1544년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는 재판¹⁹¹⁾을 통해 제네바교회 권징을 시행하였고, 확정하였으며, 그 재판을 통해 추진하였다.”¹⁹²⁾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라니의 말대로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를 통해 실시된 제네바교회 권징재판은 어떠한 원리에 따라 시행되고 적용되었는지 그 원리의 본말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¹⁹³⁾는 점에 필자도 동의 한다.

필자가 수집한 자료들에 의하면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권징 재판기록은 로버트 킹던이 편집한 『갈뱅 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¹⁹⁴⁾과 이정숙의 논문 ‘*Excommunication and Restortation in Calvin’s Geneva, 1555-1556*’¹⁹⁵⁾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가지 문헌에는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권징재판사건 내용들만 편집, 저술되고, 수록되어 있을 뿐,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재판과정과 그 절차를 수록한 분명한 사료들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다.

필자가 살펴본 “오 할레스비(O. Hallesby)가 주장하고 있는 1544년 갈뱅시대 ‘교회 컨시스토리 재판’에 대한 간접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⁹⁶⁾

190) *RCG*, 8-9.

191) Laney, 15. 교회법정,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기관이다.

192) *Ibid.*, 16.

193) *Ibid.*, 15-16.

194) Kingdon, 1-450. 이 책 가운데 기록된 200여가지 이상 권징사건은 대부분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시행한 교회권징재판 사건으로 이해된다.

195) Jung-Sook Lee, “*Excommunication and Restortation in Calvin’s Geneva, 1555-1556*”(P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7), 1-34.

할레스비의 해석에 따르면 ‘교회 컨시스토리 재판은 양심’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양심은 곧 재판석’¹⁹⁷⁾이라는 비교분석적인 말을 남겼다. 그의 법리해석에 따르면 “이 재판석은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법을 검토하고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자리다.”¹⁹⁸⁾는 사실을 밝혀준다.

그의 법리논증은 ‘재판석’으로서의 ‘양심’은 인간의 행위, 말, 생각, 생활, 환경, 범죄원인과 그 결과 전체를 “하나님의 법(성경)에 비추어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¹⁹⁹⁾고 선언한다.

이 양심에 의한 재판과정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며 진행된다.

할레스비 그 절차를 ①‘조건적이며, 또한 무조건적일 수’ 있다. 이 재판은 범죄행위의 원인을 참작하거나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⁰⁰⁾ 그저 범죄자의 그 범죄행위가 좋은가 나쁜가 만을 분명히 선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와 피고인, 그리고 제3자에게까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레스비는 ②‘절대적이며, 또한 상대적’이라고 하였다. 이 원칙에 있어서 그 형량을 흥정하거나 타협, 그리고 “항의도 불가능하다.”²⁰¹⁾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이다.²⁰²⁾ 그러나 판결이 수용자의 입장에 따라 상고하거나, 수용하는 결정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에서 볼 때 상대성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할레스비가 주장하는 권징재판 절차는 또한 ③‘개인적이며, 집단적일 수도’ 있다. 양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작용하지만 양심의 판결과 결과는 개인마다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남에게 내 양심의 판결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법(성경)을 어긴 죄인을 향하여 권징으로 수습해야하는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입장에서는 다르다”²⁰³⁾고 말할 수 있다.

196) O. Hallesby, 양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24.

197) Ibid., 24-25.

198) Ibid., 26.

199) Ibid., 25.

200) Ibid., 25-26.

201) Ibid., 26.

202) Ibid., 27.

203) Ibid., 26-27.

할레스비는 마지막으로 ④‘상고(上告)’할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한다. 이렇게 주어진 특별한 상황에서 내려진 ‘양심에 의한 판결’은 반복 될 수 있는 가변적 판결일 수 있기 때문이다.²⁰⁴⁾

양심은 한 개인이 따르려 하거나 이미 따랐던 구체적 행동 노선의 법리성과 구체적 상황에서의 윤리적 의무를 판단해야 할 때 그 기능을 발휘한다.²⁰⁵⁾

칼 헨리(Carl F. H. Henry)의 교회재판 논리에 비춰볼 때 여기서 “인간의 윤리적 기능이 그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판단을 양심의 지시라고 부른다.”²⁰⁶⁾고 지목했다. “이러한 의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일 때에는 보다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윤리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으로서 그 선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을 피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²⁰⁷⁾ 고 정의하였다.

204) 최창무, **윤리신학 I**(서울: 가톨릭대학출판부, 1989), 60-61. 바울에 의하면 양심은 우리의 행위가 선했는지 악했는지를 판단하는 내적 증인이다. 이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이며, 이 기능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양심의 판단을 함에 있어 그것이 단지 이성의 통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 조명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울서신 외에 양심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에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비록 ‘양심’이라는 낱말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나타내는 교리는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바울의 양심에 대한 언급과 다를 것이 없다.

205) 최창무, 61.

206) Carl F. H. Henry, *Christian Personal Ethics*(New Yor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7), 509-510. 신약성경에만 30번 이상 언급된 ‘양심’은 여러 종류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선한 양심, 악한 양심, 강한 양심, 약한 양심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먼저 선한 양심을 살펴보면, 우리로 바른 길을 이탈치 않도록 하며(딤후1:3-5), 승리케 하며(딤후1:18-19), 정직하게 하며(히13:18), 우리를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며(벧전3:14-17), 분별력을 주며(마6:22-23), 혼란되어져야 한다(히5:13)고 지적한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양심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양심은 완전하거나 자족적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신약성경은 증생한 인간의 양심도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도덕적 판단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며, 선한 양심의 도덕성조차도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 성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악한 양심은 죄에 의해 더럽혀졌고(고전8:7), 선의 요구들과 비난과 가책에 무감각할 정도로 화인 맞았고(딤후4:2) 마침내는 바른 길을 벗어나 하나님과 그의 선을 지향하는 일을 멈추게 한다.

207) Ibid., 509.

필자가 할레스비와 헨리의 교회재판 이론을 분석해 볼 때 그 논쟁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양심의 기능을 한 마디로 정리한 것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법(성경) 앞에 서 있는 권징 대행자(제네바 컨시스토리 구성원)와 그 권징을 수용해야 하는 피교화자의 양심 가운데 쌍방의 윤리적 인식과 판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성경)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제네바 교회 컨시스토리와 개혁교회 사명

헤럴드 그림(Harold J. Grimm)은 “이러한 교회적 요구는 개혁주의 장로 교회가 본질적인 규범들을 확립하고 교회의 지속적인 안녕과 향존적 질서 유지를 바라는 소망들이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와 여기에 기초한 오늘날 개혁교회들에게 계속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⁰⁸⁾라고 논평했다.

그림의 이러한 논평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와 오늘날 개혁교회 목사들이 전술한 과제들을 공회 앞에 상정해서 공론화 하는 작업에 많은 주저와 혼란과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²⁰⁹⁾는 점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개혁교회 앞에서 증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타 교회들의 편견으로부터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시행한 권징의 장점들을 쉽게 적용하려들지 않는다.²¹⁰⁾

그들은 오직 시간, 장소, 사람들, 다른 상황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시도하고, 실행에 옮겨 보지만 교회의 의지대로 소기의 목적을 획득하는 경우는 희소하다. 그들은 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이 권징이 교회에 주는 유익과 해악이 무엇인지를 부단하게 진단하고 점검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²¹¹⁾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자 노력을 집중한다. 그리하

208) Harold J. Grimm, *The Reformation Era*(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598), 298.

209) *Ibid.*, 298-299.

210) *Ibid.*, 299.

211) *Ibid.*, 300.

여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자신의 교회 위에 그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일이 발생하도록 힘쓰고 애를 쓴다.²¹²⁾

그러나 필자의 분석으로 볼 때 이러한 기대가 소기에 만족스럽게 실현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권징이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경험한 권징의 한계성이며, 오늘날 개혁교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적 사명을 감당 할 수 없는 당면한 역사적 과제라는 것이다.

212) Ibid., 299-300.

IV. 칼뱅의 컨시스토리와 스코틀랜드 치리회 및 영국교회 치리회 비교분석

필자가 연구한바로는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권징과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 및 영국교회 치리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논점들이 나왔다.

A.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 비교분석

1.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교리 검증

필자의 비교분석으로 볼 때 비버리지와 본넷(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의 다음 주장은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1542년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는 공언된 헌법과 교리 검증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했었다.”²¹³⁾는 비판을 내놓았다.

그러한 징후는 이 공저자들 입장에서 칼뱅이 행한 목회전반의 기초와 그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칼뱅의 강해설교 내용과 그의 권징시행 경향, 그리고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행정체계가 철저하게 교리적이었다.²¹⁴⁾는 사실도 그 방증이 된다.

칼뱅과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데도 공언된 헌법과 교리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역자들 대다수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교리적 검증과정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맞은바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목사들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공언된 교리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받아야 했다. 이것은 교회와 의회 수장들에게 직접 점검을 받는 것이기도 하였다.²¹⁵⁾

213) 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ume 5(Letter, Part 2)(New Yor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545), 230. 이책의 각주 표기를 여기서부터 *SWC5*로 한다.

214) *SWC5*, 231.

그림이 볼 때 이러한 교리적 검증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 모범은 언제나 제네바 교회헌법과 교리가 엄격한 기준이 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성만찬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목사에게 한 주일 앞당겨 제출하였다.”²¹⁶⁾

그림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점을 강력하게 논술하고 있다. “그 후에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장로들이, 모든 교구들의 상황과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그들의 이전 행동들을 교리에 근거하여 부지런히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나 증거물들은 다양한 통로를 거쳐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에 보고되었다.”²¹⁷⁾고 전한다.

이러한 교리적 검증이 교회행정상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는 그 책임자를 찾아 임명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만약 성만찬에 참여를 허용할 수 없는 방해물이 발견되었다면 그 본인은 적절한 때에 성만찬 참석 여부가 차단되기도 하였다.²¹⁸⁾

만약 그렇게 시행되지 않았다면, 교인들과 사역자들의 성만찬 참여와 신앙의 진전을 점검하는 교리적 목회행정은 더 이상 추진될 수 없도록 제재와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2.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교리 검증과 교회본질

필자가 비버리지와 본넷의 연구내용을 분석해 볼 때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치리회로서 이렇게 과도한 교리검증에 치우친 것은 사뭇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수행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편향되었을 수도 있었다.”²¹⁹⁾는 기우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버리지와 본넷의 주장처럼 “교리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반사적으로 교회가 그 교리검증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따른 사역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향을

215) *SWC5*, 230-231.

216) Grimm, 295.

217) *Ibid.*, 295-296.

218) *Ibid.*, 296.

219) *SWC5*, 229.

차단하고 주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폭은 좁아졌을 것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²²⁰⁾는 이유 때문이다.

이점이 보장되지 않는 교리검증이라면 그 목적의 본질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선점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사역은 교리검증 실현이 그 본질적 사역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²²¹⁾

오늘날 세계 도처에 세워진 갈뱅적 개혁교회들은 한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갈뱅시대와 마찬가지로 매 주일마다 전통적인 교리교육과 그에 따른 교회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필수적인 교회의 본질인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 교리적 검증을 위한 교회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지 않거나 이 원리를 고수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혹시 말씀을 담당한 목사일지라도 교회로부터 배척받는 것이 현실이다.²²²⁾

이렇게 교리는 그 검증과 실현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다양한 권징(Discipline)을 받기도 한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생활과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지도 및 처벌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 갈뱅시대 제네바 교회의 교리검증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²²³⁾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해롤드 그림(Harold J. Grimm)은 그의 저서 ‘개혁의 영역(*The Reformation Era*)’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교회에 주신 그 본질적 사명의 핵심과 갈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지향해온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상호 충돌하고 있었다.”²²⁴⁾는 사실을 거론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분석과 통찰을 통해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220) *SWC5*, 230.

221)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New York: Harper & Row, 1975), 101.

222) *Ibid.*, 101-102.

223) *Ibid.*, 102.

224) Grimm, 298.

따라서 필자의 비판적 입장에서 볼 때 칼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목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실현이 칼뱅시대의 교회헌법과 교리검증을 통해 이미 실현 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개혁교회가 캐톨릭교회 앞에서는 여타의 교회들 앞에서 당당할 수 가 있는 것이다.²²⁵⁾

왜냐하면 이러한 교회의 권징실현이 비판자들의 반격과 박해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패가 되기 때문이며, 캐톨릭과 다양한 반대자들을 평정시키고, 성경적 패러다임에 합당한 대담으로써 개혁교회 권징의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²²⁶⁾

이렇게 할 때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실현했던 교회와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추구했던 교리검증의 상충적 현상들은 통전적 상호 교감을 통해 교회사적 질서를 잡아줄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장로회 목사들, 박사들과 장로 및 대변자들에 의해 보완된 장로제도등에 대한 많은 비판적 논쟁들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결과는 상당히 미흡했다.

그래서 이 연구자는 이 비판의 장을 통해 필자가 경험한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행한 교리 검증적 교회권징의 장단점을 찾아 좀 더 바람직한 권징교화의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교회권징의 임무와 다양한 일들 가운데 나타난 권징의 오류들을 하나씩 발굴하여 『칼뱅 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²²⁷⁾에 나타난 성도들의 여타 인권침해 가능성과 불이익의 개연성들을 분석하고 비판하여 밝혀져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러한 지평에서 오늘날 칼뱅주의 개혁 장로교회는 교회권징의 이유가 이에 반대하는 여타의 관련자들에게까지도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하여 교리와 그 교화적 검증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보편적 훈육원리 가운데 적절하게 재평가되고 적실하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정의 책임은 교회권징의 현장을 담당하

225) Ibid., 296.

226) *SWC5*, 230.

227) *RCG*, 11-417.

고 있는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달려 있으며, 그 검증과 행동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적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권징에 대한 이 시대의 개혁주의 장로교회적 사명이라고 본다.

B.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와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 비교분석

1. 존 낙스 시대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 구조

웨스트 민스터 의회 회의록(*Authority of Parliament at Westminster*)에 따르면 스위스의 개혁주의 교회가 1542년 갈뱅에 이르러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를 탄생시켰고, 이것이 스코틀랜드교회로 하여금 1561년 12월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가 조직되었고, 『치리서』 228)를 채택하여 교회개혁과 치리의 지침으로 삼았다. 이 치리서는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정부 형태를 채택했으며, 교회 직원을 목사, 장로, 집사로 나누었고, 장로와 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여, 매년 한 번씩 선출하도록 규정했다.²²⁹⁾ 그리고 치리회 구성원인 장로의 임기는 1년이었으며, 매년 투표로 선출되었다.²³⁰⁾

또한 렌윅(A. M. Renwick)에 따르면 이 치리회 제도는 “매년 교회투표로 선출된 장로, 즉 치리회 구성원인 상비적 인사(a perpetual moderator)는 그 교회 치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²³¹⁾고 한다.

228) The humble Advice of the Assembly of Divines, *Now by Authority of Parliament at Westminster, Concerning A Confession of Faith*: With the Quotations and Texts of Scripture annexed. Presented by them lately to both Houses of Parliament(London: Edinburgh, 1647), 192. 1561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파견된 스코틀랜드 교회 총대는 Robert Baillie이었다. 그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파송한 교회총대로 영국교회가 갈뱅주의적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를 채택하는데 공헌하였다. 이 책은 영국교회가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수록한 문헌이다. 이 책을 앞으로는 NPW라고 표기한다.

229) *NPW*, 193.

230) *NPW*, 192-193.

231) A. M. Renwick,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홍치모 역(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0), 221. 이 고백서는 존 낙스를 비롯한 6명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4일만에 만들어졌고, 1560년 8월 17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는 칼뱅의 개혁사상과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감화를 받은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와 존 나스, 멜빌,²³²⁾ 이 세사람을 통해 그들의 조국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 4개의 치리회를 두었다. 첫째는 당회, 둘째는 노회, 셋째는 대회, 넷째는 총회였다.²³³⁾ 따라서 이 문서는 교회의 치리회를 4개의 기관으로 규정하여 치리를 주관하게 하였다. 4개의 치리회 구성원으로 목사, 교사, 설교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시무장로들로 한정하였다.²³⁴⁾

스코틀랜드교회 각 치리회들(courts-Kirk Session, Presbyterie, Synod, Genral Assembly)의 의장기능은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치리기관이었던 제네바 컨시스토리 의장제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개혁주의 교회 치리회 역사에 오래된 전통이 되었다. 이 치리회 기능들이 처음 스코틀랜드 교회에 채택된 것은 제1 치리서와 제 2 권징조례(*The Second Books of Discipline*)를 통해서였다. 그 사실은 영국의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의 정치지침서’가 잘 정의해서 설명해주고 있다.²³⁵⁾

2.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 구성원

킹던이 편집한 교회권징 기록을 번역한 결과 그 내용에 따르면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치리회인 컨시스토리 구성원은 12명이었다. 목사(1-2명)와 시의회 의원(9-10명), 그리고 컨시스토리 회의록을 기록하는 서기(1명)로 구성되었다.”²³⁶⁾

이에 대하여 브라운(H. Brown)은 그의 저서 ‘스코틀랜드의 단기 역사(*A Short History of Scotland*)’를 통해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를 다음과 같이

232) A. F. Mitchell, *The Scottish Reformation*(Nashville: Baird Lecture, 1899), 116. 세인트 앤드류스의 미첼 (A. F. Mitchell) 교수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개혁적인 고백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233) Ibid., 117.

234) Ibid., 116-117.

235) Ibid., 117.

236) *RCG*, 190.

설명하고 있다. “존 낙스 제 1차리서에 나오는 「교회정치와 권징」 (*The Policie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즉 「스코틀랜드교회 치리체제」 (*Form of Church Government in Scotland*)에 따르면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 구성원은 다섯가지 교회 직분자들이었다.”²³⁷⁾고 설명한다.

브라운은 “그 첫째가 목사였다.”²³⁸⁾고 한다. “장로교 목사의 지위와 임무는 현재의 그것과 아주 흡사했다. 목사는 일정한 시기에 장로들과 집사들과 만나야 했다. 대도시에서 6마일 이내에 있는 목사는 매주 수련회에 모여서 성경연구와 성경해석에 대한 토의를 하고, 권징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도 함께 협의했다.”²³⁹⁾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목사의 역할은 교회치리 중심이라기보다는 설교에 그 비중을 많이 두었다. 당시에 목사가 아주 결핍된 것을 볼 때 높은 수준의 설교를 주장한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²⁴⁰⁾

브라운은 “두 번째 치리회 구성원을 감독관이라.”²⁴¹⁾고 말했다. 그는 “이 감독관이 그 당시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자였다.”²⁴²⁾고 주장한다. “그 사실은 1560년 12월 20일에 모인 제 1회 총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때 이 총회에 참석한 목사는 불과 6명이었고, 시무장로는 무려 36명이나 되었다. 교회 시무장로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한 것을 보면 그 당시 교회 치리회의 구성 비율을 짐작할 수 있다.”²⁴³⁾

물론 전국적으로 목사가 6명 이상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스코틀랜드의 목회를 감당하기에는 유감스러울 정도로 극소수였다. 이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독경사(Reader)들을 임명해서 주일날 성경과 공중기도서를 읽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성례를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는 못했다.²⁴⁴⁾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독경사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10-12명

237) H. Brown, *A Short History of Scotland*(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1), 40.

238) Ibid., 41.

239) Ibid., 42.

240) Ibid., 41.

241) Ibid., 42.

242) Ibid., 41.

243) Ibid., 45. 여기서 일개 지역은 과거 구교회의 교구와 같은 것이었다.

의 경건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어서 일정한 지역에 한 사람씩 감독관이 배치되었다. 그 감독관들은 정기적으로 자기 관할지역을 방문하고 매주 3회 이상 설교하며, 목사가 없는 곳에서는 성례를 거행하고 권징시행을 지도, 감독하며 회중들에게 건전한 기독교 교리와 그 실천적 생활을 독려하였다.²⁴⁵⁾

브라운은 또한 “치리회 세 번째 구성원은 장로였다.”²⁴⁶⁾고 한다. 교회 시무장로는 존 나스의 제 1 치리서 에서 치리회의 주요직 이었다. 시무장로는 교회의 모든 공적인 일에 목사를 도와야 했다. 교회치리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 방탕한 자들에게 권징하고 경고하는 일, 자기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의 예의와 대화를 개선하도록 돕는 일에 목사를 보좌했다.²⁴⁷⁾

목사의 주재 하에 지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지도하는 치리회인 당회원이 기도 한 장로는 집사와 같이 1년 임기로 회중의 자유투표로 피선되나 재선도 가능하였다. 제 1 치리서의 놀라운 특징은 장로에게 목사의 생활, 예의, 근면성 및 연구 자세를 주시할 임무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장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목사를 권유하고 시정하며 면직이 합당한 경우에는 교회법정에 소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네 번째 구성원은 집사였다. 집사의 임무는 교회재정을 관리하고 사용료를 받고, 구제금을 모아서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분배하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 구성원은 독경사였다. 1560년에 약 12명의 목사로 시작된 개혁교회가 급성장하여 1567년에는 1048개 교회에 257명의 정식목사와 455명의 독경사와 151명의 권면자가 일하는 교회로 급성장했다.²⁴⁸⁾ 또한 감독관의 수는 5명밖에 없었는데 이는 정식목사의 수가 급증하자 감독관이나 독경사는 자연히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44) Ibid., 46.

245) Ibid., 46-47.

246) Ibid., 45-46.

247) Ibid., 46.

248) Ibid., 47. 종교개혁 이후 목사가 모자랄 때, 독경사는 교회에서 주요한 요소였다. 능력이 인정되면 독경사는 권면자(Exhorter)의 지위로 승격되어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해설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당시 많은 독경사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정식목사의 자격을 얻은 자도 많았다.

필자가 연구한 이 논지의 귀결점으로 접근해 볼 때 상기된 렌윅(A. M. Renwick)의 견해가 킹턴의 입장과 상통할 뿐 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교회 치리회 연구의 대가인 브라운의 이론과도 맥락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3.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 권징

레퍼츠 레츠커(Leferts A. Loetscher)는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의 중심은 담임목사가 아니라, 감독자와 시무장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²⁴⁹⁾고 진술했다. 이러한 특징은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장점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여준다. 갈뱅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핵심인물이었다. 그러나 컨시스토리 구성원들의 견제가 많았던것도 사실이다.

레츠커의 이 논리를 수용해 볼 때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는 영국교회로부터 이주해 오는 난민들을 돌보았다.”²⁵⁰⁾고 한다.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오늘날 북한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소수의 한국인들 처럼 이주민들에게 해악을 주는자들을 치리하였다.

레츠커의 이러한 분석과 이해는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 16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으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다.”²⁵¹⁾는 점에 공감을 준다. 따라서 교제공동체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자는 권고와 지도의 권징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레츠커는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구별과 교회 교리에 대한 바른 판단과 실천을 강조하였다.”²⁵²⁾는 부분을 언급했다. “신앙의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신,구약)에서 출발해

249) Leferts A. Loetscher, **세계장로교회사**, 김남식 역(서울: 성광문화사, 1980), 43.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18조는 무엇으로 참된 교회가 거짓교회와 구별되며, 교회의 바른 판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

250) Ibid., 42-43.

251) Ibid., 43-44.

252) Ibid., 43.

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교회는 가건성과 불가건성을 포함한 기독교공동체로서 세상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²⁵³⁾

딕슨(W. C. Dickinson)의 논설에 의하면 “존 낙스는 모든 개혁과 인간 삶의 근본을 성경에 두고 있다.”²⁵⁴⁾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딕슨은 자신의 저서(*A New History of Scotland*)와 편지들을 통해서 성경이 그의 생애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는 성경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성도들을 치리하고, 권계하여 말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힘썼다.”²⁵⁵⁾

딕슨의 역사신학은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가 성례전을 강조하였다.”²⁵⁶⁾고 서술한다.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로 받아들이는 개혁주의 성경적 사상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제도와 그의 목회전통을 그대로 따랐다.

딕슨은 “스코틀랜드 제 1 치리서 제 2 항에는 성례는 합당한 성직자에 의해서 교인에게 동일한 통제하에서 확실하게 교육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자비의 마음에 들어갈 때 올바르게 시행된다.”²⁵⁷⁾고 천명한바 있다. 이는 인간들의 어떤 행동으로서의 성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성례를 강조한 것이다. 성도들 가운데 이 성례를 경건하게 수용하지 않을때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는 그 대상자들에게 재교육과 권징의 치리를 시행하였다.

딕슨의 영향을 받아 이 분야에서 같은 학맥을 이루고 있는 제임스 카메론(James K. Cameron)은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는 권징받은자들을 재교육하였으며, 교회가 그들의 훈련을 통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존 낙스는 칼뱅의 사상을 계승하여 모든 국민이 성경을 읽고 복음적 신앙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²⁵⁸⁾고 해석했다.

253) Loetscher, 44.

254) Dickinson, 267.

255) Ibid., 267-268.

256) Ibid., 268.

257) Ibid., 282.

또한 카메론은 “모든 재교육의 최종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 나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문답서를 준비하였다. 각 가정에서 미리 교육을 받게 하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따라 서로 토론하게 하였다.”²⁵⁹⁾고 기술했다.

그러나 케네스 라토레테(Kenneth S. Latourette)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스스로 교육하였고, 다른 목회자와 교사들에게도 강조하였다.”²⁶⁰⁾고 전한다. 라토레테는 “이것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목회자의 첫 의무이며, 적어도 2년간은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²⁶¹⁾고 강조하였다.

한편 존 나스는 “그의 종교개혁을 통한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 활동은 1559년부터 1572년까지 13년 동안 개혁의 절정으로 확립되었으며,²⁶²⁾ 마침내 로마 교황청의 미사와 가톨릭적인 폐습으로 인한 계층 구조적 교회제도의 악습과 오류를 척결했고, 또한 교회 치리회를 통한 재교육과 개혁, 그리고 빈민구제를 실천에 옮겼다.”²⁶³⁾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필자의 고찰과 해석으로 전망해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레츠커의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의 교리가 덕슨이 강조하고 있는 존 나스의 치리회론과 카메론의 논리에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되면서 라토레테의 논쟁적 시각이 전체적인 치리회 이론에 조화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와 영국교회 치리회 비교분석

1. 영국교회 치리회 와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

조지 글레스피(George Gillespie)의 교회 역사학 영역에 따르면 “영국교회

258) James K. Cameron, *The First Book of Discipline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London: The Saint Andrew Press, 1970), 87.

259) Ibid., 88.

260)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New York : Harper & Row, 1975), 101.

261) Ibid., 102.

262) John Knox, *The Forme of Prayers and 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Works VI*(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56), 287.

263) Ibid., 289.

치리회는 성경적 교회직임자들(scriptural church officer)과 교회회의(church courts) 및 고백적 기준들(confessional standards), 그리고 성경적 교회 구성원의 지위(scriptural church membership)등을 가지고 있다.”²⁶⁴⁾고 말한다.

이러한 영국교회 치리회 원리들은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장로 정치(prebyterian polity)의 독특한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정치조례 제30장에²⁶⁵⁾ 따르면 이 장로회치리(Presbyterian goverment)는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이러한 특성들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립된다.²⁶⁶⁾

장로회의 규례(presbyterian order)를 지지하는 “교회들은 그 이름에 있어서 장로회를 고집하는데, 이는 그들이 교회 직임자들, 교회회의, 고백적 기준들, 그리고 교회치리회 구성원의 지위에 관련해서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칼뱅적 성경 원리들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⁶⁷⁾

리드(R. C.Reed)는 사무엘 밀러가 이러한 장로교 정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통합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교회 치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이 명백하다.”²⁶⁸⁾ 즉 “교회정치의 시행(administration)뿐 아니라 형태(forms)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보다 사활이 달린 것만큼 중요하게(vitally) 교회의 평화와, 순결과, 교화에 연결되어 있다.”²⁶⁹⁾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바른 말씀(form of sound word)뿐 아니라 교회 질서의 형태(form of ecclssiastical order)를 굳게 지키는

264) George Gillespie, *Aaron's Rod Blossoming: or The Divine Ordinance of Church Government*(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46), 83-84.

265) Samuel Rutherford, *A Peaceable and Temperate Plea for Paules Presbyterie in Scotland*(London: Edinburgh Banner of Truth, 1642), 223. 웨스트민스터 신조 정치조례 제 30장은 권징을 담고 있다. 각주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이 책을 *PTPS*로 표기한다.

266) Gillespie, 84.

267) *Ibid.*, 85.

268) R. C. Reed, **칼빈주의 뿌리와 열매**. 홍병창 옮김(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85), 2. 사무엘 밀러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교수이다.

269) *Ibid.*, 2-3.

(hold fast)것은 결코 그분에게 드리는 충성됨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이 아닌 것이다(딤후1:13).²⁷⁰⁾ 이러한 정신에서 결국 엄밀한 개혁주의는 참된 것을 찾는 것과 또한 다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배격해야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의 문제가 있다. 당회의 의장(Moderator)은 목사이여야 하고 공석일 때 노회에서 임시당회의장(Interim Moderator)를 임명한다.²⁷¹⁾ 노회에서 뽑힌 노회의 의장은 1944년까지는 6개월 임기이었으나, 1966년부터 1년임기로 변경되었다.²⁷²⁾ 노회는 회원 3인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언제든지 회집할 수 있다(a pro re nata meeting). 총회의 의장은 그 교회의 의장이 아니요 교회의 권위자나 대교회 대변인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²⁷³⁾

필자가 볼 때 이런 장로교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겠다. “장로교 개혁주의는 순수한 웨스트 민스터 교회 정치원리를 개혁정신으로 가진다. 그것은 개혁주의의 궁극적 목표”²⁷⁴⁾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정신과 웨스트민스터 정치 신조는 거의 대부분 성경적인 진리실현을 목적으로 개혁을 추구한다.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은 순수 장로교적인 것은 아니고 독립과 교회주의자들의 조화와 합의 형태라.”²⁷⁵⁾는 것이다 “순수 장로교적인 입장에서의 교회관은 지교회 자체로서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노회와 총회 아래 있을 때 지교회는 완전한 교회라는 것이다.”²⁷⁶⁾ 순수 장로교적인 입장에서 지교회는 노회나 총회의 종속관계이고 그 관계는 ‘선택

270) Ibid., 3.

271) A. Herron, Art. Moderator, in: *Dictionary of Scottish Church History & Theology*, ed. by N. M. de S. Cameron(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596-597. "He is Moderator of the Genenal Assembly and not, as is often misrepresented, Moderator of the Church of Scotland ... He is not a minister plenipotentiary, a 'Church Leader', or an authorized spokesman of the Church."

272) Ibid., 596.

273) Ibid., 597.

274) Ibid., 597-598.

275) Ibid., 598.

276) Ibid., 598-599.

적 관계(may be under)’ 보다는 ‘반드시 따라야하는(must be under)관계’이고 다만 개혁신교회 및 혹은 장로교회 안에서 ‘선택적(may be under)관계’가 허용적이라 할 수 있겠다.²⁷⁷⁾ 상회의 개념은 항상 단독적 소수(totus)개념이 아니라 공회적 다수(totum) 개념, 즉 장로회적이며, 합의에 따른 결정기관이고, 다수의 동의로 결정하는 집합체 기관(Prebyterium, Consensus prebyterorum, Totum aggregatum, sensu collectiva)이라 할 수 있다.²⁷⁸⁾

2. 영국교회 치리회 구성

1561년 웨스트민스터 총회(NPW)는 “영국교회 치리회로 당회, 시찰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다.”²⁷⁹⁾고 결의하였다.

이 총회결의에 따르면 “그 구성원은 이 회의에서 선출된 자들이었다. 이 영국교회 치리회 구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는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장로교에서 채용한 것으로, 그 특징은 교회 임직권과 교회 치리권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한 단체에게, 즉 하나로 모인 공의회(unitati)에 주어졌다.”²⁸⁰⁾는 점이다.

사무엘 러테포드(Samuel Rutherford)의 교회 치리회에 대한 논리에 서 바라보면 “이 공의(치리)회 의장의 항존권 곧 지금의 당회장, 노회장, 대회장, 총회장이 회의 이후 계속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 권한이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칼뱅적 교회정치 원리였다.”²⁸¹⁾고 해석된다.

러테포드는 “영국교회 치리회가 채택한 이 정치제도는 한 치리권자가 개교회의 당회를 넘어서 더 많은 지교회에서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 하는 그런 목회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당시 영국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277) William Canon, 웨슬레 신학, 전종욱 역(서울 : 기독교 대한 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1962), 28.

278) Herron, 599.

279) NPW, 192.

280) NPW, 192-193.

281) Samuel Rutherford, *The Divine Right of Church-Government and Excommunication* (London: The Saint Andrew Press, 1646). 113. 여기서 부터 편의상 이 책의 각주 표기를 *DRCGE*로 기술한다.

시행되지 못했다. 한 치리권자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하고 성찬을 집례하는 가운데 교회정치를 수행하였던 목회자가 상당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²⁸²⁾는 점을 진술해주고 있다. 그 당시 이러한 행태들은 마치 가톨릭이나 성공회가 고위 성직자나 목사들의 힘과 권위에 따라 여러 교회를 돌며 교권을 장악하고 치리권을 행사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리테포드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들은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의 고유한 직책을 부정하는 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에 맞지 않으며 정치는 목사들에게만 아니라 치리 장로들에게 주어진 결의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장로교 성직자는 교회 회중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원칙이다.”²⁸³⁾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레스피(George Gillespie)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장로교회가 목사, 장로, 교사, 집사를 세우고, 이들에게 장로교회 정치가 행하는 회중적인 장로직이나 지교회 안에 치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가톨릭 적이고 성공회적인 정치형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당시 장로교회에서는 특별한 직무가 없는 목회자들을 임직하였는데, 이것 또한 오늘날 음악목사, 행정 목사 등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성공회적 교회정치의 행태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²⁸⁴⁾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또한 질레스피는 “성공회 고위 성직자들은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양심들을 절대적으로 결합하는 법을 만들 수 있고 그들 자신에 의해서 무관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의식이나 제식에 대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금하며 벌금을 과하고 폐위시키며 출교시켰다.”²⁸⁵⁾ 그에 따르면 장로교 정치는 이런 것들을 증오한다. 이 학자는 “오늘날 장로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282) Samuel Rutherford, *The Due Right fo Presbyterie or, a Peaceable Plea, for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fo Scotland*(London: The Saint Andrew Press, 1644), 137. 여기서부터 이책의 표기를 *DRP* 로 기술한다.

283) *DRP*, 137-138.

284) George Gillespie, *Aaron's Rod Blossoming: or The Divine Ordinance of Church Government*(London: A. G. Hasler & Co, 1646), 83.

285) *Ibid.*, 84-85.

직무들의 방식 가운데 이와같은 성공회의 원리가 상당히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공회 고위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판단과 개인적인 자유 재량에 의해서 성경을 찾아 근거들을 보도록 하거나 그들의 결정들과 법규들을 사람들이 조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²⁸⁶⁾는 점도 밝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이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장로교회 치리회 정치의 사람의 양심 위에 균립하지 않고 어떤 것이든 성경의 검증을 허용하며 양심을 강요하지 않고 행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필자가 볼 때 성공회는 여러 가지 추문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 및 교황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 목회의 문을 열어 놓은 반면 바른 종교 개혁자, 곧 칼뱅적 개혁주의자들에게는 그 문을 닫았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에 반하는 비 장로교적 정치행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칼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교회정치를 통해 세속법적이고 시민법적인 권세를 가졌으나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며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다.

3. 영국교회 치리회 운영 원칙

러더포드의 교회학은 “1644년 3월 12일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는 제 30장 권징은 영국교회 치리회의 운영원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²⁸⁷⁾

이 교회학자에 따르면 “이 치리회 운영원칙은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장점을 살린 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당시 칼뱅주의의 신학적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삼인 즉 사무엘 러더포드와 스티븐 마샬, 죠지 길레스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²⁸⁸⁾는 것이다.

① 여러 회중들에 속한 장로들의 연합된 노회는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286) Ibid., 85.

287) *PTPS*, 223. 웨스트 민스터 신조 제 30장 권징이다.

288) *DRP*, 137. 이 세사람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 제31장 2항의 칼뱅주의 권징제도가 명시된 것이다.

갈뱅적 원리에 따라 그릇된 목회나 개별적인 장로직의 불충분성의 경우들에 있어서 자문하고 권고하고 호소를 받기 위해서 함께 만날 수 있다.²⁸⁹⁾ ②개별적인 장로직들 외에도 공동 원인들이나 호소들, 교회들 사이의 복잡한 이견들, 모든 교회들 안에서 준수되어야 할 질서 원칙들에 준하는 대화나 총회가 있을 수 있다.²⁹⁰⁾ ③그런 노회들이나 회집들은 그리스도의 체제요 한 형제가 다른 형제 위에 있거나 한 회중이 다른 회중에 관계하는 것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²⁹¹⁾ ④그런 노회들은 교리적으로 교리 내용을 선포하고 그들 경내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교리적인 논쟁들을 결정하는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⑤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어떤 직원들이나 다른 지체들을 시찰하거나 소환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²⁹²⁾ ⑥소환된 사람은 노회나 공의회 앞에 나타나야 하고 고소받거나 의혹되는 그런 교리나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⑦그들은 교회들 안에서 교리나 사실에 반대하여 선포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²⁹³⁾ ⑧노회와 그들의 시찰 아래 있는 교회는 그런 선포에 근거하여 분파나 이단으로 빠진 교회들과 교제를 그만 두는 것처럼 노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소환에 나타나기를 거부함으로써 인하여 교제를 그만 두어야 한다.²⁹⁴⁾ ⑨각 회중의 장로들은 노회에 앉을 수 있고 그들의 형제들과 공통적으로 회중 전부나 일부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나 소송 사건에 대한 자문할 수 있다. ⑩목사나 장로의 임직, 유형, 파면, 출교에 있어서 각 장로직은 노회의 충고를 추구함에 없이 그것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당사자의 관계 없이와 동일한 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여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교리에 대한 책벌에 있어서 그리고 곤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⑪많은 회중들에 공통적인 원인들에 있어서 개별 장로직은 관련된 자들이나 노회에 대한 지식과 일치 없이 결정할 수 없다. ⑫노회에 의해서 출교되었다고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자를 교

289) *DRP*, 136.

290) *DRP*, 136-137.

291) *DRP*, 137.

292) *DRP*, 138.

293) *DRP*, 139.

294) *DRP*, 138-139.

제할 자료 영접할 회중은 없다.²⁹⁵⁾

4. 세 가지 치리회 공통점과 차이점 및 그 이유

필자의 연구와 분석에 따르면 위의 세 가지 정치조례는 그 내용에 있어 대부분 칼뱅신학에 기초 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개혁교회 정치와 장로교회 치리회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살펴보고자 한다.²⁹⁶⁾

1) 공통점

필자가 연구한 관련 정보들을 해부해 놓고 볼 때 세가지 치리회 내용과 형식은 상호 그 유사점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치리와 존 나스시대 스코틀랜드 치리회 및 영국교회 치리회와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는 그 구조와 내용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함축하고 있다.

①신학적인 공통점이 있다.²⁹⁷⁾ 칼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권징시행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를 통한 교화중심, 교리중심을 추구하는 성경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의 권징원리²⁹⁸⁾와 영국교회 치리회의 출발점이 모두 칼뱅적 개혁신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 전개와 그 원리가 칼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②교리적인 공통점이 있다.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와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²⁹⁹⁾ 그리고 영국교회 치리회의 권징시행의 출발점과 그 치리 전개 과정 및 그 원리가 칼뱅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칼뱅의 권징조례와 존 나스의 치리서, 그리고 영국교회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교리와 그 원리가 대부분 칼뱅적이다.

295) *DRP*, 140.

296) *PTPS*, 223. 웨스트민스터신조 제23장과 제30장 권징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297) *Inst(1541)*, 58.

298) Knox, 286.

299) *Ibid.*, 288.

③치리회 명칭의 공통점이 있다. 교회권징을 담당하는 치리회의 기관 명칭들이 대동소이하다. 교회정치와 개혁교회로서 종교개혁의 시대적 상황과 그 특수성은 다르지만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고유한 치리회 명칭 자체는 다르지만 그 구조적 특징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로 지금까지 계승되어 왔다.³⁰⁰⁾

④치리시행의 원리에 공통점이 있다.³⁰¹⁾ 교회의 치리를 시작하고, 결정하고, 재판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적용하는 치리시행의 원리가 상당히 유사하다.

⑤치리회 구성원들의 명칭이 대동소이하다. 치리회 구성원들의 명칭으로는 목사, 장로가 있었다.

2) 차이점

필자가 입수하고 탐구하여 정리한 그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치리회의 기능이 다르다. 칼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사법적 성격과 전인 교육적 기능, 그리고 치유적 치리시행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코틀랜드교회 치리회는 교회가 치리회 상근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간접 대표제의 성격이 강했다.³⁰²⁾ 영국교회 치리회는 민주적 다수결 원리에 따른 의회적 성격이 강했다.³⁰³⁾

②직접 민주제적 치리회와 간접 민주제적 치리회의 제도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교회개혁의 배경과 사회적 정황 배경의 차이점이 있다. 장 칼뱅은 민주시민으로서 독립적 성향이 강한 개혁주의 복음화를 추구하는 제네바 시민들과 유동성이 강한 프랑스와 영국 및 유럽 여러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오는 피난민들을 수용하는 상황 가운데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를 운영하였고, 스코틀랜드 교회 치리회는 탁월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배경을 갖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는 왕정통치제도 하에

300) Knox, 289.

301) *Inst(1541)*, 59.

302) Knox, 286.

303) *NPW*, 191.

있는 영국교회를 배경으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과 개혁교회적 정황이 상이했다는 점일 것이다.

③치리 시행상(교리검증과 권징)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³⁰⁴⁾ 깔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교회권징은 교리검증과 전인적 교화(치유)를 위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치리서는 교회정치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의 핵심적 요소를 압축한 결과 그 적용과 실천에 있어서 교회개혁의 팔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는 그 고유한 치리회를 통해 교회정치의 숭고한 정신을 실현하고 노력하였지만 그러나 많은 굴절의 역사를 남겨주고 있다.

④치리회 구성원들의 신분이 다르다. 깔뱅시대 제네바 교회 컨시스토리 구성원들은 대개가 제네바 의회 의원의 신분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존낙스의 치리서에 나타난 치리회 구성원들의 신분을 보면 대개가 교회직분자(목사, 장로)이거나, 일반 성도(집사)들이었다.³⁰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에 나타난 교회 치리회 구성원들의 신분을 보면 간혹 귀족과 영주가 끼어 있고, 대다수는 일반성도들이었다.³⁰⁶⁾

⑤치리회 구성원의 임기가 서로 다르다. 깔뱅시대 제네바 교회 컨시스토리 구성원들의 임기는 1년이었으며,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교회 존낙스의 치리서에 나타난 치리회 구성원 가운데 장로는 매년 선출된자(계속 연임가능)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영국교회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가 말하는 치리회 구성원중 시무장로의 초기 임기는 6개월, 그후 시무장로가 치리회 의장이 될 수 있었으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으로 연임이 가능했다. 이후 시무장로의 임기는 항존직 성향으로 발전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⑥치리시행의 영역(분야)에 차이가 있다. 깔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교리검증을 통한 교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치리서

304) *Inst(1541)*, 57.

305) Knox, 288.

306) *NPW*, 192.

는 그 적용과 실천에 있어서 교회중심적 개혁으로 시민과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는 영국교회 국교정치를 통해 서방교회정치의 리더역할을 추구한 결과 교회역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⑦치리회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에 대한 장소적 개념과 교회권징과 치리사건들 속에 함축된 시대 상황(사회)적 교회 문제점들의 차이가 있다.

갈뱅시대 1542년에서 1544년의 시간이 다르다. 갈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사회상은 거대한 공룡과 같은 가톨릭과의 영적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존 낙스의 치리회는 스코틀랜드 개혁교회가 그 나라의 종교개혁과 사회개혁 및 공화정치에 기여하는 권징체도로 유럽의 여러나라 교회들에게 순수한 개혁교회적 모델로서 권징체도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가 정한 영국교회 치리회는 의회민주주의를 배태시키고 그 발전과 향상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교회치리제도를 승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3) 그 이유

필자가 연구하고 분석한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갈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권징,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치리회와, 영국교회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에 근거해 세워진 3개국의 교회치리회가 모두 한 뿌리를 가지면서도 각기 그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종교개혁의 상황과 교회개혁의 실천방법 및 교회치리의 시행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각기 다른 복합적 속성들의 차이 때문이다. 갈뱅의 교회정치 스타일이 다르고, 존 낙스의 교회정치 행태가 특이하며, 영국교회 정치개혁의 실천방법 등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³⁰⁷⁾

①스위스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교회권징은 그 구성 위원들이 제네바 시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을 겸한 자로, 정치와 교회(사회), 그 두 가지의 현

307) *NPW*, 192-193.

장을 함께 아우르는 광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②갈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문제해결 방법은 전인적 치유교화, 전인적 평생 성경(교리)교육이었으면서도, 역시 사법적 처단적인면이 강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³⁰⁸⁾ 권징의 방법은 주로 범죄사건을 교회헌법과 교리 앞에 펼쳐 놓고, 치리회 구성원들간의 폐쇄적인 토론과 교회헌법 적용및 교리해석, 그리고 합의에 따라 권징(치리:교화)을 시행하는 민주적 다수결 합의체였다. 따라서 그 과정이 상당히 경직되었으며 지나치게 법리적이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추론된다.

③갈뱅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정치가 스코틀랜드 존낙스를 거쳐 영국교회 치리회를 통해 그 본질적인 이상실현이 오히려 시대적인 역사가 거듭될 수록 그 파장과 넓이가 확장되어 갔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있다.³⁰⁹⁾

④영국교회 치리회는 이상적인 교회정치(권징) 제도를 수립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사실상 역사적으로 그 이상을 실현하는 데는 크게 미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는 인상을 준다.

308) *Inst(1541)*, 56.

309) *NPW*, 193.

V.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시행한 교회권징의 이유와 목적

필자는 갈뱅시대 제네바교회의 다양했던 권징목적과 그 이유들을 살펴 보았다.

A.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이유

플롬(J. Plomp)의 갈뱅권징에 대한 이해의 지평에서 그 분석을 살펴 보면 “갈뱅은 성도들을 향한 권징과 교육 및 훈련(교화)을 대단히 강조하였다.”³¹⁰⁾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에게는 천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된 목적이 주어져 있다. 교회는 이것을 권징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그래서 갈뱅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①교회권징의 이유는 인간의 삶에 제일된 목적은 실현되어야만 한다.³¹¹⁾

이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②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성도가 무슨 이유로 권징을 받아야 하는가?”³¹²⁾라고 묻는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하셨기 때문입니다.”³¹³⁾로 대답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③이유는 인간에

310) J. Plomp, *De Kerkelijke Tucht bij*(Kamnpn: Kok, 1969), 82. 갈뱅은 권징에 세가지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 권징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만약 교회가 악을 행한 자들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범죄자들의 소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권징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는 것이다. 셋째, 교회는 권징이라는 도구로 부터 교회 구성원들의 타락을 방지할 수 있다. 갈뱅은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질을 높이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11) *Inst(1536)*, 289.

312) *Inst(1536)*, 290.

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물보다 더 비참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가롯유다를 통해 드러났다. ④이유는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성찬을 모독하며 더럽히기 때문이다.³¹⁴⁾ ⑤이유는 교회안에 가롯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자기 죄가 아직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모두 알고 계셨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드러나게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이다.³¹⁵⁾ ⑥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담당기관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잘 관리되려면 교회의 질서와 규율을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잘못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들은 교회의 공적 권위를 소유하고 성찬에 전혀 참석할 수 없는 부도덕한 자들과 또한 성찬을 받는 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우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성찬에 참여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³¹⁶⁾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로 하여금 교회에 미치는 결과는 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징의 원인들은 다양할 수 있다.³¹⁷⁾ ①회원들 간에 생기는 어려움들(마 18:15-17). ②교회에서의 분열을 일으키는 분파주의적 사람들(롬 16:17,18; 딤후 3:9-11). ③부도덕한 행위들. 근친상간, 부도덕한 음란 행위, 탐욕, 우상숭배, 쌍스러운 언어 사용, 술취함, 사기 행위, 혹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광범위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헛되게 참견을 좋아하는 태도들과 같은 고린도전서 5장에 언급된 형태의 죄들이다(고전 5:1, 11; 살후

313) *Inst(1536)*, 291.

314) Plomp, 82-83. J. Hampton Keathley III세는 1966년에 달라스 신학교(Dallas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그는 28년 동안 목회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섬겼다. 2001년 8월에 그는 간암 진단을 받았으며 다음 해인 2002년 8월 29일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는 성경연구재단(Biblical Studies Foundation)에 많은 소논문들을 써서 기재하였으며, 가끔씩 무디 성경 연구원(Moody Bible Institute)과 Northwest Extension for External Studies in Spokane, Washington에서 신약 헬라어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315) *Inst(1541)*, 61-62.

316) Greengrass, 12-13.

317) *Ibid.*, 13. 난잡한 행위들, 성경에 기록된 명령들에서 분명히 벗어난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교회의 고백과 일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살후 3:6-15).

3:10-15). ④거짓된 가르침. 신앙의 근본들과 성경 해석의 사소한 차이들과 관계되는 잘못된 가르침들과 견해들이다(딤후 1:20; 딤후 2:17, 18; 또한 계 2:14-16; 빌 3:2, 3, 15-19; 롬 16:17, 18에도 암시되어 있다).

여기서 필자가 심사숙고하는 관점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플롬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논점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다. ㉡공동체의 신앙고백이다. ㉢공동체의 일치와 순결이다. ㉣개인들의 교화와 회복이다.

B.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목적

킹턴의 연구를 해석학적인 시각으로 통찰해 볼 때 “갈뱅이 말하는 교회 권징의 목적은 다섯가지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³¹⁸⁾고 전제한다.

필자는 여기서 그 내용을 하나씩 해부해 보려고 한다. ①하나님의 진리수호에 있다.³¹⁹⁾ ②교회질서유지이다.³²⁰⁾ ③(거짓교회를 참교회로) 범죄자를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³²¹⁾ ④도덕상 신령상의 문제이며 국법상의 것이 아니다.³²²⁾ ⑤교회가 시정책으로서 권징(출교)을 행사하는 것이다.³²³⁾

1.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수호

정성구의 갈뱅신학 서술에 따르면 “갈뱅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교회권징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진리(성경말씀)를 수호하고 실현하는데 있었다.”³²⁴⁾는 점이다. “그가 교회역사에 최초로 권징제도를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한 교회권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진리(성경)에 근거하였으며, 그 최종

318) *RCG*, 3-417.

319) *RCG*, 11-12.

320) *RCG*, 41-42.

321) *RCG*, 71-77.

322) *RCG*, 411-417.

323) Jung-Sook Lee, 7-31.

324) 정성구, *설교자를 위한 칼빈의 신학사전*(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396.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지혜와 빛과의 권능과 공의나 참된 진리는 조금이라도 발견될 수 없다.

적인 결정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권징재판으로 종결되었다.”³²⁵⁾는 것이다. 따라서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교회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시행하였다. 왜냐하면 제네바교회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데 그 고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³²⁶⁾ 따라서 “성도의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회권징시행은 그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말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권징의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네바교회의 권징시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진리)위에서 시행되어야만 했다.”³²⁷⁾는 것이 깔뱅의 지론이다. 왜냐하면 이 성경말씀은 곧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세상과의 약속으로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이다.

에크로트 웰더(Eichrodt Walther)는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을 통해 언약을 맺게 하는 그 동인은 무엇인가? 왜 언약을 맺으시는가?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어가며 그 언약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관찰하고 분석하였다.”³²⁸⁾

웰더는 그것이 “사무엘상 18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에서 보듯이 개인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집단적인 차원(수9:15)일 수도 있다.”³²⁹⁾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웰더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라며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시는 긍휼의 심정이 있다.”³³⁰⁾는 점을 말하고 있다.

웰더는 계속해서 “시편136편에서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적 행

325) Ibid., 397.

326) Ibid., 396-397.

327) Ibid., 398.

328) Eichrodt, Walth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I Old Testament library, trans. by J. A. Baker(Glasgow: SCM Press Ltd, 1961), 252-253.

329) Ibid., 253.

330) Ibid., 254.

등을 노래하고 그 민족 역사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을 노래하면서 그 노래 한 마디 한 마디 끝에는 반드시 ‘후렴’과 같은 말 한마디 ‘ki-leolam hasdo’,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이보다는 그 은혜로 우심은 영원하시나 이다)를 강조하고 있다.”³³¹⁾

웰더에 따르면 “권징으로서 훈련은 하나님의 새 계약에 참여시킨다. 새 계약의 성격은 ‘종말론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새 계약과 옛 계약의 또 하나의 관계성은 연속성이다. 새 계약에 대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의 새 차원을 예견한다.”³³²⁾고 지적했다.

앤더슨(B. W. Anderson)은 예레미야 3장 31절에서 34절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는 새 계약에서 발견된 연속성의 항목들을 이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첫째, 동일한 계약 창시자 하나님의 ‘나의 계약’이다. 둘째, 동일한 율법, ‘나의 율법’이다. 셋째, 과거의 삼부형식에서 계약된 동일한 하나님의 친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넷째, 동일한 자손과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섯째, 동일한 용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할 것이다(렘 31:33).”³³³⁾는 내용 등이다.

2.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 목적은 교회질서 유지

장 칼뱅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을 통해 “오늘날 개혁(전체)교회들에게 교회권징의 태만은 곧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역사를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것이라.”³³⁴⁾는 경고를 주고 있다.

이종일은 (1)“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에 의하면 교회권징의 태만은 교회본질의 상실을 초래한다.”³³⁵⁾ 교회가 권징시행을 소홀히 하면, 순결

331) Walther, 255.

332) Ibid., 256.

333) Bernhard W. Anderson, *The Old Testament and Christian Faith* (New York: Harper and Row, 1963), 229-231.

334) *RCCG*, 91-99.

335) 이종일, *교회헌법정해: 정치, 권징조례, 통상회의법 해설*(서울: 성광문화사, 1994), 31-33.

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권징시행은 지교회들의 순결과 도덕적 부패와 불결한 교리적 영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³³⁶⁾

(2)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에 따르면 교회권징의 태만은 교회의 순결상실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죄는 누룩과 같아서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부풀게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 5: 6-7).”고 하였다.

이것은 라니의 말대로 ‘썩은사과(rotten apple)’문제나 눈몽치 효과(snowball effect)와 같은 것이다. 순결에 관한 영성이 부족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예이다. 그들은 권징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였으며 결국 고통을 받았다. 하나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그들의 둔감함은 다른 문제들과도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한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각종 소송들에 휘말렸으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유를 잘못 사용하였으며, 주의 만찬을 모독하였고, 사랑의 탁월함을 무시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사용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였다.”³³⁷⁾ 고린도 교회에서의 권징의 실패는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오는 눈몽치에 비교될 수 있었다.

필자가 진단해 볼때 라니는 갈뱅의 심증을 다음과 같이 읽은것 같다. (3)“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증언에 의하면 교회권징의 태만은 교회의 능력상실을 초래한다.”³³⁸⁾는 논지인 것이다.

라니의 분석으로 미루어 볼때 “교회의 삶에서 죄는 성령의 사람들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킨다. 만약 죄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시행되는 권징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면, 성령은 그런 교회를 세속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죄가 다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주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결과를 얻게

336) Ibid., 32.

337) Laney, 20.

338) Ibid., 21.

된다.”³³⁹⁾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간의 범죄 때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런 원칙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틀림없는 것이다. 특히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지만 정확히 그 일들에 무지하거나, 그 일들이 다루기 힘들거나 우리 친구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방법을 찾을 때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문제들을 발생시킬 위험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교회권징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4)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에 따르면 교회권징의 태만은 교회의 발전상실을 초래한다. “권징을 실행하지 않는 교회는 사역의 퇴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장하여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기를 원하며 모든 종류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조직적 운동들과 일을 반전시키려고 시도하려는 계획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면, 그런 노력들은 아무런 소용과 유익이 없을 것이다.”³⁴⁰⁾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라니의 시선으로 볼때 (5)“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역사에 의하면 교회권징 태만은 교회의 목적상실을 초래한다.”³⁴¹⁾고 지적한다. 타락하여 죽어가는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록한 자들이 되도록 부르셨다. 세상과 구별됨으로서 두드러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의 탁월함을 선포한다(벧전 1:14-16; 2:9-15).³⁴²⁾

필자가 교회사적 통찰에서 심사숙고한 킹던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분석과, 플룸의 갈뱅이론, 정성구의 논술, 웰더의 권징이해, 이종일의 컨시스토리 해석과 라니의 경고적 논증들을 종합하여 볼때 이 논리들은 상호 긍정적인 교훈(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것은 갈뱅시대 제네

339) Laney, 20.

340) Ibid., 21. 이 원칙의 예로 요한계시록 2장 5절과 3장 16절을 참조하였다.

341) Ibid., 21-22.

342) Ibid., 22.

바 컨시스토리의 목표가 추구하고 성취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며 교회권징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오늘날 교회를 반박하며 제기되는 비판들 가운데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삶의 태도, 즉 도덕적 가치관, 삶의 형태에 있어서 그 차별성이 붕괴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필자는 여기에 주목하면서 상기된 신학자들의 교회권징 이론의 그 다양한 논지들을 칼뱅시대 컨시스토리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3.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목적은 범법자의 회개

필자가 통찰한 역사 신학적 안목에서 본 로버트 킹턴의 연구와 분석에 따르면 “칼뱅의 강조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은 용서받도록 지도 되어야 한다.”³⁴³⁾는 점이다.

칼뱅에 의하면 “용서받는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회개를 통하여 거짓교회가 참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다.”³⁴⁴⁾고 역설한다.

여기에 아더 핑크(Arthur W. Pink)는 범법자의 권징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1)“세상에는 영적 기만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회개를 구원받기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 하시기전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³⁴⁵⁾는 것을 진술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핑크는 구원교리(*The Doctrine of Salvation*)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칼뱅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³⁴⁶⁾라는 점이다. 칼뱅이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오늘날 회개가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 사례로 세대주의자들에 따르면 이 회개는 유대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343) *RCCG*, 11-12.

344) *RCCG*, 101-102.

345) Arthur W. Pink, *The Doctrine of Salvation*(London: Lutterworth Press, 1984), 100-107.

346) *Ibid.*, 101.

그들은 “사도행전 17장 30절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³⁴⁷⁾라는 말씀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은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만다. 또 어떤 자들은 단지 뉘우치는 것만으로 회개의 역사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집단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과 성격적 이해로 볼때 진정한 회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먼저 죄의 정의는 회개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회개의 본질은 마음의 변화이다. 또한 인격의 새로워짐이 따른다. 그리고 영혼의 탄식과 슬픔을 수반한다. 이렇게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께로 지향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

인간(죄인)의 회개를 다룬 신학자 아더 핑크의 논증을 보면 갈뱅은 (2)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필요성을 갖는다.”³⁴⁸⁾고 말했다. 그 이유는 후천적 죄인이기 때문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되이 순종하게 한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이론적 지식을 뛰어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것(시37:4)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결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애에 집착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 없다.³⁴⁹⁾ 죄가 아무리 커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사람은 구원을 가질 수 없다.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깨달으면 내가 주께만 범죄 하였다고 주를 향한 고백을 하게 된다. 이렇듯 참된 회개는 성령에 의해 자신이 그동안 심령속에서 죄의 악함과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의 위엄을 대항한 두려움을 깨닫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된다.³⁵⁰⁾

핑크는 범죄한 사람의 회개(교화)를 이끌어 내는데 헌신(능숙)한 갈뱅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인용한다.³⁵¹⁾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³⁵²⁾는 메시지였다. 이 회개는 죄로 인해

347) Pink, 102.

348) Ibid., 107.

349) Ibid., 108.

350) Ibid., 109.

351) *Inst(1541)*, 63.

352) *Inst(1541)*, 64.

애통하고 상한자를 치유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도, 오순절의 역사도, 성령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도, 바울의 회심도, 모든 것이 회개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었다.³⁵³⁾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 중 생활 속에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회개는 죄의 본질을 해결하는 유일한 첩경이다.³⁵⁴⁾

필자가 관찰하고있는 갈벱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누가복음13장3절의 메시지에서 보듯이 각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회개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³⁵⁵⁾고 역설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모순된 교훈으로 속거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필자는 먼저 갈벱이 지적하고 있는 잘못된 회개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워 떠는 것이 반드시 회개의 표징은 아니다. 실제로 이방인도 떨었고 두려워 했으나 그 두려움이 떠나면 다시 우상을 접했다. 둘째, 설득된 상태는 회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설득력의 결과이지 결코 성령을 통한 중생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다시 죄악의 시궁창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활에 더 만족하게 되고 만다.³⁵⁶⁾

(3)갈벱에 따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아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이 반드시 회개의 표징은 아니다. 두려움과 거의 같은 것인데 이것은 공포 그 자체를 두고 한 말로 이런 공포는 율법이 말하는 형벌의 두려움이 지 결코 회개의 두려움이 아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회개의 표징을 삼을 수는 없다. 사람의 설득력이 감동을 주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³⁵⁷⁾

(4)“갈벱은 사람이 하는 자신의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³⁵⁸⁾고 말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회개

353) *Inst(1541)*, 65.

354) *Inst(1541)*, 65-66.

355) *Inst(1541)*, 66.

356) *Inst(1541)*, 66-67.

357) Pink, 103.

358) *Ibid.*, 104. (예; 가룟유다).

한 구원의 증표는 될 수 없다. 회개는 행동에 이르는 영혼의 변화인 것이다.

필자가 탐독한 갈뻥의 회개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전에는 복음에서 버려진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 주어진다.”³⁵⁹⁾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제거하고 자신의 불충성, 율법을 경멸한 것 등을 회개하게 된다. 회개는 간단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고칠것 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다. 회개는 다가올 진노에 대한 공포나 죄의 확신 그 이상의 것이다.³⁶⁰⁾

갈뻥은 주문하기를 “진정으로 회개 하는 자는 이 죄로 인해 나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벌, 모든 수치를 감당하고 자신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어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며 세례를 외적인 표지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복음적인 회개는 죄의 큰 악을 깨닫고 부끄러워해야 할 주된 일, 즉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의 실패를 다른 일에 앞서 인식하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죄인을 사하심을 받아들이기 전에 나의 죄를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³⁶¹⁾고 천명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지 않는자를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성으로 성찰해 볼때 성령은 율법을 근거로 내가 어둠속에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양심의 가책이 아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는 벌이므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³⁶²⁾ 그래야만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구원과 속죄의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혐오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아더 핑크의 렌즈로 바라볼때 (5)“갈뻥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세 가

359) Pink, 103.

360) Ibid., 105.

361) Ibid., 106.

362) Ibid., 107.

지로 본다.”³⁶³)고 말했다.

깁벡이 수용한 회개는 ①절망의 회개이다.³⁶⁴ 이것은 에서, 바로, 아히도벨, 가룟유다의 회개와 같이 결과가 수반되지 않는 회개이다. ②개혁의 회개이다.³⁶⁵ 요나와 같이 자신의 회개를 통하여 자신도 살고, 니느웨 시민들을 구원받게 하였다. ③구원에 이르는 회개이다(행1:18)(고후7:10).³⁶⁶)

필자가 본 이정숙의 연구에 따르면 깁벡은 3년 이상 7년 동안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필자의 미시적 선상에서 볼때 이상의 깁벡이 말한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종으로 교화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였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는 종교인이 되지만, 보다 중요한 회개를 결여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의 순종하심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의무에 대해 면죄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회개는 성경말씀(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온전한 회개이어야 한다.³⁶⁷ 자신의 죄를 절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부를 뽑아내고, 제거해 버려야 하는 근본적인 성화의 새로운 피조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심령의 전적 돌이킴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의 영속적 증오와 차단이 필요하며 참된 회개를 통해 부단히 주님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³⁶⁸)

여기까지 필자가 깁벡을 진단해 볼때 깁벡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권징처방 목적은 죄인의 회개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왜냐하면 필자의 소견상 깁벡이 낸 그의 권징처방이 핑크나, 이정숙이 강조하고 있는 깁벡의 권징논리 초점에 두 가지 분명한 공헌점을 찾아주기 때문이다. 첫째는 회개의 본질이 성령의 간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 준다. 둘째는 이 증거확인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회개가 죄

363) Ibid., 102-103.

364) *RCCG*, 22-25.

365) Jung-Sook Lee, 8.

366) Ibid., 8-9.

367) Ibid., 10.

368) Ibid., 11.

인(사람)의 의지적인 회개인지 성령에 의한 직접적인 회개인지 그 정확성을 가늠해주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4.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목적은 도덕적 신령상의 문제

칼뱅은 교회 권징 목적을 이렇게 강조했다. “교회권징은 도덕적 신령상의 문제이지 국제법상의 문제가 아니다.”³⁶⁹⁾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권징의 시정책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그린그래스의 주장에 따르면 칼뱅의 입장에서 “①교회권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³⁷⁰⁾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엡5:15-26). 그들이 악하고 타락하면 음모단체의 인상을 줌으로 하나님께 불명예가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골 1:24), 이런 추하고 썩은 지체에 의하여 부패된다면 그 머리에도 어느 정도 불명예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회의 가장 신성한 이름에 불명예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행악자들을 교회라는 가정으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그리고 주의 만찬제도를 보전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제공에 의해 성찬을 더럽혀서도 안된다. 성찬을 분배하는 일을 위임 받은 사람은 합당치 못한 사람을 마땅히 돌려보내야 한다.³⁷¹⁾ 그런 것을 알고도 성찬에 참여시킨다면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개에게 던져주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크리소스톰은 성직자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감히 아무도 제외시키지 못하는 것을 엄히 공격했다. 그러므로 이 가장 신한 신비가 치욕스럽게 되지 않도록 성찬을 분배 할때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교회의 재판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칼뱅에 의하면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시행한 “교회권징은 악인의 영향으로 인한 선한성도들의 타락을 차단하는 것이다. 흔히 있는 일이듯이 악한

369) Calvin, 329. 칼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국법상 문제와 권징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370) Greengrass, 134-135.

371) Calvin, 331-334.

사람들과 계속 교제함으로써 선한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³⁷²⁾ 인간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 쉬우므로 나쁜 행실을 보면 바른 생활을 버리고 다른 데로 끌려가기가 아주 쉽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사도가 근친 상간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명령 했을 때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와 같이 여기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예견하고 그 범죄자와의 교제를 금지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취하거나 호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고전5:11).”³⁷³⁾고 하였다.

갈벡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조직한 회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교회권징은 자신의 비열함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³⁷⁴⁾ 그 이유는 더 부드럽게 처리를 받았으면 더욱 고집을 부렸을 사람들이 자기의 악행에 대한 징벌을 받고 매를 맞아 각성하며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바울사도는 이런 뜻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가 이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나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살후 3:14).”고 하였다.

또한 “바울서신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에서는 고린도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고 하면서, 그 목적은 영이 주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함이라.”³⁷⁵⁾고 하였다.

그러므로 갈벡시대 제네바교회권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에 대한 교인들의 증거와 고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삶과 행동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사람에게 의한 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권징의 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궁구하고 다독한 바 성경은 권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372) *Inst(1541)*, 63-64.

373) Greengrass, 136-137.

374) *Inst(1541)*, 66-67.

375) Calvin, 335-336.

마태와 바울은 권징 받을 자들을 불러 죄악 중에 있는 신자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세운다(마18:15; 살후 3:14,15; 히 12:10-13; 갈 6:1,2; 약 5:20).³⁷⁶⁾ “바울은 건전한 교리를 통하여 건강한 믿음을 일으킨다.”³⁷⁷⁾고 하였다(딤후 1:13; 딤후전 1:19-20). 왜냐하면 “바울이 볼 때 권징은 만약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라면,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딤후 2:24-26).”³⁷⁸⁾라고 말한다.

또한 바울은 교회권징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억누른다(딤후 1:10-11).³⁷⁹⁾고 보았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들을 위하여 본보기를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한다(딤후전 5:20).³⁸⁰⁾고 역설했다. 따라서 바울은 권징이 교회가 그것을 잘 시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될 파괴적인 결과들에 대하여 교회를 보호해 준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스프로울(R. C. Sproul)이 바라본 갈방의 입장에서 해석해 볼 때 “교회권징은 형벌이 아닌 훈육(교화)이다.”³⁸¹⁾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문으로 들어온 자들에 대하여 화해하는 사역 뿐 아니라 양육하는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 권징은 양육(훈육:교화) 부분에 속한다.³⁸²⁾

스프로울의 설교신학적 렌즈에 비춰진 갈방시대 제네바교회 권징이란 개념은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인 복음전도와 교화(edification)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는것 같다.³⁸³⁾

스프로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교화 과정은 신자들을 세우도록 계획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따르게 만든다. 목사들은 교화 과정으로서 교회권징을 시행하여 죄의 영역에 점령 당한자들을, 그곳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사

376) Calvin, 336.

377) Ibid., 337.

378) Ibid., 338.

379) Ibid., 337-338.

380) Ibid., 339.

381) R. C. Sproul, *In Search of Dignity*(London: Regal Books, 1983), 182.

382) Ibid., 182-183.

383) Ibid., 183.

역을 감당해야 한다.³⁸⁴⁾

그리하여 저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준다. 그렇게 할 때 저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기 때문이다.³⁸⁵⁾ 그리고 훈련한다. 이 훈련은 회복을 위한 반복적 교리(양육)훈련이며, 교화훈련이다. 회복을 추구하는 훈련은 곧 교회 안에서 권징의 형벌(punishment)이 아닌 양육과 교화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라니의 견해는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시행한 '교회권징은 교화적 양육의 다양성'³⁸⁶⁾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라니가 지적한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교회양육에 특징과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³⁸⁷⁾고 이해된다. 그 말씀에 대하여 바울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히12:6).”고 하였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 교육의 역할을 어머니에게 위임하듯이, 주님은 교회의 가족들에 대한 권징을 교회 자체에 위임하였다는 뜻이다.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에 있으리요 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전 5:12-13).”³⁸⁸⁾고 하였다.

라니는 계속해서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권징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갈뱅이 말하는 교회권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실현하는 것이다.”³⁸⁹⁾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바울의 말을 인용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16).”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

384) Sproul, 185.

385) Ibid., 184.

386) Laney, 14-15. 교리교육, 영육치유, 생활실천 등 이다.

387) Ibid., 14.

388) Ibid., 15. 또한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다(고후 2:6).”고 하였다

389) Ibid., 13-14.

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히 12:11).³⁹⁰⁾라고 진술했다.

라니의 논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것은 곧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다.”³⁹¹⁾고 하였다. 교회 권징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이유이다. 그럼으로 교회는 그 내부로부터 사악의 누룩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 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³⁹²⁾고 하였다.

여기에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전 5:6-8).”고 제안했다.

바울은 교회에서 권징을 잘 실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관심도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한다.

이것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전 4:6).”³⁹³⁾고 말했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린그래스의 강론과 스프로울 해석이 라니의 논점과 함께 여러 가지 논쟁적 지평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징명령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곧 교회권징의 방법, 이유, 시기, 그리고 장소에 대한 교회 권징실현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권징책임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성경

390) Laney, 14.

391) Ibid., 15.

392) Ibid., 16.

393) Ibid., 15-16. 교회는 주님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의 행동과 삶을 관찰하기 때문이다(벧전 4:13-19). 교회가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행동한다면, 교회는 그 신뢰성과 진정성을 상실하게 된다(벧전2:11-18, 3:8-16, 4:1-4).

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신앙의 결핍을 드러내고 말것이라(고전 5:1-13; 마 18:17,18; 딤후 3:10; 살후 3:6-15; 딤후 5:20; 갈 6:1).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C.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과정

갈뱅시대의 컨시스토리가 시행한 교회권징의 과정은 그 단계적 순서가 제네바 교회법과 갈뱅이 작성한 교리 가운데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라니(Laney)의 분석과 연구에 따르면 갈뱅은 교회권징문제가 발생했을때 먼저 “그 정보를 입수했다.”³⁹⁴⁾고 말한다.

여기에 스프로울(Sproul)은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권징 이유를 목회학적 지평에서 소상하게 적시해 주고 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난잡한 행위들, 성경에 기록된 명령들에서 분명히 벗어난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교회의 고백과 일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살후 3:6-15).”³⁹⁵⁾는 것이다.

갈뱅은 “이러한 정보들을 능동적(직접)이며, 수동적(간접)인 자세로 입수했다.”³⁹⁶⁾고 진술했다.

라니는 두 번째 순서로 ‘범죄사실을 확인했다.’³⁹⁷⁾고 전했다. 만약 장애물이 있거나 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다면, 다음을 참고하라고 말했다.

여기서 스프로울은 라니의 변증을 지지하면서 “권징을 요하는 범죄는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또 다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³⁹⁸⁾는 논지를 펼쳤다.

스프로울의 논지는 또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기억하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경고를 주의한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문

394) Laney, 15.

395) Sproul, 183-184. 교회권징의 12단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정보입수. b. 사실 확인(장애물제거). c.소환 및 출석요구. d.검증 및 정리, e.심의 결정, f.출교(치리), g.해별. h.용서. i.위로. j.치유, k.사랑, l.덕을 세우라.

396) Ibid., 184.

397) Laney, 16.

398) Sproul, 185.

제를 기도 중에 주님께로 가져온다(삼상 8:6). 꾸물거리지 말라. 질질 끌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³⁹⁹)고 경고했다.

라니는 다음순서로 “그 대상자를 소환했다.”⁴⁰⁰)는 점을 설명한다. 처음에, 개별적으로 고치려는 시도와 범법자와의 화해가 있어야 한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마 18:15).”라는 점을 적시하였다.

스프로울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그리고 만약 너희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진다면, 가서 그를 개별적으로 훈계하라.” ‘너에 대하여(against you)’라는 말이 원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음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의의도 없었다. 마태복음18장21절의 ‘나에게 대적하여(against me)’는 마태복음18장15절의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수용하도록 저자가 독자를 이끄는지도 모른다. 혹은, 이 구절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생략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반면 사마리아 사본 전승에는 ‘너에 대적하여(against you)’라는 말이 없는데,⁴⁰¹) 그것들만의 독창성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스프로울의 해석에 근거하면 “그 독창성은 ‘개별적으로 그를 훈계하라.(reprove him in private)’는 구절과 ‘나에 대하여(against me)’ 죄를 지은 형제의 용서에 대한 21절의 베드로가 한 질문은 그것들의 삽입을 시사한다.”⁴⁰²)고 하였다.

스프로울은 “또한 ‘너에 대하여(against you)’라는 말이 원본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신자들의 삶속에 있는 죄에 맞설 의무를 가지고 있다.”⁴⁰³)는 점과 한 사람에게 대항하여

399) Ibid., 184-185. 마태복음 18장 16절의 장면에서 당신이 죄지은 신자에게 개인적으로 말할 때까지 그것에 대해 수군거리거나 다른 이에게 말하지 말라.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를 악한 소문들과 중상 모략하는 혀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한다(잠 6:19b; 10:19; 11:13; 18:8, 21; 20:19).고 말한다.

400) Laney, 16-17.

401) Sproul, 184.

402) Ibid., 184-185.

403) Ibid., 185.

범죄할 때,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스프로울은 이중적인 적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문제가 다른 이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 한 신자와 관계된 것일 때, 돌아볼 필요가 있는 두 가지 주안점들이 있다. 그것은 화해와 회복이다(마 5:23-24). 문제가 어떤 죄를 극복한 한 신자와 관계된 것일 때,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경우에서처럼 필요한 것은 회복이다. 마태복음 18장 16, 17 절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관점에서 또 다른 이에 대하여 죄를 짓는 한 신자의 문제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공격받은 사람이나 죄를 짓거나 범법한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가서 그 문제를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프로울은 그 다음순서로 ‘검증을 언급했다.’⁴⁰⁴⁾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권징 대상자에 대하여 옳바로 이해하며, 정말 그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죄가 명백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잘못 판단했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정도의 가능성을 허용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측의 얘기도 들어야 하며 진리와 공평함을 위하여 사실들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응답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⁴⁰⁵⁾(마 18:16).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증인으로 다가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되돌아와야 한다.

스프로울은 다음순서로 ‘심의결정’⁴⁰⁶⁾을 주장했다. 만약 첫번째 단계가 실패하면, 권징의 결과를 강화하기 위해 증인들을 세우데 가급적이면 영적 지도자를 초청하라고 조언한다. 그래서 만약 전 교회 앞에 불러 나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증명되고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마 18:16, 17; 딤후 5:19). 만약 문제가 공동체 전체를 대적하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혹은 공동체의 일치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교회 지도력의 도움이 요구되는

404) Sproul, 185-186.

405) Ibid., 186.

406) Ibid., 187.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 개별적이든지 증인들이 동원되든지 간에, 초기의 접근들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고치고 용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에 이런 첫 단계들이 결과들을 도출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행동이 취해질 것이며 심각한 비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경고가 마련될 것이다.⁴⁰⁷⁾(딤후 4:2; 살전 5:12, 13; 딤후 2:15, 3:10).

스프로울의 논증은 ‘갈뱅이 권징의 최종 단계로 출교’⁴⁰⁸⁾ 시행을 주문했다고 증언했다. 만약 두 번째 단계가 실패하면, 공동체를 통하여 화해와 회복을 구하라. 만약 행동이 필요하다면, 전 교회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살후 3:14, 15; 마 18:17; 딤후 5:20).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과 고린도전서 5장 9-13절을 마태복음 18장 17절과 결합시킬 때 이런 행동은 두 단계로 구분되는 것 같다.

스프로울의 주장은 공동체 권징대상자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적절한 교제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서 사회추방의 방식으로 조직의 반대 주장을 이행시켜야 한다.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신자가 속한 지교회는 출교를 실행해야 한다. 교회 구성원으로부터의 해임, 투표권의 상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적절한 교제의 상실. 이것은 전 교인들에 의해서 승인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후 2:6).고 보았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이것은 주님이 장로들의 지도력이나 영적인 성숙 아래에서 공동체 전체의 행동을 통하여 권징을 실행하시는 것이다(고전 5:4).⁴⁰⁹⁾

이정숙은 “갈뱅의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나타난 교회권징의 최종단계는 출교(Excommunication)로 보고있다.”⁴¹⁰⁾ 교회권징은 권면, 징계, 출교, 해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출교는 위의 개념 보다는 좀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갈뱅은 출교를 권징의 마지막 단계로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두 용

407) Sproul, 186-187.

408) Ibid., 188. 이러한 갈뱅의 출교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이정숙의 갈뱅 출교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409) Ibid., 187. 유사한 사례로 하늘의 권세는 마태복음 18장 18-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권징행위의 비준에 의해서 드러난다.

410) Jung-Sook Lee, 29-31. 그는 갈뱅이 행한 권징의 최종단계를 ‘출교’로 보고있다. 그러나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를 통해 실현된 출교는 전체 권징사건의 0.6퍼센트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논술했다.

어를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⁴¹¹⁾

갈뱅은 이 사실(내용)을 기독교 강요(1536) 4권 12장에서 부터 소개하고 있다.⁴¹²⁾ 그리고 역사적으로 권징과 관련되어 논쟁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15-18).”⁴¹³⁾는 성경말씀이었다.

고대교회 사회에서 부터 중세시대 교회에서도 성도를 훈련하는 도구로 ‘출교’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갈뱅은 ‘출교’를 이렇게 말했다. “출교에는 3중적 목적이 있다.”⁴¹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둘째는 죄인의 자기갱신과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는 범죄 이전 상태로의 정상적인 회복과 교화를 통한 사랑실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⁴¹⁵⁾

필자가 받은 갈뱅의 권징 이미지를 설명한다고 할 때 갈뱅에게 있어서 “출교는 권징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었다.”⁴¹⁶⁾고 해석된다.

그린그래스는 이 갈뱅의 출교를 “죄인의 자기 고침이다.”⁴¹⁷⁾라는 주제로 표현했다. 이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격리와 수치를 당하도록 행하는 것이다. 즉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 수치와 죄책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죄를 깊이 뉘우치고 개과 천선 하려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 죄를 고치도록 하는 것이

411) *RCG*, 21-110.

412) *Inst(1536)*, 127.

413) *Inst(1536)*, 127-128.

414) *Inst(1536)*, 128.

415) *Inst(1536)*, 128-129.

416) *Inst(1536)*, 129.

417) Greengrass, 446. 종교개혁자 부처도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논점은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개인이 수치감을 가지므로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행하는 역 반응적 조치였다.⁴¹⁸⁾

이 방식은 중세 로마 가톨릭이 사용했던 방식은 아니다. 이들은 출교를 너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갈뱅은 이점을 철저히 지적하고 개혁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갈뱅은 교리문답을 만들고, 교회헌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권징의 최종적인 수단으로 출교를 결정하여 시행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⁴¹⁹⁾

이와 같이 갈뱅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를 통해 출교의 의미를 회복해서 제네바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즉 출교의 바른 의미를 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출교를 너무 강압적으로나 또는 너무 느슨하게 사용하는 양극단을 모두 제거하고 성경적인 의미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린그래스는 다음 조치를 ‘교회공동체의 교훈을 주는것’⁴²⁰⁾이라고 말한다. 그는 “갈뱅이 죄의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인식했다.”⁴²¹⁾고 보았다. 그래서 갈뱅은 출교를 통해서 이 죄의 전염성을 막고자 했던 정신을 엿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출교의 결과는 형벌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본래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회복이다.⁴²²⁾

그린그래스의 분해시각으로 볼 때 “갈뱅은 이를 위하여 먼저 세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⁴²³⁾ 특히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유아세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으며, 대부제도에 있어서 자격을 갖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성찬을 금지 시켰다. 이 부분에서는 쓰윙글리와 차이를 나타낸다. 즉 쓰윙글리는 성찬에 있어서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당국에서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는 위로 차원에서 성찬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제약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⁴²⁴⁾

418) Greengrass, 447.

419) Ibid., 448.

420) Ibid., 447.

421) Ibid., 448.

422) Ibid., 448.

423) Ibid., 447

그린그래스의 교회사적 서술논단에서 보면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는 이러한 점에서 종전의 로마 가톨릭이 적용해온 권징과 차별성을 가지는 특이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부분은 중세시대 가톨릭에 의하여 자행 되 왔던 방식과 많은 유사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역사적으로 검증해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⁴²⁵⁾

여기서 그린그래스가 뇌파를 집중하여 강조하는 것은 칼뱅은 중세 로마 가톨릭이 사용한 정신과 내용과는 달리 성경에 바탕을 둔 독특(엄격)한 개념들을 정립하면서 제네바 교회에 적용해 나갔다. 그러나 쓰윅글리와 여타 신학자들은 관용적인 입장에서 죄인이 사회적 제약을 받는 것에 반대했다.⁴²⁶⁾

칼뱅시대 제네바에서 그 실제적인 내용으로 결혼에 있어서 권징을 당한 사람은 제약을 받았다. 즉 권징절차가 풀릴때 까지는 결혼이 공교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권징받은자는 반드시 해벌을 받은 다음에야 그 당사자가 교회의 공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칼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해벌장을 제출한 신청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⁴²⁷⁾

그린그래스가 통찰한 결과 칼뱅은 특별히 결혼에 있어서 질서를 엄격하게 다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칼뱅은 결혼의 성경적인 가치를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긴밀한 거래를 할 수 없었다. 중세에는 소(小)출교, 대(大)출교가 있었는데, 특히 대(大)출교에서는 가족에서 분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했다. 그러나 칼뱅은 그런 방식과 내용으로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린그래스의 탐구 선상에 들어온 루터의 권징범주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⁴²⁸⁾는 정도의 느슨한 방식이었다. 그는 “루터가 권징 받은자의 죄상이

424) Greengrass, 446-447.

425) Ibid., 448.

426) Ibid., 449.

427) Ibid., 448-449.

428) Ibid., 448.

긴밀하게 거래하는 은닉된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⁴²⁹⁾는 점을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갈뱅은 죄인들인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권징을 받게 될 때 그 내용은 사회생활에 있어서까지 제약을 받도록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된다.⁴³⁰⁾ 여기서 필자는 갈뱅의 교회법과 그 교회법에 대한 일반법의 적용에 대한 방식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하였다.

그린그래스가 행한 갈뱅의 출교이론 분석에 따르면 “갈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에 나타난 출교 논의의 특성들이 있다.”⁴³¹⁾ 그 속에는 구원론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갈뱅은 이 질서를 구원의 관점과 연계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좀더 엄중하고 신중한 권위를 갖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의도는 갈뱅의 주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⁴³²⁾ 즉 마18:1-14절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적 목적 실현이다. 이것은 목회적 본질 이기도 한 내용으로 15절 이후의 권징(훈육: 교화)과 연결해서 주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첫 부분은 ‘소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0절에서는 ‘천사’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고, 12절에는 ‘양 비유’가 제시되고 있다.⁴³³⁾

이것은 곧 탕자의 비유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18장 초반부는 약하고 연약한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즉 약하고 연약한자의 구원론적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연약한자를 어떻게 다스려갈 것인가가 15절 이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러므로’ 라고 15절에 주석을 연결하고 있다.⁴³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한 지대한 관심과 그런자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을 교회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배려하며 보살펴야 하는 의미로 컨시스토리를 적용했던 것이다.

429) Greengrass, 450.

430) Ibid., 449.

431) Ibid., 450.

432) Ibid., 450-451.

433) Ibid., 451.

434) Ibid., 450.

그린그래스는 하나님 말씀의 교화(교정)적 효과를 강조한다.⁴³⁵⁾ 중세시대에 출교를 당하면 교회 근처에도 가지 못했으나 갈뱅은 출교를 당하게 되면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설교를 더 많이 들으므로 죄를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말은 곧 적당함의 원칙(The Rule of Moderation)의 미(美)를 추구하였다는 설명이다. 너무 강압적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적당함을 주장했다.⁴³⁶⁾

그린그래스는 이어서 ‘갈뱅의 해벌’⁴³⁷⁾을 강조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갈뱅은 이점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변화된 일을 행하는 열매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참된 회개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스스로 증명된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해벌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갈뱅의 입장이고, 그린그래스의 주장이다. 해벌을 통한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회의 역할은 회개가 이루어진 후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어머니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⁴³⁸⁾

필자의 검증방법으로 조망해 볼 때 그린그래스가 보는 갈뱅의 권징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은 해벌을 통한 ‘용서와 치유’로 정리되고 있다. 이것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일을 잊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고후 2:7).’라고 하였다. 그러나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이 물음과 죄 중에 있는 개인이나, 혹은 그 무리가 그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를 바랄 때 우리교회의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합당한 해답은 누가를 통해 전달된 다음의 성경구절이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

435) Greengrass, 451-452.

436) Ibid., 452.

437) Ibid., 453.

438) Ibid., 453-454.

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눅 3:8).”⁴³⁹⁾고 하였다.

필자가 이상의 논지들을 정리하는 이 지평에서 그린그래스와 깔뱅이 행한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권징을 이해할 때 이 두 사람 공히 ‘치유’를 통한 신앙의 정상궤도 진입을 역설한다는 점이다. 이 ‘치유’는 죄로 인한 상처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다(출15:26)(말4:2).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인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필자의 종합적인 판단과 참고사항으로 볼 때 범죄한 인간을 치유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다. 과실한 죄인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는 사랑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가까이 친교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 성장과 완전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하나님의 양식)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고후2:8).⁴⁴⁰⁾ 그리할 때 실패했던 그들은 이제부터 신앙의 덕을 세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치유 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며(요일 1:9; 잠 28:13),⁴⁴¹⁾ 권징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던 행위를 중단하거나, 자신의 과거 잘못을 억누르는 인생의 한 사건이라면 최소한 도움을 구하며(잠 28: 13; 갈 6:1; 약 5:19, 20), 적절할 때 상처받은 자들로부터 가치를 되돌려주거나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빌18,19장; 마5:23,24).

439) Greengrass, 454. 이것은 또한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하는 것이다(행26:20),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행동과 삶을 통하여 스스로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용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위로의 확신을 주며, 용기를 주고, 권고하고, 그들이 살아 생동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다(고후2:7).

440) Ibid., 455. 이것은 그들을 격려하여 사역에 열중하도록 하는 일도 해당된다(눅 22:31,32).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유추한 후에 그들의 자질을 드러내기 위하여 시험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

441) Ibid., 456. 회개자는 진정한 심령의 변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실제적 관심과 진심어린 애통함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용서받기 위한 어떤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며,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불러일으키기 때 문이다(고후 7:8-11; 시 51:17). 회개자는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들을 밝히 드러내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갈 5:22).

VI.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시행한 교회 권징들의 실제

필자는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직접 시행했던 교회권징의 실제적 사건들을 발굴하고 분석하였다.

A.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신학적인 권징문제

1. 성상숭배

필자가 연구한 바로는 “칼뱅은 매우 정중한 표현으로 자신과 파렐을 포함한 개혁자들이 개인적 유익(우상숭배)을 추구하려 했다.”⁴⁴²⁾는 비난을 물리치면서 서두를 열었다.

칼뱅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a call from God)에 의해 지지받고 또 인정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나의 사역이 도전받고 공격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만일 여기에서 침묵을 지키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요 배신행위(perfidy)가 될 것이다.”⁴⁴³⁾는 사실을 고백했다.

칼뱅을 인용한다면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반드시 요구되는 성실성(sincerity)을 가지고 노력했던 것만은 확실하다.”⁴⁴⁴⁾고 주장했다.

“내가 만일 내 자신의 이익(my own interest)만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나는 결코 로마 가톨릭(교황)의 세력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결코 나의 탐심(우상숭배)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남용한 적이 없다.”⁴⁴⁵⁾고 밝힌바 있다.

칼뱅의 주장을 보면, “자기 자신(인류)의 제일차적 존재 동기로서 하나님

442) John Calvin, *A Reformation Debate*(New York: Baker Book House, 1976), 50. 이것은 제네바 시민과 원로원에 보내온 사도레토 추기경의 서한에 대한 칼뱅의 답신내용이다.

443) Ibid., 50-51.

444) Ibid., 51.

445) Ibid., 57.

의 영광을 제시하려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자기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은 그다지 건전한 신학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지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선과 유익에 대한 모든 생각과 염려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 더욱 커야할 것을 가르치셨다.”⁴⁴⁶⁾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단지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the salvation of his own soul)만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음이 분명합니다.”⁴⁴⁷⁾라고 말했다.

칼뱅의 논지를 관조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의 공적들과는 상관없이 그 불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 칼뱅이 칭의와 선행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볼때 “우리는 선행이 칭의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 속에서는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⁴⁴⁸⁾라고 공언했다.

칼뱅은 “우리가 값없이 택함 받은 목적이 순결하고 오염되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처럼,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의 목적도 또한 그와 같다.”⁴⁴⁹⁾고 역설했다.

칼뱅에 따르면 1544년 7월 17일 목요일 날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다른 교회권징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날 여기에 “페르농 콩트스(Pernon Comtesse)라는 한 여성이 성모 마리아 성상 문제로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소환되었다. 메르메 라베(Mermet Ravex)의 아내인 농장 노동자 페르농 콩트스(Pernon Comtesse)는 성모 마리아의 순결을 기념하는 마지막 절기인 성촉절(Candlemas)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자’라고 말을 걸었던 돈 르와즈(Donne Loyse)라는 이름의 한 여자와 한 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⁴⁵⁰⁾

446) Calvin, 55.

447) Ibid., 58.

448) Ibid., 68.

449) Ibid., 69.

450) *RCG*, 321-322.

고 답변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머물러야 했다.”⁴⁵¹⁾고 답변하였다. 그녀는 임신한 여자에게 “꺼져라. 너는 사악한 여자이며, 절기를 지키지 않았구나.”⁴⁵²⁾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가 가졌던 아이를 낳도록 하시기 전에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녀가 그것을 말했다면 “그녀는 하나님께 자비와 공의를 구했을 것이다.”⁴⁵³⁾고 답변하였다.

필자가 궁구한 바로 깔뱅신학의 다양한 본질적 주제 가운데 확실한것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그 면전에서 신학이라는데 동의한다.

B.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교회적인 권징문제

1. 믿음과 예배

필자가 주목한 바로 “깔뱅은 그의 교회관에 기초를 믿음에 두고 있다.”⁴⁵⁴⁾는 점이다. 깔뱅은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에 대한 지식이 제거된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소멸되고 기독교는 무너지고 교회는 파괴되며 구원의 소망은 완전히 소멸되고 만다.”⁴⁵⁵⁾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

451) *RCG*, 322.

452) *RCG*, 323-324.

453) *RCG*, 324. 그녀가 말을 걸었던 여자의 이름은 페트르망다(Petremandaz)였으며, 그녀는 이 페트르망다에게 자신이 잘못된 말을 하였고 만약 그녀가 마리아 성 축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녀의 열매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적이 없다고 답변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으나, 실상은 설교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기도문을 읽었으나, 신앙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성만찬을 받았다. 그녀는 그 임신한 여자 페트르망다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페트르망다에게 해를 끼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자비와 공의를 구했다. 페르농 콩트스(Pernon Comtesse)가 비록 그녀의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 확실히 임신사실을 말했다더라도, 그녀는 성모 마리아가 그녀를 대신해서 보응해주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활절 이전, 성만찬을 받기 이전에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혹은 평의회에 소환되었으며, 그녀는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와서 자주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454) Calvin, 62.

455) *Ibid.*, 63.

고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공적이나 가치 있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gratuitous mercy*)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된다.”⁴⁵⁶⁾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표현을 따라 믿음의 의(*the righteousness of faith*)라고 부른다. 분명코 인간의 자기공로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데 있어 지푸라기(*straw*)만큼의 가치도 없다.”⁴⁵⁷⁾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⁴⁵⁸⁾

칼뱅에 의하면,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형태가 로마 교회보다 초대 교회 형태에 훨씬 더 가깝다. 개혁자들은 “처음에는 무식한 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더럽혀졌으며 후에는 로마 교황과 그의 도당들에 의하여 극악무도하게 난도질당하고 거의 파괴 되다시피한 교회의 본래의 형태를 새롭게 하고자.”⁴⁵⁹⁾노력해 왔다.

칼뱅에 의하면, 개혁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기존의 교회상태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고대의 경건함과 거룩함(*ancient piety and holiness*)을 열망하여,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초대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다.”⁴⁶⁰⁾

“칼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뻬에르 루즈(*Pierre Rouz*)라는 사람에게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할 것과 십계명에 대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라고 충고하였다.”⁴⁶¹⁾ 뿐만 아니라,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랑의 본을 보여줄 것을 권면받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신사용 양품을 파는 상인으로 샹시(*Chancy*)지방 인근에 위치한 푸니(*Pougnny*) 지역의 토박이였다. 그는 예배 참석과 그 이외의 다른 일들 때문에 사건이 생겼던 것이다.”⁴⁶²⁾ 그가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소환되어서 진술할 때 “그는 처

456) Calvin, 63.

457) Ibid., 67.

458) Ibid., 65.

459) Ibid., 62.

460) Ibid., 63.

461) *RCG*, 451-453.

음부터 시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혜택(무죄: 신앙)을 요구했다.”⁴⁶³⁾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는 신사용 양품장사를 시작했고, 아내와 아이들을 얻었다. “그가 제네바 컨시스토리로 부터 십계명에 순종하도록 요구를 받은 이후로도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그가 병원에 있을 때 그는 그 병원 사무원들(procurators)에게 자비를 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그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으며, 다만 그에게 요청하는 이들에게 절기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을 뿐 이었다.”⁴⁶⁴⁾ 그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으며, 만약 이 사건을 밝혀내는 가운데서 다른 이유가 발견 된다면 그는 그것을 평의회에 내놓을 것이라고 답변되었다. 따라서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그가 다른 이에게 더 이상 나쁜 본을 보이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억제해서 “그가 과거에 잘 해왔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라.”⁴⁶⁵⁾는 권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절기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에게 절기에 대하여 가르치지 말라고 제네바 컨시스토리로 부터 충고를 받았다.⁴⁶⁶⁾

2. 기도문제

킹턴의 진술에 따르면 주님의 교회 구성원 가운데 한 공동체였던 여성 끌로드 드 미리벨로(Claude de Miribello)와 그의 아내의 기도 문제로 그녀가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로 부터 권징을 받았다.

“클로드 드 미리벨로(Claude de Miribello)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적절한 때에, 그는 그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아내는 로자리오 기도용 묵주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혹은 손가락으로 묵주를 소리 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 남편은 자주 예배에 참석하였고 신앙의 하나 됨을 믿으며 신앙에 대해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았으며,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수호자이거나 혹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한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소견은 “그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가르치고 예배에 자주 참석

462) *RCC*. 10-11.

463) *RCC*. 12-13.

464) *RCC*. 14-15.

465) *RCC*. 15.

466) *RCC*. 16-17.

하도록 권면을 받아야한다”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주기도문과 신앙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였다. 그 후
아내는 기도문과 신앙고백을 하였다.”⁴⁶⁷⁾

필자가 수용하고 있는 킹던의 깔뱅 기도론에 대한 이해는 교회가 어머니
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었던 기초적 출발
점 가운데 하나는 기도였다는 것이다.

3. 교리와 신앙고백

깔뱅은 말씀의 우선권을 강조하면서 교리와 신앙의 공작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선지자들이 교회의 갱신(the renewal of
the Church)과 전 세계로의 확장(its extension over the whole globe)을 예
언할 때에 그들은 언제나 말씀에 우선권을 두었습니다.”⁴⁶⁸⁾

깔뱅은 이렇게 진술했다. “크리소스톰(Chrysostom)은 성령의 구실하에
우리들을 복음의 단순한 교리(the simple doctrine of the gospel)로부터 호
도하려는 그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말도록 충고하였던 바, 매우 옳은 말이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새로운 교리
를 밝혀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⁴⁶⁹⁾

깔뱅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리들을 검사하는 시금석이다. 또한 성령
은 교회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는 분이다. 성령 없이 말씀 자

467) *RCG*, 203-209. 마구 용품 장인 업자인 미셸(Mychiel)의 아내는 병들어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오늘 샹프로(Champereaulc) 목사가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하였고, 또한 성찬을 받았다. 그러나 설교자가 무엇을
설교했는지 몰랐다. 그녀는 라틴어 기도법 외에는 기도하는 법도 알지 못했
다. 그녀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급되
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충고는 그녀가 남편과 함께 예배에 자주 참석하도
록 지도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변명은 적절치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과 성찬식에 앞서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활절 이전 목요일
에 시행하는 이 교화훈련에 참석해야만 했다.

468) Calvin, 60.

469) *Ibid.*, 60-61.

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불합리하듯이 말씀 없는 성령만을 자랑하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불합리한 일이다.”⁴⁷⁰⁾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칼뱅은 “한 가정의 가장인 마티유 가트시네(Mathieu Gathsiner)의 신앙(종교)과 예배참석 문제로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열렸다.”⁴⁷¹⁾ “그는 신 사용 양품 가게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 부유한자 였다. 그는 신앙(종교)과 예배참석 문제로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불려가는 일이 생겼다. 그에 관하여 말했던 자들(증인)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답변되었다. 천주교의 교리와 신앙을 신봉하는 자들에 관하여 그는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준 것이 틀림없었다. 예배참석에 대해서, 그는 가능한 한 매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고기에 관해서, 그는 그의 집에서 고기를 먹는 남자들과 함께 고기를 먹는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혐오하지 않고,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과 개혁과 율법 그리고 이 도시의 관습들의 범위 안에서 순종적인 시민으로 살다가 죽기를 원했다. 그는 기도문을 암송하고 라틴어와 독일어로 된 주기도문 외에는 신앙 고백문을 여전히 잘 모른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⁴⁷²⁾ 그는 6명의 자녀들과 12살 난 손녀를 두었다고 전해졌다.

필자가 킹던의 논리를 해독한 바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칼뱅 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소견은 그가 부활절까지 교리중 하나님인 신앙고백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매 주일에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그의 손님들에게 신앙을 전해야만 했다. 그는 이렇게 행하고, 예배에도 자주 참석하도록 권면을 받았다. 그는 자기 집에 신약성경을 두었고, 성만찬을 받기 이전에 제네바로 왔다. 그는 자신의 세 딸이 함께 이곳에 와서, 그의 손님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470) Calvin, 61.

471) *RCCG*, 190.

472) *RCCG*, 190. 1543년 2월 15일 목요일, 참석한 당회원: 행정장관 Checand, Calvin, Henri, Chaompereaulx, De Ecclesia, De Genesto, Trippereaulx, Claude Du Pain, Michel Morel, Jo. Du Molard, Pierre de Veyrier, Blandin, Pierre Vernaz, Pensabin, Just de Ulmo, The officer Vovrey.

4. 성례전 문제

킹턴의 말대로 깔뱅이 성례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깔뱅은 “성례란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 하는 것으로써 이 외적인 표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⁴⁷³⁾는 사실을 강조한다.

깔뱅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 당신의 약속들을 보다 강력하게 새겨 넣으시기 위한 것이며 성도들로 하여금 이 약속들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⁴⁷⁴⁾고 역설했다.

깔뱅은 “성례가 그 자체의 힘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⁴⁷⁵⁾고 말한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목적으로 성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힘이 부여된 것이다.”⁴⁷⁶⁾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기는 것은 성령님의 교유한 직무이다. 즉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오성(悟性)을 조명하시고 또한 우리의 양심을 굳게 해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 이시다.⁴⁷⁷⁾

이때 필자는 “요한의 성령연구가인 수리트 싱크(Surjit Singh)가 요한복음14:15-16에 나오는 ‘요한의 성령(παρακλητος)’에 관한 그(Singh)의 주석과 그 이해에 있어서 그(Singh)가 말한 인자(son of man)개념은 시종일관 성령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⁴⁷⁸⁾는 사실을 발굴하였다.

싱크(Singh)는 인자(son of man)를 곧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이요, 또한 말씀(The Logos)의 본질이며, 그분은 주님(The Lord)이라는 용어가 바로 보혜사(παρακλητος)성령의 개념으로 종합되어 나타난다.⁴⁷⁹⁾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싱크(Singh)는 ‘요한의 성령’이 곧 진리의 성령이며, 보혜사

473) *RCG*, 147.

474) *RCG*, 20.

475) *RCG*, 21.

476) *RCG*, 20.

477) *RCG*, 22.

478) Surjit Singh, *Christology and Personality*(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2). 100.

479) *Ibid.*, 101.

성령으로, 신자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인식작용을 통해, 성령의 본질과 계약백성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을 공작한다.⁴⁸⁰)는 비교분석적인 성령의 특징을 설파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은 오직 성령님 자신의 사역으로 간주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연합함을 도와주시며, 우리가 육의 몸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로 하나님께서는 천상적이고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외적인 표시(성례)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다.⁴⁸¹)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약속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감각이 이 방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⁴⁸²)

킹던이 편집한 깔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에 기록된 성찬식 참여문제로 야기된 권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 말안장 제조업자 작크 에멩(Jaques Emyn)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경청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⁴⁸³) “그는 주기도문을 꽤 잘 암송하기도 하였다. 그는 주일날 아침마다 베스페르(Vespers)교회에 출석하였다. 그는 제네바 컨시스토리로부터 성경을 사서 그의 가족들과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권면을 받았다.”⁴⁸⁴)

이어서 킹던은 깔뱅이 다음 권징사건을 처리했다고 전한다.

“제네바의 중산층이며 말안장 제조업자였던 로베르 브레이송(Robert Breysson)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왜 지난주 예배에 출석치 않았는가?”⁴⁸⁵)의 문제 때문이었다. 예배에 잘 참석하였는가?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로베르 브레이송에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주도록 결정을 내렸다. 또한 그는 매주 목요일마다 성찬식에 참

480) Singh, 100.

481) Ibid., 100-101.

482) Ibid., 102.

483) *RCCG*. 22. 1542년 3월 23일 목요일, 열다섯 번째 컨시스토리이다.

484) *RCCG*. 21-22.

485) *RCCG*. 21.

석하도록 조언을 받았다.”⁴⁸⁶⁾ 이것은 성만찬과 사악한 의지로 인하여 불거진 사건이다.

헨리 비버리지와 줄리엣 본네트 두 공저자는 성찬에 대한 갈뱅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다.

갈뱅은 1536년 「기독교강요」 초판에서부터 성찬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⁴⁸⁷⁾ 갈뱅은 여기서 명쾌하게 성례의 제정 이유와 목적을 성경의 시각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communion)에로 인도하신다.”⁴⁸⁸⁾는 점이다.

갈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보이는 표식을 통해서 약속의 실체(substance)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영적 둔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수용하는 정도에 맞추어 우리를 이해시키고자 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교제한다는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찬을 제정하셨다. 둘째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다 온전히 찬양하게 된다. 세째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고 모든 성결에 힘쓰게 된다.⁴⁸⁹⁾고 그들(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은 주장했다.⁴⁹⁰⁾

계속해서 이 공저자 헨리 비버리지와 줄리엣 본네트는 갈뱅이 강조하는

486) *RCG*, 22-23. 에스틴느 퀴르조(Estienne Furjodz)는 생 제르바스(St. Gervase) 교회에서 성찬을 받았고, 작크 시몽(Jaques Symond)과 시의회 의원인 룰랭(F. Lullin)이 그곳에 참석하였으며, 르와 트리프로(Loys Trippereaulx)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성찬식을 집행했다고 답변되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위하여 도박을 한 것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는 어떤 다른 이들을 반대해서 무엇이든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술 마시기 위해 도박만 했다고 말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그가 좀 과격했다는 말을 들어야 그의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는 이 도시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돈을 쓰는데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그는 여러 가지 해로운 놀이를 억제하고 좋은 충고를 받아들여 더욱 빈틈없이 발전해갔다.

487) *Inst(1536)*, 110.

488) *Inst(1536)*, 111.

489) *Inst(1536)*, 112.

490) *SWC5*, 92.

성찬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의 거울로서 성찬을 주셨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⁴⁹¹⁾

우리가 성찬에서 얻는 특별한 유익은 무엇인가? 성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무슨 불의가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비참함이 있든지 지복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확신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이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함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⁴⁹²⁾

이 두 학자의 깔뱅 성찬론에 대한 학설을 보면 그 속에서 두 가지 견해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첫째는 모든 선의 근원이요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의 죽음과 고난이 주는 열매와 효과이다.”⁴⁹³⁾

우리는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실제로 받아야 한다. 성례의 내적 실체는 보이는 표지(visible signs)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이는 표지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 그것이 누구에 의해 주어졌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성찬은 우리를 배은망덕에서 건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여하신 유익을 간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감사하게 하고, 공적인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에게 빚을 지고 사는지를 고백케 한다⁴⁹⁴⁾는 것이다.

또한 성찬의 유익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고, 특히 우리 안에 사랑과 형제애를 지키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데 있다.⁴⁹⁵⁾는 목적 때문이다. “왜냐하

491) *SWC5*, 92-93.

492) *SWC5*, 91.

493) *SWC5*, 93.

494) *SWC5*, 98.

495) 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 (ed), *Selected Works of Calvin*(Tracts and Letters, Volume 2, Baker Book House, 1983) 173-174. 이책의 제목을

면 성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머리되신 그와 하나가 됨으로 그의 지체가 된 까닭에, 우선 우리를 그의 청결과 순결(purity and innocence)에 부합시키고 또한 특히 동일한 몸의 지체가 가져야 할 그런 사랑과 일치(charity and concord)를 서로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⁴⁹⁶⁾

갈뻡은 성찬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한다. 갈뻡은 성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성찬에 업신여김(contempt)이나 무관심(indifference)으로 접근하여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데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자는 성찬을 사악하게 능욕하는 자요 더럽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거룩하게 하신 것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intolerable blasphemy)이다.”⁴⁹⁷⁾

갈뻡에 의하면, “하늘과 땅위에 주님의 몸과 피보다 더 귀하고 더 존엄한 것이 없을진대, 경망스럽고 준비없이(inconsiderately and without being well prepared)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사소한 실수일 수는 없다.”⁴⁹⁸⁾

또한, “주님의 성찬에서 합당한 영양(proper nourishment)을 얻기 위해선 마땅히 우리 영혼은 기근으로 고통당하여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하는 것이다.”⁴⁹⁹⁾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특히 교회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거나 그에게 원한을 품고서 성찬을 대하려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이, 우리 역시 끊을 수 없는 우정(indissoluble friendship)으로 하나가 됨이 마땅하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 조각으로 찢게 되며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⁵⁰⁰⁾

갈뻡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

*SWC2*로 표기한다.

496) *SWC2*, 173.

497) *SWC2*, 174.

498) *SWC2*, 175.

499) *SWC2*, 176. “our souls must be pressed with famine and have a desire and ardent longing to be fed.”

500) *SWC2*, 177.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불완전하다고 느끼며 우리의 양심이 수많은 죄악들을 책망하지 못할 정도로 순결치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것이 주의 거룩한 식탁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⁵⁰¹⁾

“성찬은 우리의 허약함(our weakness)을 돕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며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키고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책(remedy)인 까닭에, 우리가 질병으로 억압된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찬을 삼가 하기보다 더욱 활용해야 한다.”⁵⁰²⁾

갈뻥을 의뢰해 보면, 성찬의 사용 횟수에 관해서는 어떤 확실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성찬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경우도 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억지로 성찬을 이요케 하기 위해 성찬을 제공하라는 명백한 명령을 받은 일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의도하셨던 목적을 신중히 고려해보면, 성찬의 사용은 지금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연약함이 우리를 억누르면 누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해주고 순결한 삶(purity of life)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성찬에 의지함이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수요할 능력(capacity)에 따라 자주 성찬을 거행하는 습관이 모든 교회에 잘 세워져야 한다.”⁵⁰³⁾

헤럴드 달러(Harold Dollar)가 말하는 “갈뻥의 성찬은 하나님의 은밀하고 기이한 능력에 의해(by the secret and miraculous power of God) 완성된

501) *SWC2*, 178. 물론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마음에 위선(hypocrisy)이나 기만이 없어야 한다.

502) *SWC2*, 179

503) *SWC2*, 179. 갈뻥에 의하면, 합당치 못하다는 이유로 성찬을 오랫동안 삼가해서는 안 된다. 갈뻥은 로마교회의 화체설을 거부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아무런 기초가 없고 고대 교회로부터 계승했다는 어떤 흔적도 없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고 조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찬의 빵 앞에 부복하거나, 또 마치 그리스도가 그 빵에 포함되어 있는 듯이 빵 속에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은 우상을 성찬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그것을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먹으라는 것이다. 갈뻥에 의하면, 사탄은 성찬의 유익을 오류와 미신으로 더럽히며, 그 열매를 부패시키려고 전력을 다했다는 점을 천명했다.

다.”⁵⁰⁴)고 한다. 또한 달러는 깔뱅이 “하나님의 영은 성찬 참여의 띠(the bond of participation)이다. 이 때문에 성찬은 영적이라.”⁵⁰⁵)고 불리운다.

우리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신앙으로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진정한 실체(the proper substance of the body and blood of Jesus Christ)에 참으로 참여하게 된다.⁵⁰⁶)

필자는 여기서 깔뱅의 이러한 성찬론의 입장에 서 있는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치리한 성만찬 불참자의 한 권징사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는 바로 “이발사 로렛 가야르(Rolet Galliard)였다. 그의 성만찬 불참 문제로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열렸다. 그는 성만찬을 마지막에 받았다. 그리고 설교시간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으며 만약 그가 첫 번째 시간에 설교에 참석치 않았다거나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그의 귀는 잘려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매일 교회를 가지 않았다.”⁵⁰⁷)고 여러번 말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의견은 로레 가야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고용주인 필립(Philip)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로레 가야르가 실제로는 안했지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는 월요일에 제네바 컨시스토리(평의회)에 소환되었다.”⁵⁰⁸)

필자는 킹턴의 로렛 가야르(Rolet Galliard)에 대한 깔뱅권징 사건의 진술에 대한 이해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가야르 자신이 지금까지 우상주의자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여

504) Harold Dollar, *A cross Cultural Theology of Healing*(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0), 232.

505) *Ibid.*, 232-233.

506) *Ibid.*, 233.

507) *RCG*, 315.

508) *RCG*, 315-316. 1544년 1월 3일 목요일, 이 날에 컨시스토리가 열렸으나 어떤 불확실한 이유로 컨시스토리가 다음 주 목요일로 연기되었다. 연기된 컨시스토리가 열린 날과 여기에 참석한 당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개정일자 1544년 1월 10일 목요일이었다. 이 컨시스토리의 참석자들은 행정장관 Hudriol Du Mollard 경 주체로, Calvin, Pupin, De Genesto, Trippereaulx, Chaompereaulx, De Ecclesia, Morel, Vernaz, Pensabin, Blandin, Veyrier, De Loermoz, The officer Vovrey 등 이었다.

주었다. 따라서 그가 십자가와 다른 형상들을 숭배하였다는 말이나, 성찬의 빵을 던졌다고 말하는 것이나, 베드로와 마리아에게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소문들 때문에 그는 그 당시 우상숭배자로 의심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권징심사 과정에서 그가 우상숭배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였고, 실제로 그는 우상숭배자가 아니었다. 이러한 오해의 사실들이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가야르 소환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

C.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윤리적인 권징문제

1. 주인과 하녀

윌리엄 브레데 (William Wrede)는 “그의 저서 ‘메시야의 신비(The Messianic Secret)’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룩함과 경건’이며 그 결과(증거)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오래전부터 교회윤리라는 주제로 살아있다.”⁵⁰⁹⁾고 말했다. 또한 브레데가 주장하는 이 교회윤리는 초대교회와 마가의 창작을 통해 교회 가운데 규정되었다.

그러나 윌슨(R. Mcl Wilson)은 메시야의 교회윤리를 마가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마가는 예수님이 악령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 시켰다.”⁵¹⁰⁾고 전한다. 왜냐하면 “악령들의 말이 인격적(윤리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실체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 각 사람과의 인격(윤리)적 만남으로 밝혀 져야하기 때문이다.”⁵¹¹⁾

그러므로 필자는 윌슨의 논지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려고 한다. 사람(죄인)이 주님과 인격(윤리)적인 만남이 없을 때 그는 어떠한 주님의 이적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는 메시야를 증거하는 것을 금지시킨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 그 자체가 결여 되었기 때문이며, 그렇게

509) W. Wrede, *The Messianic Secret* J. C. Geig, trans(Greenwood : The Attic Press, 1971) 9-10.

510) R. Mcl Wilson, *Mark in Peake's Community on the Bible*(London: Nelson, 1962) 801.

511) Ibid., 802.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메시야의 경이로움만 보고 매료 되었을 뿐, 윤리적인 메시야 예수의 인격을 수용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윌슨이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의 영토에서 화려한 영광과 함께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적 메세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침묵을 명하셨다.”⁵¹²⁾는 그의 논지를 존중해 주고 싶다.

한편 갈뱅의 인간론에 선구자적인 토렌스(T. F. Torrance)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갈뱅의 교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총체적 관계를 요약한다.”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⁵¹³⁾

토렌스에 따르면 “갈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하여 예민하게 구별하지 않는 히브리인들의 흔히 쓰는 반복법을 보여준다.”⁵¹⁴⁾고 설명했다.

갈뱅은 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장식들로 하나님에 의하여 눈부신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주를 존경하고 합당한 감사로 예배해야 할 것이다.”⁵¹⁵⁾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상실되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양은 깨끗하게 지워졌다(God’s likeness is wiped out),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상실되었다.”⁵¹⁶⁾는 죄악 때문이다.

토렌스가 볼 때 이처럼 갈뱅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고 삭제되었고 사라졌고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갈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유일한 형상으로 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

512) Wilson. 802.

513)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London: Lutterworth, 1949), 59.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라는 갈뱅의 교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총체적 관계를 주목시킨다. 갈뱅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둔다. 갈뱅은 이 개념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514) Ibid., 59-60. 갈뱅의 로마서 주석(롬5:12)은 ‘파괴되었다’, ‘잃어 버렸다.’로 표기 하였다.

515) Ibid., 60.

516) Ibid., 61.

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⁵¹⁷⁾고 주장했다.

갈뱅은 “에베소서 4장24절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아담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아담은 거울처럼 하나님의 의를 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죄로 지워져 버린 그 형상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⁵¹⁸⁾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갈뱅은 “고린도후서 3장18절의 말씀대로, 갱생한 신자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개혁된 것과 진정 다르지 않다. 그러나 첫째 창조보다 두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고 힘이 있다.”⁵¹⁹⁾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킹던이 밝힌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처리한 가정 윤리문제를 소개해보고자 한다.⁵²⁰⁾

킹던에 따르면⁵²¹⁾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잔느(Jane)의 탄원을 수용하고,

517) Torrance, 62.

518) Ibid., 61. 갈뱅의 에베소서 주석(엡4:24)에는 ‘죄로 인해 지워져 버린 형상’이라고 소개했다. 갈뱅은 에베소서 4장24절 설교에서 “우리는 주 예수가 둘째 아담인 것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한 모범처럼 되어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하여 그와 그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야만 했다.”고 썼다. 여기서 갈뱅은 거울이미지를 언급한다. 토렌스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갈뱅의 견해를 이해하면서 거울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갈뱅은 항상 거울이라는 용어로 그 형상에 대하여 생각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519) Ibid., 62.

520) *RCG*, 184. 모리스 마이스트르(Mauris Maystre)가 참석한 가운데, 그는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을 두 번씩이나 맹세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배었고, 그는 그녀에게 결혼의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 그녀는 4, 5년 전에 제네바에서 그 사건에 관한 자료들을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제출한바 있다.

521) *RCG*, 183-186. 컨시스토리의 특별 평의원들(syndics)의 직위수여는 주일인 1543년 2월 4일에 일반 평의회가 성 베드로(St. Pierre) 교회의 회랑에서 거행되어, 새 특별 평의원회를 선거하여 직위를 수여했다. 제시된 8명 중에 4명이 남았다. 즉, 귀족 Jehan Coquet, Girardin de La Ryvaz, Anthoyne Checand, 그리고 Hudriod Du Molard등 이다. 컨시스토리 구성원의 선거와 그리고 여기서 선출된 자들은 다음 수요일에, 즉 이달 7일, 소위원회에서 새로 선출된 특별 평의원들로 하여금, 다음 목요일인 이달 8일에 컨시스토리에 출석되도록 임명되었다. 특별평의원에는 Girardin de La Ryvaz경, Hudriod Du Molard경, Claude Pertemps경등 이었다.

벤(Bene)을 권징하였다. 그리고 프레니(Pregny) 지역의 고 아메 그라니에(Amye Grenyer)의 딸인 잔느가 자신과 아이를 위해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진술한 잔느의 남편인 벤은 결혼식에서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이를 그의 탓으로 돌렸고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속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그녀는 모든 이에게 공개된 인물이었다. 벤은 그녀에게 전혀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녀는 벤만을 기다렸고 그 사람 벤은 그녀가 낳은 아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그 아이를 보모에게 위탁했다. 벤은 전혀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고, 딱 한 번 사귀었을 뿐이다. 벤은 그녀를 안 것에 대하여 계속 후회하였고, 그래서 그녀에게 결혼반지를 주지 않았다.”⁵²²⁾ “그녀는 투르나이(Tournay)에서 온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다.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소견은 그들이 평의회 앞에 소환되어 그 여자가 자신의 탄원을 증인들에 의해 입증하고 평의회에 탄원서를 내는 것이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벤에게 자신이 잔느(Jane)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도록 명령받았다. 그리고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탄원서를 그 여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명령하였다.”⁵²³⁾

필자는 킹덤이 조명해 주고 있는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이와같은 권징시행이 그 시대 제네바 시민들과 성도들에게 크나큰 경찰역할을 했을것으로 기대한다.

2. 도박과 게임

찰스 핫지(Charles Hodge)는 갈뱅이 천명한 신앙인의 경건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요약했다.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성경의 모든 사실로부터 끌어낼 때만이 이단과 경건한 신앙인의 윤리에 대한 도전을 극복

522) *RCG*, 184-185.

523) *RCG*, 192-193. 그는 썽 제르바스(St. Gervase)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였고, 그녀는 2년간 이 도시에서 함께 살았다. 그가 자신의 추방 선고문을 발행받았을 그 당시에 그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전혀 그녀의 방에 있지 않았고 최근, 한 일년 전에 성 베드로 축제 동안 그녀와 함께 잤다. 그는 항상 그녀를 진심으로 원했다고 말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내놓은 해결책은 진술한 삐에르 라팽(Pierre Rapin)이 목요일의 관례적인 시간에 컨시스토리에 소환되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 사건이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보고되었다.

할 수 있다.”⁵²⁴⁾고 말했다.

hatzhi는 또한 계속해서 깔뱅이 “영적혼란을 제거하고 신앙인의 자기윤리를 실현하는 길은 신앙인의 자기철학에 의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경건과 윤리의 행동철학을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다.”⁵²⁵⁾는 사실을 역설한바 있다.

hatzhi는 “성경의 사실들은 인간의 직관적 진리와 성령의 가르침을 인증한다. 성경은 항상 자명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지향한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을 범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로 본성의 구조에 의해 어떤 사실을 믿게 해놓고선 성경 속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사실을 믿도록 명령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다.”⁵²⁶⁾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벤더 스텔트(Vander Stelt)는 “깔뱅의 인간관이 가건적인 물질과 불가건적인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원론적 인간관을 가지고, 이와 동일한 주관(신앙)과 객관(윤리)의 이원론을 통해서 주관(신앙)은 이성을 이용하여 사실들(윤리)을 모으고 이성은 제공된 증거(윤리와 비윤리)를 판단한다.”⁵²⁷⁾고 보았다.

시드니 알스트롬(Sydney Ahlstrom)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을 가진 스코틀랜드 신학사상과 철학이 유럽의 개혁주의 신학사상과 구프린스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있다.⁵²⁸⁾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은 자신의 저서(*Understanding Fundamentalism and Evangelicalism*)에서 미국의 프린스톤 신학이 스코틀랜드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깔뱅주의자 두사람(아브라함 카이퍼,

524)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3 vols(Eerdmans: Grand Rapids, 1946), 14.

525) Ibid., 14-15.

526) Ibid., 16.

527) Vander Stelt, *Philosophy and Scripture : A Study in Old Princeton and Westminster Theology*(Marlton, NJ, 1978), 138.

528) Sydney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356. 존 위더스푼(John Witherspoon)이 1768년 고향을 떠나 프린스톤의 전신인 뉴저지(New Jersey) 대학의 학장이 되면서 부터이다.

워필드)이 그들의 신학초기에 일시적으로 종교적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성과 신앙, 주관과 물질의 이질적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상호 충돌하는 큰 차이점 때문에 신앙인의 경건과 신앙윤리 사이에 큰 괴리(Gap)가 발생한다.”⁵²⁹⁾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화란의 갈뱅주의자들은 1790년 화란혁명을 프랑스혁명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했고, 따라서 그것은 배교적인 혁명으로 규정했지만, 미국의 갈뱅주의자들은 그들과 달리 미국혁명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계몽사상’을 ‘합리주의’ 또는 ‘회의주의’와 동의어로 사용했다.”⁵³⁰⁾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계몽주의가 합리성과 과학적 사고에 관하여 보여준 갈등은 미국의 개혁주의자들에게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⁵³¹⁾ 18세기 관점의 일부 다른 경향에 대하여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⁵³²⁾

529) George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 The Shaping of Twentieth Century Evangelicalism 1870-1925*(New York: Oxford Press, 1980), 283.

530) Ibid., 284.

531) Ibid., 283-284.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바(James Barr)는 이렇게 말했다. 핫지는 분명 칸트 이전의 18세기 경험적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핫지는 두 개의 대조되는 과오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신비주의와 이성주의이다. 직관과 내면의 빛을 통하여 얻은 모든 견해는 전자에 속한 것이고 후자는 자연신교적인 입장으로서 이성을 너무 높이기 때문에 계시 종교를 하야시키며 기독교를 자연적 종교의 단계에서 찾아보려는 것이다. 핫지와 프린스턴 신학은 일반적으로 이 둘을 다 반박하였다. 그들은 ‘신비주의적’ 경향성을 완전히 배재하면서 ‘이성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이성의 오용만을 경계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자연주의 신교들과 같은 입장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연신교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핫지가 이성을 신뢰하는 것은 지나칠 정도이다. 그는 분명하게 이성은 계시를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또 이성은 계시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되며 이성은 계시의 증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532) Ibid., 284. 이 사실은 계몽사상과 과학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불란서 혁명 직후 얼마 동안 가장 명망이 높던 예일대학 총장 티모시 드와이트를 위시한 미국의 일부 갈뱅주의 지도자들은 계몽주의적인 ‘배도’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반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와 같은 드와이트의 잔재가 그 다음 세기에도 계속 살아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계몽사상’을 ‘합리주의’ 또는 ‘회의주의’와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킹턴은 이러한 흐름이 칼뱅시대 제네바 시민들의 윤리 속에 발견되고 있으며, 미국인 시민들의 신앙윤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다.⁵³³⁾는 점을 강조했다.

필자가 볼 때 킹턴은 이러한 흐름(신앙과 윤리의 충돌)이 1542년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권징사건 가운데서도 나타난다고 보는 것 같다.

필자의 현미경으로 킹턴의 논증을 해체한 결과 얻어진 정보는 칼뱅의 권징실례를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인 노블 드니 위고(Noble Denys Hugoz)는 도박과 다른 것들, 예배 참석, 여러 가지 놀이들, 그리고 신성모독 때문에 그가 구금당한 것으로 인하여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소환되었고,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그를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다.”⁵³⁴⁾는 사실이다.

“프랑스와 보니바르(Françoys Bonivard)는 위고네리(Monsieur Hugoneri) 씨의 집에서 어떤 게임을 열었다.⁵³⁵⁾ 이 일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공개적으로 체스 게임을 했다는 말이 진실이라고 제네바 컨시스토리앞에 말하였다. 그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사위 놀이가 금지된 사실을 듣지 못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자들과 게임을 했으며, 누군가가 자신을 나쁜 식으로 소문을 낸다면 그는 그일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과는 전혀 게임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하여 게임을 했다고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답변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도시 안에서든, 밖에서든지 그 어떤 설교자와도 게임을 하지 않았다.”⁵³⁶⁾

533) *RCCG*, 200.

534) *RCCG*, 201.

535) *RCCG*, 306-307.

536) *RCCG*, 204. 위고냉 드 몽뚜즈(Hugonyn de Monthouz)는 목수의 일을 하면서 도박을 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소환되었다. 즉, 그는 도박 때문에 제네바 컨시스토리로 부터 권면을 받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비록 아르또(Arthaud)가 하룻밤 그와 함께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어떤 여행객도 받지 않았다고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답변하였다. 그는 집 안에 날카로운 쌍칼을 남겨두었고, 단지 딱 한 번 쌍칼이 있는 그곳에 머물렀던적이 있었다.

이러한 권징 사실은 필자의 관찰대상이었던 킹던의 깔뱅권징에 대한 분석이 깔뱅시대 제네바 시민들의 윤리 속에 발견되고 있었으며, 또한 성도들의 신앙윤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훈육적 교화차원의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다.⁵³⁷⁾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3. 카드게임과 주사위 놀이

십자가 치유신학의 저자 헤럴드 달러(Harold Dollar)는 그의 저서(*Across Cultural Theology of Healing*)를 통해 “깔뱅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경건과 윤리를 죄인에 대한 영혼 구원과 치유(교정)이다.”⁵³⁸⁾라고 강조했다.

달러의 이러한 이해는 “깔뱅의 치유관이 로마 가톨릭의 그릇된 치유신학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다. 여기서 달러는 깔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치유의 능력(힘)을 믿었다.”⁵³⁹⁾는 점을 역설한다.

그러나 깔뱅의 치유신학에 비판적인 자들은 깔뱅이 치유의 시대가 지났다고 말하면서 충분한 성경을 지적하여 그 근거로 제시하며 말해주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깔뱅이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의 다양한 부패들의 영향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⁵⁴⁰⁾

이러한 달러의 입장은 진젤돌프가 말하는 깔뱅의 치유신학에 대한 진술에서도 나타난다. “깔뱅은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치료불능인 난치병, 다시 말하면 암이나 폐병같은 것으로 환자들이 죽음의 고뇌 속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치유된 확실한 증거를 수없이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치유가 되는 윤리적 교정(사회풍속 교화)의 증거와 사건들을 많이 접하고 있었다.”⁵⁴¹⁾는 점을 역설하였다.

프란시스 톰슨(Francis Thomson)은 치유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1905년 ‘*Health and Holiness: 건강과 성결*’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을

537) *RCG*, 200.

538) Dollar, 233-234.

539) *Ibid.*, 235.

540) *Ibid.*, 235-236.

541) *Ibid.*, 237.

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와 영혼을 대립적인 관계로 놓아서는 안된다. 성결을 통해 육체와 영혼이 서로 굳게 연합(건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⁵⁴²⁾고 주장하였다.

톰슨은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⁵⁴³⁾고 말했다. 그러나 육체의 구원도 대단히 중요시 했다.

임마누엘 치유 운동가인 크라이스만(H. L. Christmann)은 “치유는 교회의 사명이다.”⁵⁴⁴⁾고 말했다. 교회는 개인 영혼의 성장과 발달, 치유, 교화(훈육: 교정), 구원을 중요시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은 ‘영혼의 돌봄사역’⁵⁴⁵⁾이라고 역설했다.

깎쟁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는 이러한 지평에서 ‘영혼의 돌봄사역’을 500년 이전부터 실천에 옮겨왔다. 그 사례들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⁴⁶⁾

“장 위고네리 씨(Monsieur Jehan Hugonerii)는 이러한 카드게임과 주사위 놀음들 때문에 제네바 컨시스토리로 부터 권면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왜 권면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모르고 있다. 하지만, 카드 게임과 주사위 놀이, 그리고 어떤 설교자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어떤 한 사람(증인)을 통하여 드러난 이 사건의 진실은 더 이상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그는 하나의 여인속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⁵⁴⁷⁾고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답변되었다.

542) Francis Thomson, *Health and Holiness*(St. Louis: Herder Book Co. 1905), 30.

543) Ibid., 30-31.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그러한 지평에서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많은 병자들에게 직접 찾아 오셨다.

544) H. L. Christmann, *A Pattern for Healing in the Church*(SanDiego: St. Lake's Press, 1959), 115.

545) Ibid., 115-116. 이러한 목회는 근대에 이르러 두드러졌지만 그 시원은 예수의 목양자로서의 이미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성경에서 목회의 동기여부가 될 수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사역을 하실 때 세가지 주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일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가르치셨고, 둘째, 설교 하셨고, 셋째, 병자를 고치셨다.

546) *RCG*, 307. 파트(pate)사건에 관해서 그는 아는 것이 없었다. 이것은 고기와 물고기 그리고 닭고기 따위가 든 프랑식식 파이이다.

547) *RCG*, 305-306. 한 때, 드 썩 빅퇴르(Monsieur De Saint Victeur)씨는 단지

VII.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에 나타난 교회권징의 원리들

필자의 연구와 분석에 따르면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권징 및 훈육사건들 속에는 3가지 독특한 원리들(principles)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A.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경건의 원리

킹던은 “갈뱅의 치리는 단순한 행정적 권징, 처단적 치리 영역뿐 아니라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전인적 경건을 위하여 권징과 치리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러한 사실은 갈뱅이 교회를 하나님의 경건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 따라서 교회의 책임은 권징과 치리를 통해 경건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갈뱅의 목회 사역과 신학에서도 나타난다.”⁵⁴⁸⁾

로버트 화이트(Robert White)는 “갈뱅은 목회와 신학이 교리를 실현하는 현장으로 보고, 이것을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하였다. 갈뱅에게 있어서 권징과 치리는 신학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신학적인 활동이었다.”⁵⁴⁹⁾고 서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갈뱅의 신학적 목적을 위한 활동은 경건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경건목회의 산물로서 그의 작품과 문헌에 그의 경건 신학이 깊이 함

딱 한 번의 카드게임이나, 주사위 놀이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한적이 있었다. 전술한 위고네리(Hugoneri)의 자식인 그의 아내는 도박판에 구경하러 갔었지만, 그러나 주사위 놀이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존경할만한 지식인들을 제외 한 어떤 이들과도 전혀 놀이를 하지 않았다. 그는 5-6시간 동안 게임을 하지 않았고, 이런것에 대하여 문외한이라고 말했다. 한 번은 끌레몽 마로 씨(Master Clement Marot)가 두 세 번 게임을 했으며, “그들은 오직 주사위 놀이만 하였다.”고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답변하였다.

548) *RCCG*, 13-14.

549) Robert White, “The School in Calvin’s Thought and Practic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12(1969): 9-11.

축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갈뱅의 경건적 사고와 사상이 그의 신학 중심에 뼈대를 이루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화이트가 인용한 버나드 버슈백(Bernhard Buschbeck)의 말처럼 “갈뱅의 신학적 저술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건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⁵⁵⁰⁾는 분석과 평가는 매우 설득력있는 지적이다.

여기에 또한 칼 홀(Karl Holl)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1549년 6월, 갈뱅은 한 부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다.”⁵⁵¹⁾

홀은 갈뱅이 보낸 서신을 통해 갈뱅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한것을 설명해 주고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the Kingdom of the Son of God our Saviour)가 확장될 때, 그리고 주의 가르침의 좋은 씨앗(the good seed of his doctrine)이 널리 모든 곳에 뿌려질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하듯이, 나는 당신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이르러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였다.”⁵⁵²⁾는 것을 알고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연까지라도 당신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것과 이와 같이 하심으로써 당신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따라서 성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duty)요, 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에게 부르심으로써 우리의 전생애(our whole life)가 그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구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즉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철저히 확신해야 합니다.”⁵⁵³⁾라고 역설했음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두사람 베버리지와

550) Karl Holl,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III, Der Westen, Johannes Calvin(Tübingen, 1928), 273-274.

551) Ibid., 273. 그 편지는 Madame de la Roche-Posay에게 보내진 것이며, 1549년 6월 10일 발송된 것이다.

552) Ibid., 274.

553) Ibid., 275.

본네트는 갈뎡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따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⁵⁵⁴)라고 했다. 또한 갈뎡은 복음적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리용(Lyons)의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격려하고 있다.⁵⁵⁵)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능력을 아무 것도 동요시킬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여러분은 마지막 싸움(the last conflict)에 대해 묵상하여 왔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다스릴 것이고, 이로써 주님의 은혜가 모든 시험들을 이길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세상보다 더 강하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있는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⁵⁵⁶)

갈뎡은 1557년 5월 16일, 리용의 신자들에게 “용기를 내십시오. 나의 형제여, 용기를!”⁵⁵⁷)이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순교하였다. 갈뎡은 1557년 9월, 파리의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께 위대한 스승(the great Master)이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바, 인내로써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육신에 있어서 지극히 힘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들(our enemies)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때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걱정(against ourselves and our passions) 싸울 때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⁵⁵⁸)

갈뎡은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하나님의 복음이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우리 모두가 전멸 당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종들의 재(죽음: 희생)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for God will always cause the ashes of his servants to fructify). 그러나 지나친 행동과 폭력에는 아무런 열매

554) *SWC5*, 229-231. To the Five Prisoners of Lyon. 이 편지는 1553년 3월 7일에 쓴 것이다. 그들은 이단죄(the crime of heresy)로 정죄되었다.

555) *SWC5*, 230.

556) *SWC5*, 231.

557) *SWC5*, 232.

558) *SWC5*, 233.

가 없을 것입니다.”⁵⁵⁹⁾는 말을 남겼다.

칼뱅은 이 서신에서 교회의 하나 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술책(the craft of Satan)을 지적하면서,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일치단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⁵⁶⁰⁾

1557년 9월, 칼뱅은 파리의 감옥에 감금된 여성들에게 보낸 격려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남자들이 연약하고 쉽게 곤란을 당한다면, 여성의 연약성은 여러분의 타고난 체질(your natural constitution) 때문에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릇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연약함(the infirmity of his followers)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⁵⁶¹⁾

필자가 알고 있는 바 칼뱅에 의하면, “개신교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증오의 대상은 하나님의 진리이다. 칼뱅은 옥에 갇힌 여성들이 그들이 가진 은혜의 분량에 따라(according to the measure of grace)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를 다해야 한다.”⁵⁶²⁾고 권면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소망하며,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께 속하는 영예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⁵⁶³⁾

필자의 논쟁적 소견으로 분류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들이 반박할 수 없을 말과 지혜(mouth and wisdom)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확고함과 불변함(firmness and constancy)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칼뱅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도 한 여성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여성들이 어떠한 용기와 절개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오. 사도들이 주님을 버렸을 때 어떻게 그들

559) *SWC5*, 360. “but excesses and violence will bring with them nothing but barrenness.”

560) *SWC5*, 362.

561) *SWC5*, 363.

562) *SWC5*, 364.

563) *SWC5*, 365.

이 그와 같은 놀라운 불변함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리고 여성이 어떻게 사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자(messenger)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 곧 ‘많은 여성들의 순교’가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이 순교자의 영광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광도 얻도록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B.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교화적 원리

필자가 색출하고 연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조하면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권징사건은 칼 루드윅 스미츠(Karl Ludwig Schmidt)의 주장대로 “하나님 나라(βασιλεια)의 교화(Edification)와 직결되어 있다.”⁵⁶⁴⁾는 점이다. ‘하나님 나라(βασιλεια)’, 그 의미는 ‘왕국’ 혹은 ‘백성’보다 ‘왕의 능력과 권세를 통한 교화’란 개념이 더 기본적이라는데 실제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 보통 왕국, 나라로 번역되는 βασιλεια 라는 말은 모든 다른 용례보다 먼저 왕의 성격, 지위 등을 지칭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왕에 관한 말이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위엄과 그의 권세를 통한 교화를 말한다.”⁵⁶⁵⁾

이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할 이 βασιλεια의 뜻은 아마도 우리 주께서 그의 가르침에서 사용하셨던 아람어 말쿠트(malkuth)에서도 발견된다. 이 ‘용어’는 최근의 연구자로 등장하고 있는 구스타프 달만(Gustaf Dalman)의 판단이 확증해 주기도 한다. “구약성경과 유대문헌에서 말쿠트가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언제나 왕적통치를 의미하며, 그것은 왕이 다스리는 영토

564) Karl Ludwig Schmidt,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1949), 579.

565) Ibid., 579. 스미츠의 하나님 나라(왕국)에 대한 설명을 직접 인용해 보았다. "Zum allgemeinen Sprachgebrauch von basileia ist zu bemerken, dass das Wort, das wir meistens mit Königreich, Reich übersetzen, vorerst nur das Sein, das Wesen, den Zustand des Königs bezeichnet. Da es sich um einen König handelt, sprechen wir am besten von seiner Würde, seiner Gewalt."

를 의미한 것처럼 결코 그 나라를 의미하지 않는다.”⁵⁶⁶)는데 추호의 의심도 없다.

이점에 대하여 노르만 페린(Norman Perrin)은 달만과 같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적 배경의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⁵⁶⁷)고 전한다.

페린은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묵시문학적 입장에서는 초자연적인 인물을 통하여 인간역사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⁵⁶⁸)는 것이었다. 즉, 현실의 역사를 종식 시키고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유대인에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야에 매우 큰 관심과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이와같은 맥락은 독일 신학계에서 활동했던 교리학자인 칼 홀(Karl Holl)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홀에 따르면 “이 하나님 나라(왕국) 개념은 현실의 인간역사를 종식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 교화된 현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열망을 담고 있었다.”⁵⁶⁹)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저 교리학자 “홀이 연구한 바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권징 사건은 대부분이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를 통해 갈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⁵⁷⁰)는 것이다.

이 사람 홀은 말한다. “권징과 치리는 어디까지나 가급적 그 대상자들을 보호하는 교화적 입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⁵⁷¹)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수많은 권징과 치리가 있었으나 그 일들이 교화(Edification)의 실패로 인한 또 다른 권징과 치리를 낳기 위한 옥상옥의 일이 되지 않도록 배려한 흔적들이 역력히 나타나야 한다.⁵⁷²)는 점을 강력하

566) Gustaf Dalman, *The Words of Jesus*(Edinburgh: T. and T. Clark, 1909), 94.

567) Norman Perrin, *The kingdom of God in the Teaching of Jesus*(London: S.C.M. Press, 1985), 113.

568) Perrin, 113-114.

569) Holl, 275.

570) Ibid., 276.

571) Ibid., 276-277.

572) Ibid., 278.

게 주장하고 있다.

페린에 따르면 “갈뱅의 실천신학적 목회는 교회적 원리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⁵⁷³⁾ 그러한 사실은 갈뱅의 신앙생활 강조, 즉 실천신학적 지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폭넓은 교육신학적 관점과 그 관련성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교회적 목적을 포착 할 수 있다.⁵⁷⁴⁾

갈뱅은 특별히 실천적 교화(Edification)영역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그의 교회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따로 정리하는데 힘을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갈뱅은 교회권징의 모든 활동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신자들의 신앙을 교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까지 이루도록 이끌어 주는데 기여하는 한 과정으로서 교회의 교화교육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별히 갈뱅은 하나님의 교육이란 개념을, 성경의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교화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교회의 모든 행위 즉, 설교, 성찬, 치리 등의 교회의 본질적 활동과 사역도 교회의 교화적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갈뱅의 여러 저술 속에 단편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의 교회적 교화이론과 사상을 발굴하여 그의 교화적 구상과 실천을 위한 시도가 무엇이었던지에 대한 재구성과 그에 따른 그의 교회적 교화(교육)신학 사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달만은 그 해답을 말씀과 교리의 목회자이며 교육신학자인 갈뱅에게서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는 “갈뱅을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조명해야 할 인물로 그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오늘의 기독교 교회교육이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교회교육의 고유한 텍스트(text)와 컨텍스트(context)의 변화가 기존의 교회교육 패러다임(paradigm)에 지각변동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⁷⁵⁾고 진단했다.

필자는 이러한 지평에서 바라볼 때 특별히 사회변동의 결과로 탈 근대화 시대에 돌입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 교회교육의 신학적 정체성과

573) Perrin, 114.

574) Ibid., 115.

575) Dalman, 95.

방향성은 교회교화적인 목표로 다시금 정립되고 확립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칼뱅 당시 제네바 교회가 시행했던 교회적 교리교육과 기독교 절기들 즉 성탄절, 성인의 날, 그리고 교회력들은 교화적 차원에서 가톨릭과 구별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576)

필자는 칼뱅이 고수하고 있는 기독교 절기는 가톨릭의 그것과 달리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적이며, 교회교화적인 절기들로 이해한다. 그가 처리한 사건들 내용 가운데서도 기독교 절기에 대한 사건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데,⁵⁷⁷⁾ 그 특징을 보면 칼뱅의 이러한 반가톨릭적 개신교회의 절기시행은 독립된 성경적 기독교 절기에로의 교화적 개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증거들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킹던을 통해 얻은 정보자료에 따르면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열린 날은 대부분 목요일이었다.”⁵⁷⁸⁾고 확인되는데 이 사실 또한 가톨릭과 차별화된 제네바 컨시스토리만의 교화적 시간선택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판단은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시행한 권징 및 처리의 시행 일자가 거의 대부분 목요일이었다.”⁵⁷⁹⁾는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

칼뱅의 권선징악적 권징 속에는 이 교화적 원리가 철저하게 작용하고 있다.⁵⁸⁰⁾ 그가 말하는 교화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교화하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으로 교회의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교리교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은 칼뱅의 교회관 속에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⁵⁸¹⁾

576) *RCG*, 191-196.

577) *RCG*, 101-119.

578) *RCG*, 77-79.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개정된 날은 거의 대부분 목요일이었다.

579) *RCG*, 1-458. 이 사실 진술은 어디까지나 킹던의 편집 기록에 따른 것이다.

580) *Inst(1541)*, 101-102.

581) *Inst(1536)*, 398-399. 칼뱅의 교회론이 집약된 『기독교 강요』 제 4권 1장 II 절은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부르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시는 외적 방법들과 도움들에 관한 글이다. 칼뱅의 교회론은 신학적 이기보다 인간학적이며 더욱이 교육학적 관점과 교화적 훈련

또한 칼뱅은 교회교육을 교수(목사: 가르치는자)와 학습(성도: 배우는자)의 현상을 미시적 관점이 아닌 목회 활동을 통한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경험들 즉, 거시적 관점에서 설교, 성례, 권징(치리) 등도 모두 교화교육(교리훈육)적 안목으로 이해하였다.⁵⁸²⁾

그리고 또한 칼뱅은 교육과 교화의 대상을 단순히 어린아이와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평생 교육적 측면에서 전 생애를 통한 성화과정으로 교육적 교화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이해하였다. 나아가 칼뱅은 성숙한 교리 교육 목회 활동을 위하여 모든 신자를 교화적 대상으로 하여 교리교육의 목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⁵⁸³⁾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는 교화교육을 통해 성경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⁵⁸⁴⁾ 칼뱅이 시행한 권징사건들 속에는 교화적 원리가 철저하게 흐르고 있다. ①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윤리와 신앙고백을 가르쳤다.⁵⁸⁵⁾ ②예배참석과 예배생활을 가르쳤다. 주일성수를 왜 하여야 하는지, 수요일예배 및 금요일예배, 그리고 기도회에 왜 참석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이유를 자세하게 가르쳤다. ③절기와 그에 따른 실천사항들을 가르쳤다.⁵⁸⁶⁾ ④결혼과 그 목적 및 이유, 부부윤리와 가정의 윤리를 가르쳤다. ⑤주일성수와 예배출석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을 가르쳤다. ⑥성찬과 그 유래 및 목적과 이유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⑦기도하는 법을 가르

에 연관지어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칼뱅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한 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교회의 교화와 훈육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케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또한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교화시키는 하나님 훈련의 중요한 통로요 기관이요 현장으로 보고 있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무릎에 그의 자녀들이 모이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교회의 수고와 봉사로 양육되고 교화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의 어머니다운 돌봄(교화)으로 다스려지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그들이 성장하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하였다.

582) *Inst(1536)*, 401.

583) *Inst(1536)*, 401-402.

584) *Inst(1541)*, 100-101.

585) *Inst(1541)*, 101.

586) *Inst(1541)*, 102.

쳤다. ⑧경제생활과 물질관리 및 사용에 대한 윤리를 가르쳤다. ⑨교리를 통한 교화교육을 하였다.⁵⁸⁷⁾

영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존 헐(John Hull)은 깔뱅과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그 당사자인 부모, 부부, 가장, 자녀, 타 지역에서 온 객인, 업주 등을 제네바 컨시스토리로 불러 해당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덕목들을 교육하고 교화하며 계도하였다.”⁵⁸⁸⁾고 주장했다. 깔뱅이 목회하고 있었던 그 당시 제네바 교회는 가톨릭과 개혁파간에 극도의 분열 국면에 봉착해 있었다.⁵⁸⁹⁾

이 교육 신학자 헐은 교회가 사회정황 속에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그의 책 “무엇이 성인 기독교 교인들의 학습을 방해하는가?: *What Prevents Christian Adult from Learning?*”라는 책에서 현 사회적 문화형태가 관료성(bureaucracy), 합리성(rationality), 개인주의(individualism), 미래성(futurity), 그리고 해방성(liberation)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들이 기독교 교회교육의 교화적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⁵⁹⁰⁾고 지적했다.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이해선상에서 볼 때 이것은 한국교회(당회)가 시행하고 있는 교회교육(교리교육)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깔뱅시대 교화적 교리교육은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므로 깔뱅의 교화교육이 주중에 실시되는 것과 비교연구해 볼 때 한국교회 교리교육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한국교회 교리교육 시간과 당회는 간혹 주중에 열리거나, 수요일에 열린다. 그러나 깔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주로 목요일에 열렸다. 왜 목요일에 개정하였을까? 그 이유로 몇 가지 교화적 특징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는 제네바 컨시스토리 구성원들 때문인 것 같다. 그들은 주로 시의회 의원들이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주일날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셋째는 권정을 받는 대상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교화적 배려

587) *Inst(1541)*, 102-103.

588) John Hull, *What Prevents Christian Adult from Learning*(Philadelphia: Trinity Press, 1991), 33-34.

589) *Ibid.*, 34.

590) *Ibid.*, 35.

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C.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성경적 원리

칼뱅(1509-1564)이 성경의 무오성을 신봉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으나, 특별히 존 맥닐(John McNell)에게 와서부터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부정되고 있다.⁵⁹¹⁾는 점이 이상하다.

맥닐의 논맥을 보면 “성경 무오설은 기계적 영감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칼뱅이 기계적 영감설의 신봉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칼뱅이 성경의 무오성도 믿지 않았다는 주장이 성립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칼뱅은 물론 기계적 영감설을 신봉하지 않았고, 완전 영감설을 신봉했다. 그렇기 때문에 칼뱅은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않았다.”⁵⁹²⁾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칼뱅의 주장을 보면 그가 성경 무오성을 얼마나 철저히 믿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드러나고 만다. 칼뱅에 의하면 “성경은 무오한 표준이며, 점이나 흠이 없고, ‘확실하고 무오한 법칙’이며,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⁵⁹³⁾고 선언했다.

이어서 칼뱅은 자신의 성경무오에 대한 견해가 루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성경의 무오성은 성경 전체에 응 하는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부분에만 해당되며, 구원 이외의 부분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적응 때문이다.⁵⁹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드워드 듀이(Edward A. Dowey)는 “칼뱅에게 있어서 성경상

591) John McNeill, *The Significance of the Word of God for Calvin*(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9). 131. 칼뱅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서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는 물론, 다른 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도 인정받고 있다.

592) Ibid., 132. 여기서 맥닐(John McNell)이 칼뱅의 견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59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Edition 1536),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75), I. 149. 506, V. 2. II. 249. 여기서 부터 이 책을 각주에 *Inst(1536)*로 표기한다.

594) *Inst(1536)*, 249-250.

의 오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모순인 것 같고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 구절들은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어서 설명하고 해석한다.”⁵⁹⁵⁾고 주장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갈뱅, 그리고 루터에 대해 읽고 그들을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는 현대의 저술가들과 비교하는 사람은 그 개혁자들의 태도와 현대의 무오성을 반대하는 사람들 간에 차이점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후자는 틀림없이 성경을 훼손하고 인간화하며 낙타를 삼키고도 하루살이를 길러내는 자세라고 할 것이다.⁵⁹⁶⁾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존경과 겸손 그것이었으며 성경을 권위가 있고 어떠한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⁵⁹⁷⁾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주장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 현 사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들도 이들과 처럼 성경은 권위가 있으며 또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 처럼 우리도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무릎꿇어) 대하는 삶이 되어야 옳을 것이다.

갈뱅의 권징원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⁵⁹⁸⁾ 갈뱅의 컨시스토리 운영의 원리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가 시행한 권징 가운데, 소환, 출석명령, 충고, 권면 등은 모두가 성경에 기초한 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⁵⁹⁹⁾

필자의 분석적 인식으로 관망해 볼 때 갈뱅의 권징 속에는 반드시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 자연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 주고자 하는 데에는 반드시 고도의 성경적 원리의 의도가 숨어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 구성원을 바르게 지도

595) Edward A.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New York: Columbia, 1952), 91.

596) *Ibid.*, 91-92.

597) *Ibid.*, 92.

598) *RCG*, 211-216. 하나님중심, 예수중심, 성령중심, 교회적 교리(교화)중심이다.

599) *RCG*, 410-417.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통찰적 시각에서 접근해 볼 때 갈뱅은 “여기에 권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⁶⁰⁰⁾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뱅은 권징을 시행함에 있어서 성경을 따르는 것보다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갈뱅의 권징은 매우 성경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권징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를 배제하는 단순한 방향으로 연구는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이 담고 있는 본질의 범주를 넘어, 주석학적, 설교학적, 교회사적 혹은 조직신학적 연구에로의 확장은 안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⁶⁰¹⁾ 따라서 갈뱅이 행한 권징의 성경적 원리는 작금의 교회(당회, 목회)운영에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 그리고 통전성과 윤리적 효율성을 담지한 성경적 원리를 모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필자의 해석으로 보이는 대상은 “갈뱅이 강조하는 성경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교리와 연결된다.”⁶⁰²⁾ 따라서 갈뱅의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교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권징 하였다.⁶⁰³⁾ 특별히 갈뱅이 교리적 잣대를 들이던 대상은 가톨릭교회의 교리였다. 그는 자신이 작성하고, 고안하여, 수립한 개혁교회 교리를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비교분석하여 철저하게 그 허구를 지적하고, 척결하며, 개혁하였다.⁶⁰⁴⁾

이러한 원리는 갈뱅의 목회에서도 나타난다.⁶⁰⁵⁾ 그리고 그의 설교, 주석, 서신, 제네바 아카데미 사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갈뱅의 신앙 교육서와 기독교 강요, 기타 그가 남긴 문헌들의 집필 배경, 목적, 내용을 볼 때, 그의 일관된 중심 사상은 바로, 교리를 통한 개혁, 교리적 설교관, 교리적 목회관, 교리를 벗어나는 신앙생활에 대한 권징 및 치리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교리적 원리와 관점은 종교 개혁과 목회사역을 분

600) *RCG*, 224.

601) *RCG*, 225.

602) *RCG*, 223-225.

603) *RCG*, 187.

604) *RCG*, 190.

605) *Inst(1541)*, 99-101. 갈뱅은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교회를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학교’에 비유하였다. 또한 그는 (답전5:7)을 주석하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학교’로 이해하였다.

석, 평가할 때 더욱 현저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그는 교회자체를 ‘교리의 정신과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로써 자리 매김 하였다. 사실적 근거 위에 시행된 제네바 교회의 컨시스토리 권징은 철저하게 본인 및 관계자들의 사실을 교리에 근거하여 시행하였다.⁶⁰⁶⁾

필자의 일천한 소견과 보편적인 이해로 통찰해 볼 때 이러한 교회개혁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깔뻐온 교회가 사회적 정화기능의 주요한 담당자적 과제로써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도로 권징을 시행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역사에 귀중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해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06) *Inst(1536)*, 344-345.

VIII. 결 론

필자는 지금까지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과 권징의 역사적 근거가 되는, 관련문헌들을 수집, 번역하고, 갈뱅시대의 제네바시 의회형성 및 공화정치제도 채택과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설치, 그리고 그 기능 및 권징시행 과정과 실제사건들, 재판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징의 원리까지를 집중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제I장에서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을 번역하고 연구 분석하여 150여가지 이상 많은 권징 사례들을 발굴해 내었으며, 갈뱅의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 나타난 그의 신학적 교회정치와 세상나라 정치윤리를 분석한 결과 상호의존적 관계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정숙의 “제네바에서 갈뱅의 출교와 회복” 및 기타 문헌들을 분석, 연구한 결과 출교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갈뱅시대 치리제도는 여러사람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둘째, 제II장에서 갈뱅시대의 제네바시 의회 공화정치 형성 배경과 가톨릭 주교 추방 및 제네바시 의회 공화정치 채택, 그리고 갈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형성과 수립의 역사를 분석한 결과 스위스 베른시 의회 공화정치 제도가 제네바시 의회 공화정치제도의 뿌리라는 사실과 베른시 의회 공화정치, 그 중심에 쓰윙글리의 종교개혁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 내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갈뱅에 앞서 파렐이 시작하였으며, 그는 자신이 제안한 제네바시민과 공개토론을 통해 제네바 종교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 그들과 함께 베드로 대성당을 장악했고, 그의 개혁전략으로 제네바시 주교가 추방되었으며, 그 주교좌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발굴해 내었다.

셋째, 제III장에서는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갈뱅은 제네바시의 개혁과 성시화를 위하여 교회헌법을 수립하고, 교리

를 작성하였으며,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 하나님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들은 그 당시 제네바 시민들의 동의와 제네바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수립된 교리와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혁활동은 비단 칼뱅 혼자만이 한 것은 아니다. 제네바 시민들, 20인 소위원회, 60인 위원회, 200인 위원회와 꼬로우, 인문주의자,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룩한 역사였다. 이 개혁들은 철저하게 성경과 교리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권징의 한 분야가 되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투쟁하였다. 칼뱅은 자신이 1541년에 제정한 제네바 교회헌법, 그리고 1542년에 작성한 제네바 교리 문답 등이 있다. 그가 여기에 근거하여 시행한 권징의 결과는 하나님 중심, 의회중심, 교회중심, 시민국가 중심의 일치된 가운데 특이한 구조로 발전하여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될 때 부패했던 중세 가톨릭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바로 잡아 주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권징시행과 그 처리를 위한 기초적인 교회헌법과 교리작성 및 그 시행을 위한 권징재판, 그리고 권징시행의 원리들을 분석해 보았다. 칼뱅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항하여 교회질서를 흔들려 놓으려는 범법자들의 회개를 도출하여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권징을 시행하느냐? 그 불균형의 양면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낸 것들을 분석하였다.

넷째, 제IV장에서는 칼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와 존낙스의 스코틀랜드 치리회를 연구하고, 나아가 영국교회 치리회를 상호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비판을 덧붙였다. 칼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의 치리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적용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교리검증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존 낙스시대 스코틀랜드 교회 치리회 역시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적 치리회의 장점을 살려 고귀한 그 정신을 조국교회와 전 유럽에 확산시켜 그 실현의 꽃을 피우고자 노력하였지만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영국교회 치리회는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채택한 성경적 근거

에 기초한 권징시행을 수용하여 그 정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그러나 그 실현의 역사성은 많은 비판과 논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섯째, 제V장에서는 권징의 이유와 목적을 분석하였다. 권징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둘째,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었다. 셋째, 거짓교회를 참교회로, 범죄자를 회개시켜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었다. 넷째, 도덕상 신령상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었지, 국법상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섯째, 권징은 교회가 그 본질적인 기능을 위협받기 이전에 먼저 시행하는 교정시책이었다.

여섯째, 제VI장에서는 갈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시행한 교회권징의 실재를 찾아 분석하였다.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 가운데 산재(散在)해 있는 약 150여 가지 이상의 권징사건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그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신학적인 문제로 인한 권징들을 한데 그룹핑하였다. ②교회적인 문제로 인한 권징들을 한그룹으로 묶었다. ③윤리적인 문제로 인한 권징들을 하나로 동아리하였다.

일곱째, 제VII장에서는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에 등재되어 있는 150개 이상의 다양한 권징사건들 가운데, 세가지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경건생활의 원리(Principle of Pious Life)요. 둘째는, 교화적 원리(Principle of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이며, 셋째는, 성경적(Principle of Biblical teaching) 원리였다.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은 이 가지 원리를 통해 개인과 가정, 교회와 제네바를 종교적으로 개혁하고 정치적으로 교화를 꾀하여, 실패한 중세시대의 문닫고, 새로운 하나님의 신정정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가져다주었다.

여덟째, 제VIII장에서는 갈뱅이 제네바교회 담임목회자로서 재임하는 7년여 기간 동안 갈뱅이 가톨릭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엄청난 박해와 혼란스러웠던 사회적 부패의 파고 속에서, 제네바 교회, 개인, 가정, 사회, 나아가 제네바 시민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의 질서 및 도시국가의 시민윤리를 실현하는데 팔목할만한 공헌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칼뱅주의 신학과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회권징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써 한국교회는 칼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담고 있는 권징의 가치를 교회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신앙, 가정윤리, 교회질서, 시민윤리, 나아가 국가정의 및 인류행복 실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체화 시켜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개교회(個教會)들이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에 시행되었던 칼뱅의 제네바 교회의 권징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숫적 부흥에 집중되어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 풍토로 볼 때 현실적으로 사안에 따라, 때로는 과오를 범한 교우를 교회 밖으로 내어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에게 있어서 이 ‘권징’은 교회질서를 세워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들이 칼뱅주의 개혁교회를 추구한다면 칼뱅과같이 ‘교회 권징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지평에서 볼 때 이 논문은 그 실현을 위한 지침서로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6.
- 박종근. **한국 장로교회 교회정치 연구**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1987.
- 배광식. **장로교 정치원리와 치리제도 형성에 관한 역사적 연구**. 대구: 계명대 학교, 2005.
-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종성. “칼빈의 성서관”. **신학과 신학자들** (양서각) 제1집 (1987): 202-218.
- 이종일. **교회헌법정해: 정치,권징조례,통상회의법 해설**. 서울: 성광문화사, 1994.
- 이형기. **세계교회사(II)**.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4.
- 정성구. **개혁주의 인명사전**.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사, 1995.
- _____. **설교자를 위한 칼빈의 신학사전**.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 _____. **칼빈주의 사상대계**.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5.
- 정일웅. “신학적 근거: Calvin의 교리교육과 교육목회”. **기독교교육연구** (총신대학교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제1집(1990): 114-117.
- 한국칼빈학회. **최근의 칼빈연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1.
- 황재범. “Understanding of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계명신학** 제2집(1987): 계명대학교 출판부.
- Ahlstom, Sydney.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356.
- Aiken, Taylor George. “John Calvin, The Teacher. The Correlation Between Instruction and Nurture Within Calvin’s Concept of Communion.”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53.
- Anderson, Bernhard W. *The Old Testament and Christian Faith*. New

- York: Harper and Row, 1963.
- Armstrong, William Park. *칼빈의 종교개혁사상*.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9.
- _____. *Calvin and the Reformation*. New York:
 Grand Rapids .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0.
- Bainton, Roland H. *16세기의 종교개혁*.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2.
- Battles, Ford. *Analysis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John
 Calvin*. New Yor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 _____. *John Calvin: Catechism, 1538 Edition*. New Yor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 _____.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75.
- _____. *The Piety of John Calvin: An Anthology of the
 Spirituality of the Reformer*. Trans. and ed. by Ford Lewis
 Battles. Music ed. by Stanley Tagg. New Yor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 Bavinck, Herman. "Calvin and Common Grace." *Calvin and the
 Reformation*. Ed. William Park Armstrong. New Yor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 _____. *The Doctrine of God*. New Yor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 Berkhof, Hendrikus. *Christian Faith*. Rev. ed.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86.
- _____.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New York:
 Richmond, Va. John Knox Press, 1964.
- Berkhof, Louis. *기독교 교리사*. 신복운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7.
- Berkhof, William. "Calvin's Influence Upon Educational Progress." *The*

- Banner Ban* 62 (1927): 440-441.
- Berkouwer, G. C. *Divine Election*.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60.
- _____. "Life of John Calvin" In *Tracts and Treatises on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Vol. I.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58.
- Bettenson, Henry. *Documents of Christian Chu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1957.
- Beveridge, Henry and Jules Bonnet.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 5(Letter, Part 2). New Yor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545.
- Beza, Theodore. **칼빈의 생애와 신앙**. 김동현 옮김. 서울: 목회자료사, 1999.
- Boehmer, J. F. *Acta Imperii selecta*. Österreich: Innsbruck, 1870.
- Bright, John. **하나님 나라**. 김인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Brown, H. *A Short History of Scotlan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1.
- Browner, A. E. "Calvin's Doctrine of Children in the Covenant: Found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Reformed Review* 18 (1964-1965): 17-29.
- Brunner, Emil. *The Christian Doctrine of the Church, Faith, and the Consummation*. Dogmatics, vol. 3.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 _____.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and Redemption*. Dogmatics, vo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2.
- _____.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3.

- Canon, William. **웨슬레 신학**, 전종욱 역, 서울 : 기독교 대한 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1962.
- Calvin, John.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김동현 옮김. 서울: 솔로몬, 1994.
- _____. **칼빈의 경건**. 이형기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9.
- _____.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요약**. 박해경 편저.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8.
- _____. *Calvin's Ecclesiastical Advice*. Translated by Mary Beauy and Benjamin W. Farle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 _____. *Calvin'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the fourth book, which treats of the Church and the Sacraments. Les ordinances ecclésiastiques de l'église de Genève. Item l'ordre des escoles de la dite cité. (Geneva, 1541).
- _____.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 September and October 1541, Calvin's Theological Treatia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 _____.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y Ford Lewis Battle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 Vol. 1. 2. Ed., by John T. Mcneil and trans. by F.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75.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ume I and II (Edition 1559).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The Order of the College of Geneva." *In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XVIII*, translated by W. Standford Reid

- (November. 1955).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5.
- Cameron, James K. *The First Book of Discipline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ondon: The Saint Andrew Press, 1970.
- Christmann, H. L. *A Pattern for Healing in the Church*. SanDiego: St.Lake's Press, 1959.
- Cram, Ronald H. *Understanding Trends in Protestant Educ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Crowe, R. McFerran. "The Reformed Faith and Christian Education." *The Southern Presbyterian Journal* 14 (Sept. 1955): 7-14.
- Culpepper, Robert H. *Interpreting the Atonement*.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66.
- Custance, Arthur C. *칼빈의 교리신학*.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독교 문화협회, 1988.
- Dalman, Gustaf. *The Words of Jesus*. Edinburgh: T.and T. Clark, 1909.
- Dankbaar, W. F. *Calvin, Sein Weg und Sein Werk*. Neukirchen: Neukirchener Berlag, 1959.
- Davies, A. Mervyn. *칼빈의 사상과 자유사상*.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9.
- Davies, Alfred T. *John Calvin and the Influence of Protestantism*. London: Henry E. Walter, 1946.
- De Jong, Peter Y.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8 (Nov. 1955): 101-122.
- _____. "Calvin's Contributions to Christian Educa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 (1967): 162-201.
- Dendy, Marshal C. *Calvin and Christian Education*. New York:Richmond

- John Knox Press, 1964.
- Dickinson, W. C. *A New History of Scotland*. Vol. 1. Edinburgh : The Saint Andrew Press, 1961.
- Dollar, Harold. *Across Cultural Theology of Healing*. Pasada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0.
- Douglass, Jane Dempsey. *Women, Freedom, and Calvi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 Doumergue, E. *La Genave calvinista* Geneva: Lausanne, 1905.
- Doumergue, Emile.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Dowey, Edward A. Jr. "The Structure of Calvin's Theological Thought as Influenced by the Two-fold Knowledge of God." *In Calvinus Ecclesiae Genevensis Custos*, Wilhelm H. Neuser. ed. Frankfurt: Verlag Peter Lang, 1984.
- Dunn, Samuel. *요한칼빈의 신학진수*. 김득용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Durant, Will. *The Reformation*. New York: Simon & Schuster, 1957.
- Edmond, Harper Norman. "A Comparative Study of the Educational Information of the Thought of John Calvin and Soren Kirkegaard."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1966.
- Eichrodt, Walth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I *Old Testament library*. t(T)rans. by J. A. Baker. London: SCM Press Ltd., 1961.
- Elma, Harkness Georgia.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H. Hort & Co., 1931.
- Engel, Mary Potter. *John Calvin's Perspectival Anthropology*. Atlanta, Georgia: Scholar Press, 1988.
- Finlayson, R. A. *Able Ministers of the New Testament*. London: A. G.

- Hasler & Co, 1965.
- Foxgrover, David. *The Legacy of John Calvin*. Grand Rapids: CRC Product Services, 1999.
- Galeason, Randall C. *John Calvin and John Owen on Mortification*.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Inc., 1995.
- Gamble, Richard C.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2), 93.
- George, Timothy. *John Calvin and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Philadelphia: John Knox Press, 1990.
- _____. *Theology of the Reformers*. Nashville, Tenn.: Broadman Press, 1988.
- Gerrish, Brian A. *The Grace of Reason: A Study in the Theology of Luther*. Oxford: Clarendon Press, 1962.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ssays on Calvin and the Reformation in Honor of Ford Lewis Battles*. Collaboration with Robert Benedetto. Pittsburgh: Pickwick Press, 1981.
- Gillespie, George. *Aaron's Rod Blossoming, or The Divine Ordinance of Church Government*. London: A. G. Hasler & Co, 1646.
- Gonzalesz, Justo L. *기독교사상사(Ⅰ),(Ⅱ)*. 이형기, 차종순 공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 Graham, W. Fred.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 _____.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 Econmic Impact*. Atlanta: John Know Press, 1978.
- _____. "A Response to 'Calvin's Academic and Educational Legacy.'" *Calvin Studies Society Papers*.
- Greengrass, Mark. *Chronology of the Reformation at Geneva 1541*.

- British: University of Sheffield, 1543.
- Gregg, Singer. "Calvin and Education." *Call* 7 (1979): 19-22.
- Grimm, Harold J. *The Reformation Era*. New York: Macmillan., 1598
- Hall, Charles A. M. *With the Spirit's Sword*, The subtitle: *The Drama of Spiritual Warfare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Zurich: EVZ Verlag, 1968.
- Hallesby, O. 양심. 이현주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Harkness, Georgia.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ashville: Abingdon Press, 1958.
- Harper, Norman E. *Making Disciples: The Challenge of Christian Educ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New York: Christian Studies Center, 1981.
- Harris, Maria.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9.
- Harrison, Wilds Elmer. *The Foundations of Modern Education*. New York: Rinehart & Co., 1952.
- Henderson, G. D. *Presbyterianism*. Aberdeen: The University Press, 1954.
- Henry, Carl F. H. *Christian Personal Ethics*. Grand Rapids: Eerdmans, 1957.
- _____. *Christian Personal Ethics*. New Yor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7.
- 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ume 5, Letter, Part 2. New Yor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545.
- _____. *Selected Works of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ume 2,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 Hesselink, I. John. *Calvin's Concept of the Law*. Allison Park, Pa: Pickwick Publications, 1992.
- _____. *Calvin's First Catechism*. Michigan: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1538.
- _____.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2d ed. New York: Reformed Church Press, 1988.
- _____. *개혁주의 전통*. 최덕성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Holl, Karl.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III, Der Westen, Johannes Calvin*. Germane: Tübingen, 1928.
- Hull, John. *What Prevents Christian Adult from Learning*. Philadelphia: Trinity Press, 1991.
- Hunt, George L, ed. *Calvinism and Political Orde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5.
- Jaarsma, Cornelius, ed.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53.
- _____. *Human Development, Learning and Teaching*.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59.
- Jacobs, Paul. *Prädestination und Verantwortlichkeit bei Calvin*.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37.
- Jansen, John F. *Calvin's Doctrine of the Work of Christ*. London: James Clarke, 1956.
- Jewett, Paul K. *Election and Predestination*.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85.
- _____. *The Lord's Day*.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71.

- John, Serene. *Calvin and the Rhetoric of Piety*.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5.
- Kingdon, Robert M, ed.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2000.
- Knox, John. *The Forme of Prayers and 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Works VI.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56.
- Kolfhaus, Wilhelm. *Vom christlichen Leben nach Calvin*. Neukirchen: Buchhandlung des Erziehungsvereins, 1949.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81.
- Lane, Anthony N. S. *John Calvin Student of the Church Father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9.
- Laney, Carl. *A Guide to Church Discipline*. Minnesota: Bethany House Publishers, 1990.
- Larson, Mark J. "John Calvin and Genevan Presbyterianism."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0 (1998): 43-69.
- Latourette, Kenneth Scott. *A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3; 1975..
- Lee, Jung-Sook "Excommunication and Restoration in Calvin's Geneva. 1555-1556." P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7.
- Leith, John H. "The Geneva Primer or Calvin's Elementary Catechism." *Calvin Studies* V (1990): 77-89.
- _____.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 Leon, Sap Charles. "John Calvin, Humanist Educator: The History of Ideas and Their Relationship to Social Change." Ph. D.

-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1970.
- Lewis, Gillian. "The Geneva Academy." *Calvinism in Europe, 1540-1620, 35-6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Lindsay, Thomas M. **종교개혁사(I)**.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국, 1990.
- _____. **종교개혁사(III)**.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 Lohse, Bernhard. **기독교 교리사**. 구영철 옮김. 서울: 컨콜디아사, 1997.
- Linder, Robert D. "Calvinism and Humanism: The First Generation." *Church History* vol. 44 (1975): 102-122.
- Lindner, William. *Men of Faith John Calvin*. Minnesota: Bethany House Publishers, 1998.
- Luther, Harkey Martin. "A Theology for the Ministry of Volunteers with Reference to Calvin's Doctrine of Vocation, and with Particular Focus on Developing Leadership for Christian Education in the Congregation." Ph. 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85.
- Lynn, Robert. "An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Futures of American Religious Education." In *Found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in an Era of Change*, ed. Marvin Tayl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76.
- Maag, Karin. "Calvin's Academic and Educational Legacy." *Calvin Studies Society Papers*.
- _____. "Development and expansion: 1559-1572." *Seminary or University?*, 8-34.. Vermont: Scolar Press, 1995.
- Mackinnon, James. *Calvin and the Reformation*. London: Longmans, Green, & Co., 1936.
- McDonald. M. Wallace. *Registers of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 of Calvin*. General Editor Robert M. Kingdom. Editor Thomas A. Lambert and Isabella M. Watt. Grand Rapids: Eerdmans, 1996.
- McGrath, Alister E. *A Life of John Calvin*. Oxford: Basil Blackwell Ltd, 1991.
- _____.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 Ltd., 1993.
- McKelway, Alexander. "The Importance of Calvin Studies for Church and College." *Calvin Studies* I (1982): 221-233.
- McKim, Donald K. *What Christians Believe About the Bible*. Nashville: Thomas Nelson, 1985.
- McKim, Donald K., 외 공편.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9.
- McLelland, Joseph C. *The Reformation and Its Significance for Toda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 McNeill, John T. *A History of the Cure of Souls*. New York: Harper, 1951-1965.
- _____. *The Significance of the Word of God for Calvi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9.
- _____.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Meeter, H. Henry. *The Basic Idea of Calvinism*. New York: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60.
- Milner, Benjamin Charles,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E. J. Brill, 1970.
- Mitchell, A. F. *The Scottish Reformation*. Nashville: Baird Lecture, 1899.
- Monter, E. Willam. *Calvin's Geneva*. New York: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75.

- Naphy, William G. "The Reformation and the evolution of Geneva's schools." *Reformations Old and New, 185-202*. Vermont: Scolar Press, 1996.
- Nauert, Charles G. and Raymond A. Mentzer.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Calvin as Protector of The Purer Religion*. Edited by Wilhelm H. Neuser and Brian G. Armstrong. Michigan: Truman State University, 1994.
- Niesel, Wilhelm. *The Gospel and the Churches: A Comparison of Catholicism, Orthodoxy and Protestantism*.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 _____.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 Oliphant, Hughes Old. *The Shaping of the Reformed Baptismal Rite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Grand Rapids, 1992.
- Osterhaven, Eugene. *The Faith of the Church: A Reformed Perspective on Its Historical Development*.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82.
- _____.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Ed. Donald K. McKim. New Yor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 Parker, T. H. L.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_____.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5.
- _____.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Rev. ed.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59.
- _____.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London: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9.

- Partee, Charles.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y*. Leiden: E. J. Brill, 1977.
- _____. "Calvin's Central Dogma Again."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43 (1987): 77-89.
- Pauck, Wilhelm. *The Heritage of the Reformation*. Rev. ed. Glencoe, Ill.: Free Press, 1961.
- Paul, Robert. *The Atonement and the Sacraments*. London: Hodder & Stoughton, 1961.
- Perrin, Norman. *The kingdom of God in the Teaching of Jesus*, London: S.C.M. Press, 1985.
- Pink Arthur W, *The Doctrine of Salvation*, London: Lutterworth Press, 1984.
- Plomp, J. *De Kerkelijke Tucht bij*. Kammpen: Kok, 1969.
- Raynal, Charles. "The Place of the Academy in John Calvin's Polity." *Calvin Studies II*. Philadelphia: Davidson College Presbyterian Church, 1990.
- Reed, R. C. **칼빈주의 뿌리와 열매**. 홍병창 옮김. 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85.
- Reid, J. K. S.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London: SCM Press LTD, 1955.
- Reid, W. Stanford.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이훈영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 _____.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8 (Nov, 1955): 1-33.
- Reisner, Edward H. "Calvin and Presbyterianism." *Historical Foundations of Modern Education*, 435-444. New York: Macmillan, 1927.

- Renwick, A. M.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홍치모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Richard, Lucien Joseph.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Atlanta: John Knox Press, 1974.
- Richard, R. DeRidder. "John Calvin's Views on Discipline: A Comparison of the Institution of 1536 and the Institutes of 1559." *The Calvin Theological Journal* 21 (1986): 223-230.
- Robert, White. "The School in Calvin's Thought and Practic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12 (1969): 5-26.
- Rohls, Jan. *Reformed Confessions*. Tranlated by John. Hoffermeier.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7.
- Rutherford, Samuel. *The Divine Right of Church-Government and Excommunication*. London: The Saint Andrew Press, 1646.
- _____. *The Due Right for Presbyterie or, a Peaceable Plea, for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fo Scotland*. London: The Saint Andrew Press, 1644.
- _____. *A Peaceable and Temperate Plea for Pauls Presbyterie in Scotland*. London: The Saint Andrew Press, 1642.
- Sauer, James B. *Hathful Ethics According to John Calvin*. Lampeter: The Edwin Mellen Press, 1997.
- Schaff, Philip, ed. *Creeds of Christendom*. 3 vol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19.
- _____. *The Creeds of Christendom*. New York: Grand Rapids Bark Book House, 1966.
- _____.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1972.
- Schaff, Philip. *신조학*. 박일민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4.

- Schmidt, Karl Ludwig.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1949.
- Singh, Surjit *Christology and Personalit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2.
- Spitz, Lewis W. *종교개혁의 정신*. 정연철 역. 서울: 풍만, 1990.
- Sproul, R. C. *In Search of Dignity*. London: Regal Books, 1983.
- Stauffer, Richard. *종교개혁*. 박건택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 _____, *La creation et providence dans la predication de Calvin*. Berne: Peter Lang, 1978.
- Steinmetz, David. "Calvin and the Natural Knowledge of God." *Calvin in Context*. chap. 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Steinmetz, David C. *Calvin in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Stickelberger, Emanuel. *하나님의 사람 칼빈*. 박종숙, 이은재 공역. 서울: 나단, 1992.
- Tamburello, Dennis E.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Columbia Series in Reformed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 Tavard, George H. *The Starting Point: of Calvin's Theology*. New York: Grand Rapids Eerdmans, 2000.
- Taylor, George Aiken. "John Calvin, The Teacher. The Correlation Between Instruction and Nurture within Calvin's Concept of Communion."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Durham, 1953.
- The Humble Advice of the assembly of Divines Now by Authority of Parliament at Westminster. *Concerning A Confession of Faith: With the Quatations and Texts of Scripture Annexed. Presented*

- by Them lately to Both Houses of Parliament.* London: The Saint Andrew Press, 1647.
- Thomson, Francis *Health and Holiness* St. Louis: Herder Book Co. 1905.
- Torrance, Thomas F.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Lutter worth Press, 1949.
- _____. *The School of Faith: The Catechisms of the Reformed Church.* London: James Clarke, 1959.
- _____. *Space, Time and Incarnat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9.
- Walker, W.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u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 _____. *John Calvin: the Organizer of Reformed Protestantism 1509-1564.* New Yord: AMS Press, 1972.
-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he Word and Sacrament.* New Yord: Grand Rapids Eerdmans, 1957.
- Weber, Max.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Mairet Philip. Glasgow: William Collins Sons & Co. Ltd., 1950.
- Wendel, Francois.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s of His Religious Thought.* New York: Harper & Row, 1963.
- Wernle, Paul. *Der Evangelische Glaube nach den Hauptschriften der Reformatoren. vol. 3, Calvin.* German: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19.
- White, Robert. "The School in Calvin's Thought and Practic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12 (1969): 9-11.

Wright, David F.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Calvin as Protector of The Purer Religion*. General editors Charles G. Nauert, and Raymond A. Mentzer. Edited by Wilhelm H. Neuser and Brian G. Armstrong. Michigan: Truman State University, 1994.

Zachman, Randall C. *The Assurance of Faith: Conscience in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_____. "What Kind of Book Is Calvin's Institutes?." *Calvin Theological Journal* 35 (2000): 238-261.

Zwingli, Huldrych. 그의 생애와 사역. 박종숙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3.

A Research on the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1542-1544

Lee, Oeck-Joo

Department of Theology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Chung, Sung-Kuh. Hwang, Jae-Buhm)

(Abstract)

I searched materials profoundly related to the subject of this study in order to show that this study on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1542-1544* is dissimilar to other studies. However I could hardly ever searched the materials I want. The first study on this subject was likely to be begun by a historian, Robert M. Kingdon. As he edited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he treated cases of discipline exercised by the Consistory of Geneva for three years(1542-1544) of five years of pastoral work(1542-1546) in the church of Geneva. Especially, in these days spelling rules was not standardized. So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was registered in the old French. Robert M. Kingdon translated it into English old literatures

written by cursive script and stenography, and arranged them. This book is now possessed by the French Museum.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1542-1544 has left five study tasks.

First task is to find out the basis of ethics of theological politics in the church discipline(150 cases) exercised by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Second task is to organize(members) and operate(function) a consistory to exercise church discipline.

Third task is to make clear that there are reason and purpose for exercising church discipline.

Fourth task is to excavate real and historical cases of church discipline.

Fifth task is to find out the principles of church discipline exercised by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After I analyzed and studied the documents related to this study, I eventually came to the conclusion as following.

In the introduction of the first chapter I showed the purpose, the scope and the limits of this study on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In the second chapter, I revealed the basis of church discipline exercised by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The basis is ethics of theological politics in the Calvin's Institution(1536-1550). On the basis of this ethics, Calvin established church ordinances and he built up the foundation of church discipline to prepare the reformed doctrine and the confession of faith. He also found out that church politics was closely related to secular political system. In addition, he found out that a self-governing system of Genevan citizens was related to parliamentary democracy. However only Calvin could not reform Geneva and citizens of the city. Citizens of Geneva, a subcommittee of 20, a board of 60, a board of 200, caureau, farel, humanists and evangelists took part in the Geneva's reformation.

In the third chapter, I handled the function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In this chapter I analyzed Calvin's understanding of law and trials of the consistory and principles of the application of a law. How did the consistory exercise discipline in order the happen tasks that lawbreakers acting against God's love and grace was able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normally and generally? I analyzed that the consistory could lead in harmony of two sides of estrangement and unbalance of discipline.

In the fourth chapter, I analyzed the reason and purpose of discipline. I have five points in the purpose of discipline. First, it is the protection of God's truth. Second, it is maintenance of church order. Third, it is repentance of lawbreakers. Fourth, it is solution of moral and spiritual problems. Church rapidly had to exercise discipline before its essence would be threatened by satan's power.

In the fifth chapter, I analyzed and grouped the real cases that were subject to disciplinary punishment which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exercised.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were usually caused by theological problems and ecclesiastical happening.

Besides, many cases were happened by moral problems of family and society.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handled the real cases which was subject to disciplinary punishment in order to be good to church and lawbreakers. I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nd grouped disciplinary punishments revealed in the consistory of Geneva:

1. theological problems 2. ecclesiastical happenings 3. moral events.

In the sixth chapter, I made clear that principles of disciplines exercised by the consistory of Geneva. I recognized that disciplines have three principles. 1. It is the principle of pious life. 2. It is the principle of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 3. It is the principle of Biblical teaching.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reformed and edified individuals, families, churches and states through these three principles. And they prepared new period through these three principles.

In the seventh chapter, I found out that it was true that Calvin outstandingly contributed to actualizing God's righteousness and

church order and civil ethics of state from huge persecutions of catholic church, spiritual chaos and threat of pest for Calvin's pastoral periods of Genevan church.

Accordingly, this paper is significant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good guide to accomplish Calvin's reformed spirit, construction of God's kingdom and achievement of healthy church.

장 칼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1542-1544) 연구

이 억 주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 학 과

(지도교수 정 성 구, 황 재 범)

(초록)

지금까지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과 권징의 역사적 근거가 되는, 관련문헌들을 수집, 번역하고, 칼뱅시대의 제네바시 의회형성 및 공화 정치제도 채택과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설치, 그리고 그 기능 및 권징시행 과정과 실제사건들, 재판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징의 원리까지를 집중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제I장에서 『칼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을 번역하고 연구 분석하여 150여가지 이상 많은 권징 사례들을 발굴해 내었으며, 칼뱅의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 나타난 그의 신학적 교회정치와 세상나라 정치윤리를 분석한 결과 상호의존적 관계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정숙의 “제네바에서 칼뱅의 출교와 회복” 및 기타 문헌들을 분석, 연구한 결과 출교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칼뱅시대 치리제도는 여러사람의 작품이

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둘째, 제II장에서 갈뱅시대의 제네바시 의회 공화정치 형성 배경과 가톨릭 주교 추방 및 제네바시 의회 공화정치 채택, 그리고 갈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형성과 수립의 역사를 분석한 결과 스위스 베른시 의회 공화정치 제도가 제네바시 의회 공화정치제도의 뿌리라는 사실과 베른시 의회 공화정치, 그 중심에 쓰윅글리의 종교개혁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 내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갈뱅에 앞서 파렐이 시작하였으며, 그는 자신이 제안한 제네바시민과 공개토론을 통해 제네바 종교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 그들과 함께 베드로 대성당을 장악했고, 그의 개혁전략으로 제네바시 주교가 추방되었으며, 그 주교좌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발굴해 내었다.

셋째, 제III장에서는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갈뱅은 제네바시의 개혁과 성시화를 위하여 교회헌법을 수립하고, 교리를 작성하였으며, 신앙고백문을 만들어 하나님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들은 그 당시 제네바 시민들의 동의와 제네바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수립된 교리와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혁활동은 비단 갈뱅 혼자만이 한 것은 아니다. 제네바 시민들, 20인 소위원회, 60인 위원회, 200인 위원회와 쾰로우, 인

문주의자,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룩한 역사였다. 이 개혁들은 철저하게 성경과 교리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권징의 한 분야가 되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투쟁하였다. 칼뱅은 자신이 1541년에 제정한 제네바 교회헌법, 그리고 1542년에 작성한 제네바 교리 문답등이 있다. 그가 여기에 근거하여 시행한 권징의 결과는 하나님 중심, 의회중심, 교회중심, 시민국가 중심의 일치된 가운데 특이한 구조로 발전하여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될 때 부패했던 중세 가톨릭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바로 잡아 주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권징시행과 그 처리를 위한 기초적인 교회헌법과 교리작성 및 그 시행을 위한 권징재판, 그리고 권징시행의 원리들을 분석해 보았다. 칼뱅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항하여 교회질서를 흔들어 놓으려는 범법자들의 회개를 도출하여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권징을 시행하느냐?하는 과제로 제기된 문제들, 즉 그 불균형의 양면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낸 것들을 분석하였다.

넷째, 제IV장에서는 칼뱅시대의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와 존낙스의 스코틀랜드 치리회를 연구하고, 나아가 영국교회 치리회를 상호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비판을 덧붙였다. 칼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

초한 하나님 중심의 치리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적용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교리검증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존 낙스시대 스코틀랜드 교회 치리회 역시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적 치리회의 장점을 살려 고귀한 그 정신을 조국교회와 전 유럽에 확산시켜 그 실현의 꽃을 피우고자 노력하였지만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영국교회 치리회는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가 채택한 성경적 근거에 기초한 권징시행을 수용하여 그 정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그러나 그 실현의 역사성은 많은 비판과 논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섯째, 제V장에서는 권징의 이유와 목적을 분석하였다. 권징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둘째,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었다. 셋째, 거짓교회를 참교회로, 범죄자를 회개시켜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었다. 넷째, 도덕적 신령상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었지, 국제법상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섯째, 권징은 교회가 그 본질적인 기능을 위협받기 이전에 먼저 시행하는 교화(교정)시책이었다.

여섯째, 제VI장에서는 갈뱅시대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시행한 교회권징의 실

제를 찾아 분석하였다.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 가운데 산재(散在)해 있는 약 150여 가지 이상의 권징사건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그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학적인 문제로 인한 권징들을 한데 그룹핑하였다. 2. 교회적인 문제로 인한 권징들을 한 그룹으로 묶었다. 3. 윤리적인 문제로 인한 권징들을 하나로 동아리하였다.

일곱째, 제VII장에서는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에 등재되어 있는 150개 이상의 다양한 권징사건들 가운데, 세 가지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경건생활의 원리(Principle of Pious Life)요. 둘째는, 교화적 원리(Principle of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이며, 셋째는, 성경적(Principle of Biblical Teaching) 원리였다.

『갈뱅시대 제네바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은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 개인과 가정, 교회와 제네바를 종교적으로 개혁하고 정치적으로 교화를 꾀하여, 실패한 중세시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하나님의 신정정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가져다주었다.

여덟째, 제VIII장에서는 갈뱅이 제네바교회 담임목회자로서 재임하는 7년여 기간 동안 갈뱅이 가톨릭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엄청난 박해와 혼란스러웠

던 사회적 부패의 파고 속에서, 제네바 교회, 개인, 가정, 사회, 나아가 제네바 시민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의 질서 및 도시국가의 시민윤리를 실현하는데 팔목할만한 공헌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갈뱅주의 신학과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회권징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교회는 갈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담고 있는 권징의 가치를 교회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개인 신앙, 가정윤리, 교회질서, 시민윤리, 나아가 국가정의 및 인류행복 실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체화 시켜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개 교회(個教會)들이 지금으로부터 500여년전에 시행되었던 갈뱅의 제네바 교회의 권징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수적 부흥에 집중되어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 풍토로 볼 때 현실적으로 사안에 따라, 때로는 과오를 범한 교우를 교회 밖으로 내어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뱅에게 있어서 이 ‘권징’은 교회질서를 세워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들이 갈뱅주의 개혁교회를 추구한다면 갈뱅과 같이 ‘교회 권징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지평에서 볼 때 이 논문은 그 실현을 위한 지침서로서 조금이나
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된다면 본 연구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
이 감사한 일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저자 약력

출생: 충남 서천 비인 다사 354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LA)

대전신학 대학교 졸업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M.Div.eque)

계명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Th.M).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졸업(Ph.D)

□ 논문 및 저서

M.Div.equiv 학위논문: 시편84편 시온사상 연구

Th.M 학위논문: 존 칼빈의 강해설교 연구(요1:1-5)

Ph.D 학위논문: 장 갈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1542-1544) 연구

학술논문: 장 갈뱅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1542-1544)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1년)

(현)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구 온누리 교회 담임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241-3

(H.P: 011-812-7003. 053-642-4003(목). 053-642-8497(교))